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세광(고신대학교 · 조교수)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 ▶ 집필진 : 김주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여봉사부 과장)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 조교수)
박주현(대구가톨릭대학교 · 외래교수)
정건희((사)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 연구보조원 : 김광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청년실업율과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혼율 증가와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의 해체현상과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의제(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30개 나라 약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이 연구는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Ⅰ」를 시작으로, 2014년에 이어 연속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총괄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과 더불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1차년도)과 추진전략 개발’ 등이다. 특히 시범사업과 추진전략 개발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정책방안들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영역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제시하였다.

제Ⅱ장은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2014년도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기획과 공모과정을 거쳐 4.1~9.30(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3개 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어르신-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범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Ⅲ장은 국내외 사례 연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유사 사례의 특징과 운영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각 국의 사례로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10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Ⅳ장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전략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전략 개발의 절차와 핵심원리, 지역사회 조성 실행체계, 추진 로드맵, 영역별 실천과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은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전략 개발, 영역별 실천과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소년 친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사업별 운영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시범사업)**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은 2014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추진하였으며,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의 심사과정을 거쳐 1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5.4.1 ~ 2015.9.30.(6개월) 동안 실시되었음.
- **(문헌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등에 대한 개념과 추진 의도 및 절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 행복도시의 추진전략의 원칙, 추진전략 기획과 시행 시 고려사항, 주요 개발 영역과 세부 실천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 46명(분석유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세부영역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전국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4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면접조사)** 현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운영사례를 탐색하였음.

- **(전문가 세미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이해가 깊은 연구자와 현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2015년 7월 22일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초안을 마련하였음.
-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8월28-28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공무원, 2015년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6명, 연구진 등 11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를 설계하였음. 워크숍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개발과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였음.

3. 주요결과

1) 시범사업 결과

- 금년도 시범사업은 3개 영역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각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사업목표와 세부 활동내용(활동명, 목표, 주요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음.
-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집과 홍보를 비롯하여, 각 단계별 운영에 따른 과정평가와 개선방안은 프로그램별 운영책임자를 선정하여 내용을 기록한 다음 운영진 전체 논의를 토대로 각 단위 사업과 프로그램별 운영과정 및 추진 단계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금년도 제1차 시범사업 운영 과정과 참가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제언하였음.

2) 국내외 사례고찰과 시사점 도출

- 국내 사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접근 중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선정절차 고찰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더불어 지자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유사 사례의 특징과 운영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제언하였음.
- 국외 사례로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10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전략과 운영 방안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1)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프라 구축, (2)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 간의 파트너십 강화, (3)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 로드맵 5 단계 : 1단계 :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2단계 :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체결 ⇒ 4단계 :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전략 개발 ⇒ 5단계 :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단위사업 개발 및 시행을 제시하였음.
- 비전과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
- 영역별 실천과제로 (1)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필요, (2)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3)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정비 및 유익한 환경 적극 조성 (4)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등을 제시하였음.
- 인프라 구축 요건으로, (1) 청소년의 참여 인프라 구축 및 활동기회 확대, (2)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설치, (4)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및 영향평가 실시 (5) 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등을 기술하였음.

-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지역의 통합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1)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시의성, (2) 중앙 및 지역사회 차원 혹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논리적 모형과 국내 사례,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현실적인 접근방안과 모델, 국내외 사례,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1) 시범사업

- 경제영역에서는 청소년기에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용경제와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함.
- 참여영역에서는 청소년사회참여아카데미, 참가자 위촉식, 지역사회 조사활동,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활동이 전국적인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됨.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례 등으로 제도 및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기적인 활동으로 제안이 아닌 본 시범사업과 같이 일 년의 체계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관계영역은 청소년과 노인세대와의 만남에서 초기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기술이 필요함. 또한 세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세대 간의 실제 고민을 도출하고 정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잡다큐와 같이 부모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게 진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함. 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주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네트워크 운영 방안

- 행정기관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청소년의회, 학생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구조에 전환이 필요함. 행정기관의 전담부서는 현장 활동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들이므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내실 있고 연속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 혹은 위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조례와 예산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기초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협조체제를 윈-윈(Win-Win)개념으로 추진해야 함.
- 지역의 청소년 조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현재 조례 작업 중),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참여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지역사회학교’가 청소년과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자원 파악,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재상 정립,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는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866호 일부개정 2014.12.30.]의 설립요건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완화된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3) 추진 전략 개발과 조례 제정(안)

-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15개 사업 중 3개 영역(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청소년음브즈맨제도,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은 제 I 장의 2015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결과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나머지 12개 영역 중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9개 세부

사업을 우리나라 지자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추진절차 등을 개발하였으며, 3개 영역은 사업내용과 지자체별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과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추진 배경 및 근거	8
II.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13
1. 추진 기초 및 사업 내용	15
1) 추진 방향과 청소년에 대한 시각	15
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역할	17
3) 시범사업 영역 선정 과정	19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추진 절차	25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25
1) 청소년 및 관련현황	25
2) 세부 추진사업 운영계획	28
3.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36
1) 경제영역 주요활동	36
2) 참여영역 주요활동	39
3) 관계영역 주요활동	42
4. 시범사업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50
1) 경제영역	50
2) 참여영역	55
3) 관계영역	62

5.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75
1) 조사개요	75
2) 조사결과 분석	76
3) 경제영역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77
4) 참여영역사업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80
5) 관계영역사업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83
6) 결론 및 시사점	86
6. 시범사업 운영과 효과분석에 따른 종합 제언	88
1) 경제영역	88
2) 참여영역	91
3) 관계영역	93
 Ⅲ. 국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도출	99
1. 국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유사 사례	101
1)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02
2) 국내 아동·청소년 친화적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특징	107
3)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원네트워크 운용 현황	109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114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의 개념과 배경	114
2) 각 국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과 적용 사례	117
3) 한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34
 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137
1. 추진전략 개발 절차와 접근원리	139
1)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	139

2) 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접근원리	141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실행체계	142
1) 목표 및 추진방향	142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계획 수립	145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 로드맵	147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절차	147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과정 및 추진 현황	148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역별 실천과제	150
1)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150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요건	154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157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실태와 개선 방안	159
1) 네트워크 구축의 시의성	159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네트워크 사례 분석	160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 방안	170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의 기본 모형	170
2) 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패러다임 적용	172
3) 청소년의 도전의식 함양과 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	179
4)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잠재적 역량개발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	180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모델	188
V. 결론 및 정책제언	189
1. 결론	191
2. 정책 제언	194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1945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 방안	195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206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제언	221
참고문헌	227
부록	239
부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운영계획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결과	241
부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 공고문 ..	254
부록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요구조사	259

표 목 차

〈표 I- 1〉 청소년이 행복한 연구의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근거 ...	10
〈표 II- 1〉 청소년참여 영역별 주요 활동	19
〈표 II- 2〉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26
〈표 II- 3〉 군산시 학교 현황	26
〈표 II- 4〉 경제영역 시범사업 계획	29
〈표 II- 5〉 경제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31
〈표 II- 6〉 참여영역 시범사업 계획	32
〈표 II- 7〉 참여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33
〈표 II- 8〉 관계영역 시범사업 계획	34
〈표 II- 9〉 관계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35
〈표 II- 10〉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75
〈표 II-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6
〈표 II- 12〉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77
〈표 II- 13〉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79
〈표 II- 14〉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0
〈표 II- 15〉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1
〈표 II- 16〉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2
〈표 II- 17〉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3
〈표 II- 18〉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4
〈표 II- 19〉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5
〈표 II- 20〉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86
〈표 III-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각 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17
〈표 IV- 1〉 지역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수 사항	147
〈표 IV- 2〉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162

〈표 IV- 3〉 2012년 ~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시현황	184
〈표 V-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절차	193
〈표 V-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세부 사업영역	207
〈표 V- 3〉 아동권리협약 대상사업 내용 및 아동권리협약 조항	218
〈표 V-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 및 조례(안)	221

그림 목차

〈그림 II- 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25
〈그림 II- 2〉 전국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 비교(가중치 합산결과) ...	27
〈그림 II- 3〉 경제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78
〈그림 II- 4〉 경제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79
〈그림 II- 5〉 참여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81
〈그림 II- 6〉 참여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82
〈그림 II- 7〉 관계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84
〈그림 II- 8〉 관계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85
〈그림 III- 1〉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노원지역) ...	112
〈그림 III- 2〉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체계 및 기능	133
〈그림 IV- 1〉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전략 개발 과정	140
〈그림 IV-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행체계	143
〈그림 IV- 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과정	150
〈그림 IV- 4〉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161
〈그림 IV- 5〉 청소년의 행복과 개인특성 및 환경과의 관계	171
〈그림 IV-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 ..	183
〈그림 IV- 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 모델	188
〈그림 V- 1〉 성북구 어린이(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2012기본계획 참조)	196
〈그림 V- 2〉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협의회 민간기구표	200
〈그림 V- 3〉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군산시, 2014 참조)	201
〈그림 V- 4〉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연계	203
〈그림 V- 5〉 강화군 학교중심 지역사회 거버넌스 운영체계	205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추진 배경 및 근거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국가별 비교 조사 결과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은 9.4%로 프랑스 45.9%, 영국은 45.3%, 스웨덴은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 (The World Values Survey, 2011, 관계부처합동, 2012:19, 오해섭, 2015 재인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점으로 2009년 64.3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2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은 청년실업율과 청소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자신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혼율 증가에 따른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포함하여,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의제(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30개 나라 약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UNICEF, 2013;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 이 장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포럼(2015.7.22.)의 발표 중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몇몇 관련법과 정책기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현 주소는 영역별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위주로만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2015년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총괄연구 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Ⅲ’의 3개 연구 영역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등과 함께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및 추진전략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과정 중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을 결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운영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지자체는 전라북도 군산시였으며,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전북, 대구, 경기 순으로 해당 지자체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적용된 구체적인 세부사업 수행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발전 요인을 포함하여 향후 타 지자체에 과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소년 친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으로 사업에 관한 기본 구조와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과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유형의 특징 분석과 타 지자체에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영역별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의 연속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총괄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등과 함께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과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 I 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와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은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기획과 공모과정을 거쳐 ‘15. 4.1~9.30(6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대상 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개 지역(시·군·구)으로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사업영역은 3개 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어르신-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인구와 시설 등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과정과 목표에 집중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설계 및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도구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사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학생용]’의 설문지를 활용하도록 논의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2015년 5월 중, 사후조사는 2015년 10월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제 III 장의 국내외 사례로 먼저 국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접근 중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과 특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유사 사례의 특징과 운영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들을 탐색하였다. 각 국의 사례로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10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제IV장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전략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전략 개발의 절차와 핵심원리, 지역사회 조성 실행체계, 추진 로드맵, 영역별 실천과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운영 및 관리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V장은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1)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시범사업

이 연구의 추진배경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이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은 2014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은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 심사과정을 거쳐 1개 지역이 선정되어, 2015.4.1~2015.9.30.(6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2) 문헌 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등에 대한 개념과 추진 의도 및 절차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계획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 기획과 시행 시 고려사항, 주요 개발 영역과 세부 실천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 46명(분석 유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설계에 비해 분석 대상이 적은 이유는 각 영역별 초기 참가자들의 중도 이탈현상과 2015년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최종 검수과정에서 비교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두 집단 간 비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험집단 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의 '2015년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6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45명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0일~8월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영역은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세부추진사업들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감안하여 수행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개 영역 총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면접 조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국내에서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담당자 및 참가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5) 전문가 세미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이해가 깊은 교수, 현장 관계자, 기초의회 의원, 행정담당자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15년 7월 22일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연차 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초안을 개발하였다.

(6)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8월28-28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2015년 현재 유사사업 운영 경험자 및 시범사업 운영 관계자 등으로 구성 하였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공무원, 2015년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6명, 연구진 등 11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설계하였다. 워크숍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개발과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7)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회

2015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가 확대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참석한 ‘지자체 청소년친화도시 조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의 연구진이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와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추진 배경 및 근거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근거를 <표 I-1>과 같이 요약 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2002년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세션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하였다. 2013년에는 유엔(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니세프는 200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9개 기본 원칙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2014년에는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59-61).

국제기구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2조의 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5조 에서는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전문개정을 통하여 14조에서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15개 중점과제 중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 를 명기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 전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1)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2015년 2월에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2)조성 업무협약’을 체결 및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5년 3월에는 지역 내 청소년자치연구소와 군산시청, 금강노인복지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

- 1) **용어의 정의** : 아동(아동복지지원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근거 9-24세), 어린이(12세 이하 혹은 아동과 동의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어린이행복도시’, ‘아동(어린이)친화도시’ 혹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유니세프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도 및 조례의 명칭으로 사용된 고유명사이며, 과제의 제목이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운영결과 및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연구 내용은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둠.
- 2) **유네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완전히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책, 법, 프로그램과 예산 등 10개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임.

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담 행정부서 설치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충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표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근거

구분	주요내용	자료출처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세션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 하는데 있어, <u>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u>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59-61)
국제연합(UN)과 유엔국제아동구호 기금(UNICEF)중심 국제사회(2013)	○ 각국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사항으로 모든 과정이 ' <u>청소년 중심적 접근(youth-centered approaches)</u> '에서 출발할 것을 천명	
UNICEF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Children Friendly Cities) 구축의 10개 기본 원칙(2014)	○ 10가지 기본 원칙: ①아동·청소년의 참여, ②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③아동·청소년 권리전략, ④아동·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 ⑤아동·청소년 영향평가, ⑥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⑦아동·청소년 정기 실태보고서, ⑧아동·청소년의 권리 알리기, ⑨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⑩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u>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u>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u>청소년의 참여 보장</u> 2. <u>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u> 3. <u>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u>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5. 6.5. 검색) http://www.law.go.kr

구분	주요내용	자료출처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u>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전문개정 2014.3.24.]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전문개정 2014.3.24.]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u> ④ <u>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전문개정 2015.2.3.]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5. 6.5. 검색) http://www.law.go.kr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 ○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 중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 「<u>청소년이 행복한 마을</u>」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u>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u>	제5차청소년 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구분	주요내용	자료출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추진계획 1단계(2013~2017):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단계 ○ 2015년도 연구사업[연도별 사업] 내용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전략 연구	김영한,김민, 임영식 (2014:7)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4. 3]	▶제1조1(목적) <u>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u>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u>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u>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u>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u>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u>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5. 4. 8. 검색) http://www.law.go.kr

제 II 장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1. 추진 기초 및 사업 내용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3.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4. 시범사업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5. 시범사업 효과 분석과 시사점
6. 시범사업 운영과 효과분석에 따른
종합 제언

제 II 장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1. 추진 기조 및 사업 내용

1) 추진 방향과 청소년에 대한 시각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의성과 국민적 합의하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행복도시’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등과 같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영역별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일차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추진 주체와 활동네트워크 유형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주도형, 민간단체 주도형, 행정기관-민간 협력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모형을 구상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 기본 요건, 조성 기준 및 평가지표 등과 더불어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여건과 참가자들의 특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 이 장의 1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포럼(2015.7.22.)에서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절은 정건희 소장(주. 들꽃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이 발표한 내용임. 3, 4, 5, 6절은 시범사업 기관의 정건희·오성우(주. 들꽃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내용을 본원의 연구진(오해섭·정윤미)가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였음.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실천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부서 담당자와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지녀야 할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중요한 요지는 사업의 핵심 대상인 청소년들을 기존의 문제적 접근과 결핍모델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positive development)을 도모하는 유능성 모델로의 시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조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배규한, 2014:124-125 재구성). 다만 이 관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전제하는 바이다.

첫째는 주체론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시각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율론적 시각이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지만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미성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국가와 지역사회는 그들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기조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청소년 정책의 주체이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진정한 의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인 ‘아동의 참여’ 항목과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역할

체코웨이(1998)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 형태를 “자생적 청소년조직, 청소년개발기관, 근린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사업, 근린 지역사회 개발조직, 시민운동집단” 등으로 구분하였다(김정주, 1999, 천정웅, 2014:126-127 재인용).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현실에 다소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자생적 청소년조직과 정부,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는 비자생적 청소년 조직에 한정하여 특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생적 조직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화하는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조사한 후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봉사활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동아리 및 동호회와 같은 형태로 조직화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생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성인들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시각과는 달리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몇몇 장애요인들이 있다(천정웅, 2014:128).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스템과 성인들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채널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 활동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어른들에 비해 관련 조직, 제도적 지원 기반, 사회참여 기회 및 자격 등이 제한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하여 성인들이 지지와 지원을 통해 협력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먼저 성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조직화를 통한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영역인 ‘어르신(가족)과 청소년인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력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 행복도시’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행사와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소년행정부처를 비롯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조직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성인기를 준비하여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생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국가주도의 조직으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청소년정책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구들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창출 및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이러한 기구들이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연령별 생애주기에 따라 초기청소년(9-12세), 중기청소년(13-18세), 후기청소년(19-24)로 구분하여, 각 각의 대상에 적합한 역할을 찾아내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도의 공식기구 이외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모니터단, 청소년멘토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의 운영자이면서 수혜자로 간주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을 통해 조직 내에서 소속감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청소년들 모두 혹은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다양한 체험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향상과 더불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참여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의사결정자, 기획자, 상담자, 교육자, 모니터 및 평가자, 옹호자 등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가정, 학교 및 여타의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참여 영역은 <표 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cyber)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천정웅, 2014:131-132).

표 II-1 청소년참여 영역별 주요 활동

주요 영역	국내 동향	외국 동향	특성
또래중심 참여	· 또래 상담 · 21세기 선발대 · 베세도 어드벤처	· 전국고교생의 주장(일본) · 젊은이의 도전(프랑스) · 청소년법정활동(미국)	자주/자립적
지역중심 참여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 지역문제해결 참여활동	· 청소년과 성인 민주포럼(프랑스) · 타운미팅(미국)	책임/협력적
정책과정 참여	· 청소년청안(공모)제 · 시책 모니터단 활동 ·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 도지사과 청소년 대화	· 청소년위원회(미국) · 지역청소년위원회(영국) · 청소년자문위원회(프랑스)	직접/쌍방적
단체자율 참여	· 청소년토론의 광장 · 청소년기자단 활동	· 청소년 토론회(미국) · 청소년운영신문 발간(네덜란드)	자생/정기적
사이버 참여	· 웹진 시범 제작 · 다양한 PC 통신 토론	· 다양한 웹진 활동 · 활발한 인터넷 토론	공개/자유적

출처: 천정웅(2014). 청소년참여론: 「P1론」의 청소년학. P. 138

3) 시범사업 영역 선정 과정

2015년도 시범사업의 영역 선정은 2014년도 연구보고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내용 중 제VI장 세부추진사업 7개영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을 참고하였다(김영한 외 2014). 먼저 연구진 회의를 거쳐 7개 세부사업추진 영역 중 3개 영역(경제, 관계, 참여)을 금년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세부추진 사업’에 관한 전체 내용을 연구자가 고찰하고 분석한 다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은 보고서에 제시된 7개 단위사업 중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였다. 반면 참여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개 세부사업 중 ‘지역 옴부즈맨제도’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7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추진기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운영 주체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3개 세부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의미와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동시에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프리마켓 상설화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한다(김영한 외, 2014). 프리마켓의 사전적 의미는 자유 시장, 벼룩시장(flea market), 프리 바자(free bazar)라고도 불리며,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네이버사전, 2015.05.11 검색).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 행위를 넘어 아이디어 상품이나 소규모의 창작물 등을 판매하면서 문화공연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한편, 이 주제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는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마인드를 촉진시킬 수 있다(오해섭, 맹영남, 2014:3)”는 측면에서도 시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프리마켓과 같은 소규모 사업운영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뿐만 아니라 도전정신, 성취감,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도 함양시킬 수 있다.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게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가 청소년 모집
-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
- 지역사회에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프리마켓 운영과 문화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국가행정 부문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행정감시관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주민 근접행정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몇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천정웅, 2014:283).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1981년 세계 최초로 아동문제 옴부즈맨이 왕에 의해 임명된 것이 그것이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의 임무는 아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사회의 각 분야를 모두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해로운 일에는 경고를 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이재연, 1997, 천정웅, 2014 재인용).

청소년들의 권익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자신을 위해 정치가를 선출할 수도 없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도 없으며 증언이 거의 신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충사안을 접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상담을 받고, 지역 단위의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며, 청소년의 권리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가들의 법규와 규정상의 변화를 제안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다(천정웅, 2014).

이러한 활동을 통해 김영한 외(2014:248)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이면서 통합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48-249 참조)

-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활동, 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와 토론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실시 후 분과별 운영
-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조례제정 등) 마련 촉구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48 참조)

- 청소년의 자치적 참여 능력 강화 및 사회문제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 지역사회 구성 주체로서 민주시민의식 배양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3)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SNS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형태가 바뀌고 직접적인 대면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김난도 외(2014:346)는 “개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업, 직장 및 가사 등으로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간의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영국의 경우 ‘인종·지역 및 사회 간 통합을 위한 연령교환극장(Roots, communities and social inclusion: Age Exchange Theatre)’과 ‘세대차 극복을 위한 다리 놓기(Building Bridg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네이버, 2015.05.12 검색).

이러한 관점에서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통합’이라는 담론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밝혀 둔다.

[청소년-어르신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신문기사]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대통합 프로그램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

통영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종봉)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2011년 12월 26일~27일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를 진행했다.

1세대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 어르신 20명, 3세대는 통영중학교와 통영여자중학교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총 2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1세대(노년기)와 3세대(청소년기)가 서로의 문화를 알고 가치관의 격차를 줄여 세대 간에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대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본 프로그램 1회기에는 ‘세대,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1세대와 3세대가 만나 인사를 하고, 짝을 이루어 포크댄스와 칭찬대회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회기에는 ‘세대, 친해지다!’의 주제로 보다 활동적인 팀별 레크레이션 댄스를 배워보고 발표해보는 시간과 썰매타기 놀이를 통해 세대초월 동심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가자들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하였지만, 그 들의 마음속에 있던 세대 차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참여자 중 청소년들은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찾아뵙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가까워진 것 같다’, ‘할아버지가 없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는데, 이를 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전했으며,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행동은 어른들을 가르칠 정도였다’, ‘노인과 청소년 사이에 있어 유대관계가 매우 만족스럽게 여겨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 출처 : 굿데이뉴스(2012-01-02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 경기도 이천시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하는 보람잔치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경만수, 운영 한국BBS이천시지회)에서는 이천중앙로타리클럽(회장 이규득)에서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28일 부발읍 무촌2리 마을회관에서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하는 보람잔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하고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획했으며, 대한노인회, 이천시문해교사모임 ‘마중물’에서 후원하여 부발읍 무촌2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7회 차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하는 보람잔치’는 청소년들이 전문강사로부터 염색, 네일아트, 사물놀이, 댄스 교육을 받아, 어른들 앞에서 재능을 뽐내고,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어른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기회마련 하고,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직업의식 형성의 발판마련, 청소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촌2리 경로당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염색도 해주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 “어린청소년들이 아주지게 공연도 잘하고, 상냥하고 착하다” 며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다.

이밖에도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미디어이천(2015-03-01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어른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른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어른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페스티벌, 요리실습, 춤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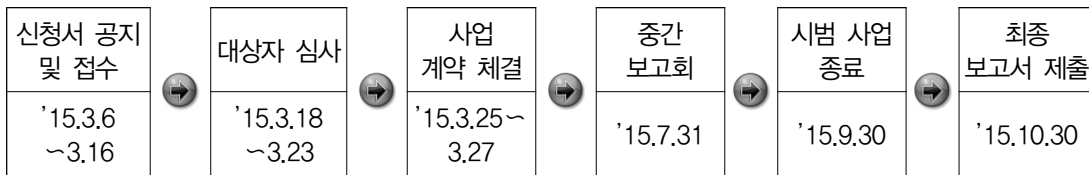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해소 및 상호 이해의 장 마련
- 세대 간 소통 및 공감을 통한 통합문화 확산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세대갈등의 실효적인 예방과 조정 기반 마련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추진 절차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정 시범사업」은 2014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사업기간은 6개월('15. 4.1~9.30)이며, 대상 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개 지역(시·군·구)으로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공모 과정을 추진하였다. 사업영역은 앞서 설명한 3개 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청소년음브즈맨 기구, 어른신(부모)-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인구와 시설 등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에 따른 신청서 공지 및 접수부터 사업지역 선정 및 계약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종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절차는 [그림Ⅱ-1]과 같이 추진되었다.



[그림Ⅱ-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1) 청소년 및 관련현황

(1) 군산시 청소년 인구 현황(9-24세)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은 2014년 연말 기준 남자 27,900명, 여자 25,113명으로 총 53,013명이다.

표 II-2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비고
9세~24세	53,013	27,900	25,113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4.12.31. 기준)

(2) 학교(초·중·고·대) 현황

표 II-3 군산시 학교 현황

(단위: 개교, 학급,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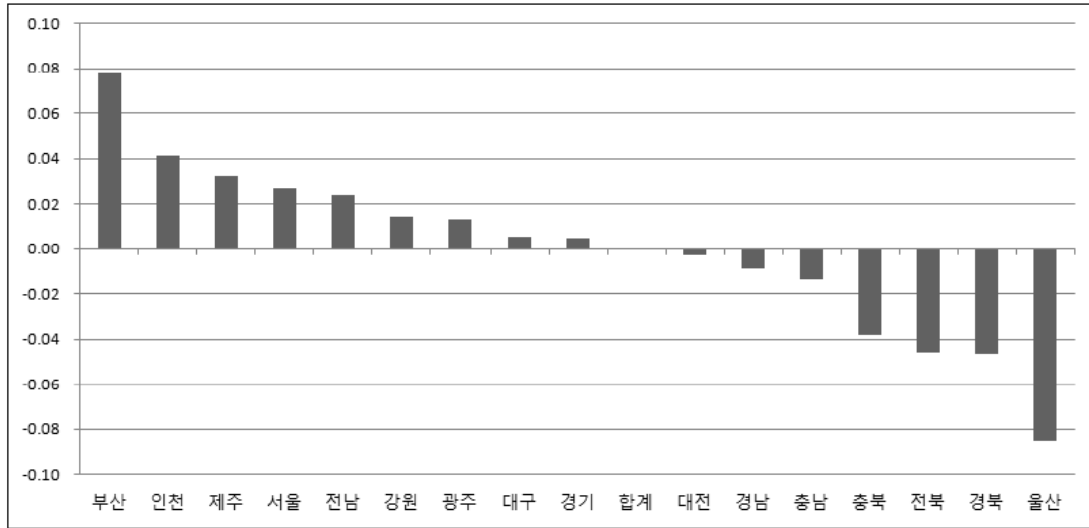
구분/학교별		학교수	학급수/학과	학생수
초등학교	국립	1	19	508
	공립	55(3)	718	15,529
중학교	공립	15	243	7,956
	사립	4	60	2,039
고등학교	공립	8	201	5,568
	사립	4	108	3,461
초중고 합계		87	1,349	540
대학교	국/사립	5	133	17,672
전체합계		92(3)		557

출처: 초중고는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대학은 군산시(2013). 제19회 군산 통계연보에서 발췌, ()안은 분교 숫자임

군산시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수는 1,349학급이며 학생수는 35,061명이다.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4개교로 133학과 17,672명으로 전체 학생수는 52,733명이다.

(3) 전북 군산시 행복지수 관련 현황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점수를 받았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전라북도(군산시 등)는 [그림 II-2]에서와 같이 전국에서도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본 사업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 | 총괄보고서.

[그림 II-2] 전국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 비교 (가중치 합산결과)

(4) 군산시 어린이·청소년(18세 미만)친화도시 구축 준비 사항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담팀 운영 및 지자체와 본 사업(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계획)도 본 기관과 협약하여 적극적 의지를 비추고 지원 예정
- 본 기관과 함께 향후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간담회 등 정책적 내용들 긴밀한 협의 구조 논의
-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 예정
-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 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자 예정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

(5) 청소년자치연구소(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사업추진 의지 및 전문성

- 모 법인인 (사)들꽃청소년세상은 지난해 20주년을 기념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치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도시(마을)와 그들의 삶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하며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행복도시(친화도시)에 대한 전문성의 탁월. 소장 및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실천과 사례가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와 지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군산시의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 공약에 따른 적극적 지원 의지(협약서 참고)가 있으며,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음(본 사업만을 위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시설 협약)
- 청소년프리마켓 상설 매장 구축을 위한 50평 규모의 청소년참여 공간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으며, 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허브 역할로서 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것임. 특히 관과의 관계에서 민간 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보장도 중요한 장점임.

2) 세부 추진사업 운영계획

(1) 목표

- 청소년이 운영하는 상설 프리마켓(우리동네 C.E.O)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을 강화하고,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과 도전정신, 창업마인드 함양
- 청소년움브즈맨 기구 설치 운영(암행어사 출두야)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와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언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
-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공감 브릿지)을 통해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과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2) 세부사업계획

가. 경제영역(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① 사업목표

- 경제와 신용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및 지속적인 창업 가능성 모색
- 자발적 경제 참여를 통한 자신감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② 세부사업계획

표 II-4 경제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경제 영역	우리 동네 C.E.O를 모집합니다.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 참여자: 창업계획서 제출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 면접관: 청(소)년 창업자 등	4월	
	청소년 신용경제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 - 경제관념 - 금전관리와 소비교육프로그램 - 나눔과 기부 교육 프로그램 ○ 토론 및 발표	5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전북은행과 연계 예정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창업의 이해 - 마케팅의 이해와 적용 - 청(소)년 창업자와의 만남과 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 재무관리 ○ 토론 및 발표	5월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경제 영역	상설 프리마켓 운영 “청소년장터”	○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전담 동아리 등 자치 조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내 프리마켓 장소에서 청소년 Youth Cafe도 함께 운영 - 물건 뿐 아니라 재능이나 문화컨텐츠 (예: 미술, 음악 공연 등)도 판매할 수 있는 장(setting)을 마련	6~10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시장 (명산시장)과 연계 방법 모색 (예정)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무브마켓)”	○ 이동 프리마켓 - 월1회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에서 이동형 프리마켓 진행 - 벼룩시장 월1회 주변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외부에서 벼룩시장 진행	6~10월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 - 지속적 상설 프리마켓(내부) 운영 가능성 타진 및 이동 프리마켓 개발 노력	10월	

③ 이점 및 특성

- 약 50명 규모의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 그리고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음(정기 상설 운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유롭게 오후까지 운영 가능).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은 근대문화역사 거리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1km 이내, 도보로 15분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에는 연대 가능한 조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예: 아름 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산돌학교, YMCA, YWCA, 군산성폭력상담소 등)
- 프리마켓 수입의 50%는 자기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며, 수입의 20%는 재료비로, 30%는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후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기부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5 경제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리동네 C.E.O를 모십니다.							
청소년 신용경제아카데미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상설 프리마켓 운영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경제, 신용, 창업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 공동체 의식의 제고, 기부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지속적이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공간의 조성 가능

나. 참여영역(청소년 움부즈맨/기자학교) : 암행어사³⁾ 출두야!

① 사업목표

- 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
-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주도성과 주체성 함양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관계성 향상

3)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하던 임시 관리로서(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움부즈맨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세부사업계획

표 II-6 참여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참여영역	암행어사 과거시험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및 시험 - 시험 주제: 사회참여와 옴부즈맨 제도 등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4월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 시민교육프로그램 - 옴부즈맨 제도의 이해, 적용 - 사회참여의 개념과 사례 - 토론 및 발표	5월	
	청소년옴부즈맨 조직화 및 활동	-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조직화 - 발대식: 청소년 옴부즈맨(=암행어사)로 위촉 - 청소년 옴부즈맨 활동 - 정기 활동 보고 및 공유, 정리	6~8월	
	청소년포럼	- 청소년 옴부즈맨 조사 활동 발표 - 패널 발표 및 토론 - 문제점 발견 및 대안 모색	9월	군산시 '어린이 행복'와 연계
	조례 제안 작업	- 군산시 의회 의원과 청소년 옴부즈맨의 간담회 - 조례 구성: - 옴부즈맨 활동과 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안	9~10월	군산시 의회와 연계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 옴부즈맨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10월	

③ 이점 및 특성

- 군산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본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와 협약 체결)
- 회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청소년 참여 전문성 및 사회 참여 관련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계 전문성 등).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7 참여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암행어사 과거시험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청소년옴부즈맨 조직화 및 활동							
청소년포럼							
조례 제안 작업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어린이청소년 복지과 권리 증진 가능성 증가
-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다. 관계영역(가족, 노인과의 교류): 공감 브릿지(Bridge)

① 사업목표

-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 이해의 폭을 넓힘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를 쌓고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청소년들이 부모의 직업현장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보여줌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에게 깊은 친밀감을 형성
-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를 청소년들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과 교류, 노년기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대문화를 통합하는 가치 확산, 세대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② 세부사업계획

표 II-8 관계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교류	부자회담 (부모와 자녀의 회담)	○ 홍보 및 모집 - 주변 학교(군산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동중학교)에 홍보의뢰 및 학교 앞 길거리 홍보물 배포 - 웹 홍보 - 면접 및 대상선정(청소년 10명, 부모 15~20명) ○ 안건 선정 ○ 부자회담(3회)	4~7월	
	하고픈 가봉 (하고 싶은 가족봉사 : 세대 한끼)	○ 홍보 및 모집 - 군산신문, 군산사랑방신문 등 지역신문사 홍보 의뢰 ○ 선언식 - 참여희망 가족모집선언식 ○ 봉사목표, 일정 논의 및 확정 - 가족팀 모임 및 봉사 목표 및 봉사시간, 장소 등 정함. ○ 봉사활동(세대 한끼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께 식사 대접 및 소통 시간) ○ 중간 모임(매달 1번씩 3회) ○ 과정, 결과 발표회	4월~8월	
	잡 다큐 (부모직업체험)	○ 홍보 및 모집 - 군산노동부에 직업체험 가능한 곳 의뢰 및 홍보부탁 - 기관 섭외 후 해당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참가 청소년 10명 내외 모집 ○ 오리엔테이션 ○ 부모직업체험 - 부모님의 직장 방문 및 소개시간 - 간접체험 및 직장동료 소개 ○ 결과발표 - 영상편지제작 - 발표회	5월~9월	
	할매힐러	○ 홍보 및 모집 - 금강노인복지관의 '라디오스타 1339'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 섭외, 청소년 방송섭외 (금강노인복지관과 협약) - 학교에 홍보의뢰 및 섭외. ○ 목표설정 - 모집된 청소년과 대학생이 활동목표설정. ○ 과정 공유 - 문제해결 과정을 '라디오 스타 1399'에 방영 -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요청 및 기재 ○ 결과 공유 - 문제해결과정 묶음자료 발표회	5월~9월	

③ 이점 및 특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 (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 사업 진행을 위한 가족봉사단 및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가능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9 관계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부자 회담(부모와 자녀의 회담)							
하고픈가뽕(하고싶은가족봉사) - 세대 한끼 -							
잡다큐							
할매 힐러							

⑤ 기대효과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연대의 초석이 될 수 있음.
- 청소년이 부모의 직장생활 체험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가족연대 강화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의 계기 및 세대갈등 예방과 조정효과

3.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1) 경제영역 주요활동

(1) 사업목표

- 경제와 신용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및 지속적인 창업 가능성 모색
- 자발적 경제 참여를 통한 자신감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2) 세부 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참여자수)
1	모집 및 홍보	신용경제 아카데미와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및 활동과정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 ~ 5월 ○ 내용 : - 유관기관 공문발송 - 지면 홍보(시정 홍보지, 지역 정보지 등) - 온라인 홍보(온라인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 웹진단 게재)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공문발송 33회 지면홍보 2회 보도자료 1회 온라인공유 4회 대면홍보 17회
2	신용경제 아카데미	신용과 경제에 대해 이해	○ 일시 : 5월 23일 ○ 장소 :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오리엔테이션 : ○○○ 국장 - 올바른 경제관념 : ○○○ 대표((주)인플러스)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이해와 활동 : ○○○ 실장(사회적기업 래그랜스) -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과 실제활동 사례 : ○○○(모금전문가) - 금전관리와 올바른 소비 : ○○○이사장 (○○실험)	4회/480분 92명 참여 (연인원)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참여자수)
3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창업과 마케팅에 대한 이해	○ 일시 : 5월 30일 ○ 장소 :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마케팅의 이해와 적용(창업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사(○○대학교) - 창업의 이해와 실제 : ○○○ 대표(카페 ○○○○) - 청년창업자와의 만남과 소통(실제 창업 사례) : ○○○ 대표(키덜트팩토리) - 재무관리 :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주)○○○○○)	4회/480분 100명 참여(연인원)
4	아카데미 수료식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 일시 : 6월 13일 ○ 장소 :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수료증 전달 - 기념촬영	1회 33명 수료
5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간의 라포형성 및 협업을 통한 효율증가와 시너지 창출	○ 일시 : 6월 ~ 10월 ○ 장소 :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외 ○ 내용 : - 3팀 구성(미쁘다, 주간매점, 파랑주의보) - 팀별 아이템 기획 및 상품제작 - 팀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판촉활동 - 프리마켓 기획 및 진행 - 프리마켓 관리 및 운영 - 프리마켓 홍보활동	16회 304명 참여 (연인원)
6	상품기획 프레젠테이션	상품기획 공유 및 논의	○ 일시 : 6월 13일 ○ 장소 :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팀별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 질의응답 및 아이디어 보강	1회 11명 참여
7	선진지 견학	창업아이템 기획	○ 일시 : 6월 21일 ○ 장소 : 전주 한옥마을, 키덜트팩토리, 남부시장 청년몰 ○ 내용 : - 활성화된 프리마켓 현장방문 및 시장조사 - 청년창업현장 방문 - 청년대표와의 면담	1회 10명 참여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참여자수)
8	상설 프리마켓 (평일)	경제와 신용 및 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 경험	○ 일시 : 7월 18일~8월 15일(화요일~금요일) ○ 장소 :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프리마켓 관리 및 운영 -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 - 파랑주의보 : 수공예 상품 중심 (카드지갑, 패션팔찌, 에코보틀, 에코백 등) - 미쁘다 : 아이디어 상품 중심 (사격게임, 한지부채, 드라이플라워, 미니 선풍기, 디자인 보온병, 패션양말 등) - 주간매점 : 먹거리 상품 중심 (허니버터맥나잇, 믹스스낵, 생과일 아이스바 등)	24회 456명 참여 (연인원)
9	상설 프리마켓 이벤트	경제와 신용 및 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 경험	○ 일시 : 7월 18일 ~ 8월 15일(매주 토요일) ○ 장소 :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 - 프리마켓 야외 홍보활동 - 프리마켓 판촉이벤트 기획/ 진행	5회 95명 참여
10	이동형 프리마켓 (1차)	경제와 신용 및 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 경험	○ 일시 : 9월 12일 ~ 9월 13일 ○ 장소 :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근대문화장터, 군산 예술의 전당 청소년예술제 행사장 ○ 내용 : - 지역사회 내 기성프리마켓과의 협조와 연계 - 청소년 관련 행사와의 협조와 연계 -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 - 프리마켓 판촉활동	2회 28명 참여 누적매출 354,000원
11	이동형 프리마켓 (2차)	경제와 신용 및 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 경험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장 ○ 내용 : -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원활동가와 연계하여 지역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 - 프리마켓 판촉활동	1회 4명 참여 누적매출 393,000원
12	이동형 프리마켓 (3차)	경제와 신용 및 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 경험	○ 일시 : 10월 17일 ○ 장소 :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 내용 : -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 - 프리마켓 판촉활동	1회 4명 참여 누적매출 433,500원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참여자수)
13	지역사회 나눔활동	봉사정신 함양	○ 10월 31일 활동 종료 후 진행예정	
				총 1,137명 (연인원)

2) 참여영역 주요활동

(1) 사업목표

- 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
-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주도성과 주체성 함양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관계성 향상
-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공유

(2)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여자모집	청소년 옴부즈퍼슨 교육과정 및 활동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5월 ○ 장소 : 온라인(페이스북, 카페, 홈페이지 등) 오프라인(공문발송, 현장홍보) ○ 내용 : - 공문 발송 - 보도자료 및 신문지면 홍보 - 온라인(페이스북,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 12개교 학교 동아리담당자 논의, 5개교 중학교 교육복지사 사업협력 미팅 - 목표인원 15명	- 공문발송 33회 - 보도자료 7회 - 온라인공유4회 - 현장방문17회
2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동기부여	○ 일시: 5월9일, 5월16일, 5월23일 ○ 장소: 피플플러스 교육실 ○ 내용:	- 3회/16시간 - 90명 참여(연인원) - 수료23명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2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동기부여	- 청소년 사회참여 개념과 사례: ○○○ (청소년자치연구소) -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의원(군산시의회)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 활동개(○○○○ 청소년 문화의집) - 기사쓰기의 실제: ○○○ 기자 (군산신문사) - 나는 글로 어떻게 소통하는가?: ○○○ 겸임교수(○○대학교 교양학과) - 나의 권리 찾기 워크숍: ○○○ 사무국장(○○인권재단) - 수료식	- 3회/16시간 - 90명 참여(연인원) - 수료23명
3	청소년 옴부즈맨 조직화 회의	옴부즈맨 팀별 조직화	○ 일시: 5월 30일, 6월6일 ○ 장소: 군산성폭력상담소 회의실, 청소년 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관심사별 팀원 배치 (문화교육, 국제경제, 정치사회) - 팀장선출 - 회칙 논의 - 집중 취재할 주제발표	- 2회/4시간 - 46명 참여(연인원) - 3개팀 조직 및 3명의 팀장 선출
4	청소년 옴부즈맨 위촉식	청소년 옴부즈맨 위촉	○ 일시: 6월13일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위촉장 수여 - 기자증 배부	- 1회/2시간 - 18명 참여(연인원)
5	지역조사 기획회의	취재계획 수립 및 지역 자료 수집을 통한 지역 이해	○ 일시: 7월11일, 24일, 8월1일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뉴스취재 계획서 작성 - 문헌조사	- 3회/6시간 - 60명 참여(연인원) - 뉴스취재 계획서 3부(첨부)
6	지역조사 활동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취재 진행을 통한 지역 탐구	○ 일시: 8월1일, 8일, 15일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여자고등학교, 병원, ○○시장, ○○중학교	- 11회/10시간 - 36명 참여(연인원) - 대면인터뷰 7회 - 전화인터뷰 4회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6	지역조사 활동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취재 진행을 통한 지역 탐구	○ 내용: - 지역시의원인터뷰1회 - 지역주민인터뷰 3회 - 학교선생님인터뷰2회 - 청소년활동가 인터뷰 1회 - 이메일, 전화, 문자 요청 경로 파악 가능 - 청소년 설문지 작성 및 배포 2개 총200부	- 이메일자료요청 3회 - 설문지 2개 작성 배포 (첨부① 야간자율 학습의 자율성과 선택권 (교육팀) ②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설문지(문화팀)
7	지역조사에 기반한 자료정리 및 기사작성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능력 배양 및 사고의 확장	○ 일시: 8월1일, 15일, 22일, 29일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지역답사 5회 - 설문지 분석 3회 - 기사 팀원 참석 및 지도자 참석기사 참석 - 현장 사진촬영 5회 - 중간평가 1회 실시 - 청소년이 쓴 청소년 옴부즈맨 홍보 보도자료 발송 - 4개팀 4개 기사 동시진행	- 4회/9시간 - 80명(연인원) - 보도자료1개 - 기사 4개 ① 자율인 듯 자율아닌 : 반강제 학습의 늪에 빠진 학생들(교육), ② 청소년의 관점으로 바라본 군산시 현안 (국제경제), ③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 본 군산시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 문화 공간의 실태.이대로 괜찮은가? (문화) ④ 청소년 문화 시설이 있는지 조사 60% 이상 이 모르고 있어.(문화)
8	청소년 참여포럼	옴부즈맨 조사내용정리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의제발굴과 제안 방향 모색	○ 일시: 10월 31일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의제 도출, 청소년주제 발표, 분임토론, 등 ○ 주제: - 경제: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경제 활동 - 안전: 우리가 느끼는 안전은 어떠한가요? - 교육: 사교육을 배제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교육	- 1회/80명 참여 - 포럼준비회의의 5차 - 포럼추진위원회구성 5명(옴부즈) - 포럼 분과장 회의2회 14명 - 토론문 작성 7분과 - 보도자료 4회 - 연대 기관 및 학교 7곳 - 분과별 전문가 7명 참여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8	청소년 참여포럼	옴부즈맨 조사내용정리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제안 방향 모색	- 건강: 청소년의 '복지'가 달라지면 청소년의 '건강'이 달라진다. - 관계: 행복한 관계 안에 행복한 청소년 - 활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 활동 - 참여: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청소년의 참여 방법 제시	- 지역 국회의원 1명 참여
9	지역연대 활동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활동지원	○ 일시: 7월중~10월 ○ 장소: ○○○신문사, ○○고등학교, ○○중학교, 시립도서관회의실 등 ○ 내용: - 지역신문사와 명예기자단 위촉 논의 - 기사 작성 기고방안 논의 - 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결성 - 내년도 기자학교 교육청 민간보조 사업지원	- 학교 및 연대 기관 미팅 8회 10시간
10	조례제안 작업	포럼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 일시: 11월중 ○ 장소: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시의회 ○ 내용: - 포럼내용 정책제안서 작성 - 시의회와 간담회	3회/○○명 참여(예정) - 정책제안서 1회 작성 - 시의회 간담회 1회
11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모색

3) 관계영역 주요활동

(1) 하교폰가봉

① 사업목표

-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가족에 대한 친밀감 형성
- 가족 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의 기반 마련
-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봉사에 대한 의미와 취지에 대한 유효성 확보

②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가자 모집	하고픈가봉에 참여할 청소년, 부모 모집	○ 일시 : 7월~8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소재 학교 ○ 내용 : - 현수막게시 - 보도자료 - 전단지배부 - 학교홍보 - 자원봉사센터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 위원조직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공개적인 활동 홍보활동 3회	10회/2개월/ 23명 모집
2	금강 노인복지관과의 논의	지속적으로 만남 가능한 노인들 연결, 참가청소년, 부모추천	○ 일시 : 8월26일 ○ 장소 : 금강노인복지관 ○ 내용 : - 노인들 섭외에 대한 논의	1회/1시간/ 4명 참여/ 노인들 6명 섭외
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들의 관계형성	○ 일시 : 8월29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활동안내 - 가정연결 - 가족별 일정조율	1회/90분/ 20명 참여
4	하고픈가봉 1회모임 (6가정)	가족 간 관계형성	○ 일시 : 8월30일~9월19일 ○ 장소 : 군산 이마트, 근대역사박물관 및 아리랑식당, 군산테스트랑, 군산장미칼국수 ○ 내용: - 함께 식사를 함 - 청소년들이 일지를 작성함 - 자율적인 활동을 진행 (관광지 관광, 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 등)	1회/4시간/ 26명(6가정)참여/ 일지
5	후기모집 오리엔테이션 (2가정)	참가자들의 관계형성 및 활동안내	○ 일시 : 9월19일, 9월23일 ○ 장소 : 군산삼학동 후루룩 국수, 금강노인복지관	2회/2시간/ 12명(2가정)참여 - 식사1끼 - 추억사진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6	하고픈가봉 2회모임 (5가정)	가족 간 관계형성	○ 일시 : 10월 ○ 장소 : 은파매운탕, 군산리조트, 군산타이 등 ○ 내용 : - 함께 식사를 함 - 청소년들이 일지를 작성함 - 자율적인 활동을 진행	1회/4시간/ 17명(5가정)참여
7	중간모임	보다 뜻 깊은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 일시 : 10월11일, 10월12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금강노인복지관 ○ 내용 : - 하고픈가봉 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눔 - 좋은점, 힘든점, 제안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눔 - 여러 가정이 함께 볼 때 하면 좋을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음	3회/2시간/ 11명참여
8	사진촬영 및 단체모임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 및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 확립	○ 일시 : 10월24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복탕집 ○ 내용 : - 부자회담 3회를 진행 - 함께 식사를 함 -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편지전달 - 2세대 어른이 1세대 노인들에게 선물전달 - 식사장소 근처 몇 군데에서 가정별로 사진촬영	1회/4시간/ 14명(4가정)참여
9	하고픈가봉 3회모임 (1가정)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 및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 확립	○ 일시 : 10월 ○ 장소 : 어르신 자택,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 내용 : - 함께 식사를 함 - 청소년들이 일지를 작성함 - 자율적인 활동을 진행	1회/4시간/ 4명(1가정)참여
				총 108명 (연인원)

(2) 잡다큐

① 사업목표

-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한 부모-자녀 간 소통의 기회 제공
-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상호 이해의 기회 마련 및 가족 간 공감대 형성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조성
- 부모의 경제활동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 마련

②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가자 모집	잡다큐에 참여할 청소년, 부모 모집	○ 일시 : 7월~8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소재 학교 ○ 내용 : - 현수막게시 - 보도자료 - 전단지배부 - 학교홍보 - 자원봉사센터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 위원조직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공개적인 활동 홍보활동 3회	10회/2개월/ 청소년10명, 부모10명 모집
2	부모세대와의 인터뷰	부모세대의 경제활동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일시 : 9월~10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예술가 자택, 오남매빵집, ○○○ 내과 의사 자택, ○○○ 내과, 장인건축 사무소 ○ 내용 : - 청소년들의 사전질문지 작성 및 멘토 에게 전달 - ○○○ 세무회계사, ○○○미술사, ○○○ 경찰관, ○○○ 예술가, ○○○ 제과제빵사, ○○○ 내과 의사, ○○○ 건축가과의 인터뷰 및 촬영	7회/1~2시간/ 20명 참여(연인원)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3	영상 편집 및 게시	부모세대의 경제활동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 마련, 부모의 상호 이해의 기회 마련	○ 일시 : 9월~10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지역과 공유할 내용 동영상 편집 - 동영상 게시(SNS활용)	9회/5시간/ 7명 참여 영상물 7개
4	영상상영회	부모세대의 경제활동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일시 : 10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제작한 동영상 상영 및 관련내용 토론	3회/2시간/ 10명 참여
				총 37명 (연인원)

(3) 부자회담

① 사업목표

-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
및 이해의 폭을 넓힘

②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가자 모집	부자회담에 참여할 청소년, 부모 모집	○ 일시 : 7월~10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소재 학교 ○ 내용 : - 현수막게시 - 보도자료 - 전단지배부 - 학교홍보 - 자원봉사센터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 위원조직에게 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공개적인 활동 홍보활동 3회	10회/4개월/ 청소년 23명, 부모 15명 모집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2	부자회담 1회	서로의 차이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 토론에 대한 이해	○ 일시 : 10월10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안건선정 (학교를 안다니고 싶다면 안다녀도 좋다 VS 학교는 다녀야 한다) - 양측 의견정리 및 제시 - 반론 제시 - 마지막 반론 정리 및 제시	1회/1.5시간/ 청소년 10명 참여
3	부자회담 2회	서로의 차이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 토론에 대한 이해	○ 일시 : 10월17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고민받기 - 안건 3가지 제시 (부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할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 하려고(자퇴하고) 하지만 부모님은 싫어 해요,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로서 성숙 하지 못한 점을 커서도 기억하고 서운 함을 표시합니다.) - 정상측, 비정상측 의견정리 및 제시 - 반론 제시	1회/1.5시간/ 청소년 8명, 성인 6명 참여
4	부자회담 3회	서로의 차이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 토론에 대한 이해	○ 일시 : 10월24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하고픈가봉 참여자에게 안건 소개 (부모님과 의견이 같듯이 싫어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진로를 준비하는 나 비정상 인가요?) - 안건에 대한 견해 적기 - 정상, 비정상측 의견 제시	1회/1시간/ 청소년 5명, 성인 9명 참여
				총 38명 (연인원)

(4) 할매힐러

① 사업목표

-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를 청소년들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과 교류, 노년기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대문화를 통합하는 가치확산, 세대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② 세부활동 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가자 모집	부자회담에 참여할 청소년, 부모 모집	○ 일시 : 7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홍보	1회/2시간/ 청소년 6명
2	설문지 작성, 현장취재	지역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 발견, 노인세대의 어려움 이해	○ 일시 : 8월15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실버존 ○ 내용 : - 실버존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작성 - 실버존 현장답사 및 사진 촬영	1회/2시간/ 2명 참여 - 설문지 - 실버존 현장사진
3	중간회의, 설문조사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현황 인지	○ 일시 : 8월22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은파호수공원 ○ 내용 : - 9월~10월 활동 논의 - 기획자 선정 - 야외 설문조사 활동	1회/3시간/ 4명 참여 - 설문지 39부, 회의록
4	설문조사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현황 인지, 노인세대의 어려움 이해	○ 일시 : 8월24일~8월28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그 외 활동 장소 ○ 내용 : - 연구자료 제시 - 참고문헌 보는 법과 표시하는 것 안내 - 논문검색사이트 안내 - 연령별설문지수거진행	1회/ 6명 참여 - 설문지 100부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5	노인복지관 연계활동	노인문제인식의 계기마련	○ 일시 : 8월26일 ○ 장소 : 금강노인복지관 ○ 내용 : - 노인취재 가능여부 파악 - 대학생 지원자 유무 파악	1회/1시간 1명 참여 - 방문 가능한 경로당 섭외
6	설문조사기록 및 외부취재활동	노인세대의 아픔 이해, 세대 간 갈등예방 및 조정	○ 일시 : 8월29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설문결과 엑셀입력 - 기사작성을 위한 통계자료정리 - 후기 노인문제기사 주제선정을 위한 경로당 방문 조사	1회/6시간 4명 참여 - 통계자료
7	1차 기사작성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마련	○ 일시 : 8월30일, 9월12일, 9월22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통계결과 바탕으로 기사 초안 작성 - 기사정리	3회/4~5시간 2명 참여 - 기사
8	중간회의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마련	○ 일시 : 10월17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2차 기사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논의 - 노인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방법 논의	1회/2시간 2명 참여 - 회의록
9	2차 기사작성	객관적 자료 수집을 통한 지역변화 도모	○ 일시 : 10월19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군산시교통지원과 자료요청 - 법률정보시스템 검색	1회/3시간 2명 참여 - 기사
10	2차 기사 야외취재	세대의 아픔 이해, 세대 간 갈등예방 및 조정	○ 일시 : 10월24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야외취재활동 - 야외취재활동 결과 정리 및 기사 초안 작성 - 노인문제 캠페인 물품논의	2회/2시간 3명 참여 - 사진, 기사
				총 32명 (연인원)

4. 시범사업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집과 홍보를 비롯하여, 각 단위 사업과 프로그램별 운영과정 및 추진 단계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운영에 따른 과정평가와 개선방안은 프로그램별 운영책임자를 선정하여 내용을 기록한 다음 운영진 전체 논의를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책임자와 본원의 연구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1) 경제영역

(1) 모집 및 홍보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진로, 진학 및 동아리활동 담당교사와의 적극적인 대면홍보를 통하여 관심이 있는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음. •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4월에 시작하여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고 생각함. • 청소년활동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활동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절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였음.	•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활동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관의 공문 및 담당교사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청소년에게 관련정보와 준비물을 안내해야함.

(2) 신용경제아카데미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신용과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음. • 기본적인 경제개념부터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 심화된 대안경제의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음. •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의 강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음.	• 학원과 과외 등으로 바쁜 청소년의 생활을 고려하여 강의 시간과 일정을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함. • 강의주제와 내용, 이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음. • 참여적인 강의양식을 도입하여 활동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고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강의가 배정되어 청소년들로부터 하여금 전체 강의일정을 소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음. • 일부 강의주제의 경우 한 번의 강의로는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 정보전달위주의 강의가 많아 처음 대면하는 청소년 간에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웠음.	

(3) 창업마케팅아카데미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각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 창업과 마케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및 실질적인 사례를 습득하는 계기를 제공함. •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창업과 마케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후 활동을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되었음. • 오랜 시간동안 강의를 진행해보니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었음. • 일부 강의주제의 경우 한 번의 강의로는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 창업에 대한 담론적인 내용과 창업배경 및 동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어, 실제적인 창업의 절차 혹은 기획과 제작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부족하였음.	• 학원과 과외 등으로 바쁜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강의일정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함. • 강의주제와 내용, 이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의수준을 고려하고,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실제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청소년 간에 역동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됨. • 상품을 구상하고 기획하며, 제작하는 실제적인 과정에 대한 강의가 배정되어야 함.

(4) 아카데미 수료식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아카데미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향상시키고 책임감 및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2일간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소에 듣지 못한 강의였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새로이 알아서	• 수료증뿐만 아니라 명함 등의 실제 판매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급하면 참여 동기와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수료식 과 평가회 운영을 제안함.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좋았다.”,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면, “하루에 강의가 너무 많아서 학원을 다 빠져야 했다.”, “종일 강의만 듣다보니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등의 아쉬움을 제기하였음.	

(5) 동아리 활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전체회의를 통하여 프리마켓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팀별로 수행했던 역할을 공유하고 다음에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안내하였음. • 각 팀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제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실무자에게 제출하고, 실무자는 원자재를 주문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대리함. • 팀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팀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품을 고안할 수 있었음. • 팀 간에 상품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프리마켓의 다양성을 담보함. •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로 팀을 구성하여 팀 내부에서 역동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있었음. • 한 프리마켓 활동 안에서도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판매에만 관심이 있는 청소년으로 구분됨. • 팀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소 어려웠음. •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였으나, 잦은 모임과 회의에 부담을 토로하는 청소년이 있었음.	• 팀 구성에 있어, 낮은 청소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간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운영과 판매의 역할 중 각 청소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이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운영, 판매, 홍보 등 역할의 구분과 더불어 프리마켓 운영의 집중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조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무자의 역할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상품기획 프레젠테이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팀별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첩되는 아이템을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었음. • 질의응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었음. • 상품의 개발과정에 대한 상세한 교육 및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상품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구분할 수 있는 사고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였고 팀 간에 준비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청소년의 학사일정 및 전체 활동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상품을 구상하고 기획하며, 제작하는 실제적인 과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청소년이 구상중인 상품에 대한 제작과정 및 필요 기술, 소요예산 등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통하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청소년의 시행착오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7) 선진지 견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년창업자를 만나 창업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대표와의 면담 진행 •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기분을 전환하고 청소년들 간에 라포를 형성하고 역동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청년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판매할 상품을 기획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듣고 각 팀이 기획 중인 아이템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아이템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음.	• 프리마켓 활동과 창의적인 상품 구상을 위하여 아카데미 과정에 포함하거나, 상품 준비에 앞서 선행되는 것이 적절함. • 다양한 성격의 프리마켓(프리마켓, 아트마켓, 벼룩시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판매양식 및 상품구성, 분위기 등을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임.

(8) 상설 프리마켓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 내에 팀별로 판매대 배정 • 평일에는 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토요일에는 모든 인원이 함께 프리마켓 운영 및 이벤트 진행	• 프리마켓을 정기적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기간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평일 활동 및 상설 전시는 보조적 수단에 한정됨으로 정기적으로 야외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것에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팀별로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이 경제활동에서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음. • 판촉활동을 통하여 마케팅을 직접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음. •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 • 소셜미디어 공유, 전단지 배부, 지인 초대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홍보효과가 부족하였음. • 학업일정으로 인하여, 상품 기획 및 제작 기술 습득하고 숙달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웠음. • 상품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데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음. • 평일 활동 및 판매대를 활용한 상설 전시는 운영과 홍보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효과나 판매실적이 감소하였음. •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소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점, 창업의 과정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던 점, 새로운 친구와 사람을 만나게 된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음. • 반면에, “홍보가 어려웠던 점, 판매행위를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부담, 팀원들과의 의견조율이 어려움, 상품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함.	•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소년 외에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규 청소년(판매자)을 발굴하고 유입시키는 것을 고려해야함. • 많은 판매자를 유치하여 프리마켓의 규모 및 홍보, 인지도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기존의 기관에서 조직했던 우리 동네 청소년 CEO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프리마켓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유입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이동 프리마켓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1차) • 기존에 활성화된 프리마켓인 박물관 근대문화장터에 참가하였음. • 청소년예술제가 진행되는 행사장에서 판매를 진행하였음. • 지역사회 내 활성화된 프리마켓(박물관 근대문화장터)에 청소년판매자로 입점하여, 다른 성인판매자와 함께 참여하였음. • 청소년예술제를 관람하러 온 청소년과 보호자를	• 기성프리마켓과의 협조와 연계는 많은 이점이 있으나, 청소년 프리마켓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만의 개성이 담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청소년 프리마켓 활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목표를 명확히 명시하여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유도할 수 있음. • 운영 이전에 청소년들의 보다 확실한(강화된) 동기부여 되어야 함.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높은 매출신장을 기록하였음. •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을 지역사회 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기성 판매자와 상품의 차별화를 이루기가 어려웠고, 상품의 품질 역시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할 수 밖에 없었음. • (2차) • 군산지역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여하여 프리마켓을 진행하였음. •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일정이었으나,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자원활동가 조직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내었음. • (3차)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대에서 진행하였음. • 박물관을 찾는 많은 청소년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소년 프리마켓을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펼침 • 적극적인 가격 마케팅을 통하여 악성재고상품을 처분하였음.	

2) 참여영역

(1) 모집 및 홍보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신문지면과 온라인홍보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전개함. 직접 학생자치 담당자를 만나면서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 • 기존 기자단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킴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이 지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으며, 활동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학교 내 사회참여 동아리와 학생회 임원진 집중 모집이 필요함. • 프로그램 설계 시부터 학교자치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을 두어야함. • 옴부즈퍼슨 활동 정리 보고서를 통해 현장홍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함. • 사전 활동 설명회를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 시험기간과 겹치는 주 활동을 고려하여 모집을 연 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 사회참여와 언론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음. • 기자, 인권전문가, 지역시의원 등 전문가 강사진 구성으로 청소년 옴부즈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소년의 활동참여도를 개선시킬 수 있었음. •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소에 청소년이 소외되고 있다고 못 느꼈지만. 정말로 청소년은 진정 주체가 되어야 할 때에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와 발전에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작함. • 또한 “활동을 통해 기자가 될 자격과 기사문을 쓸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게 되었다. 라는 기자 교육에 대한 만족과 차후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인권 교육 워크숍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 마지막에 영상을 보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 되었다 는 청소년의 인권민감도 향상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워크숍형태의 교육에 대한 역동성이 높았음 • 아카데미 시 청소년들 간의 충분한 라포 형성이 다소 어려웠음.	• 시험기간과 겹치는 주 활동을 고려하여 활동을 4월 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활동 시기 전년도 후반기에 조직 또는 전년도 겨울방학에 기조직할 것을 제안함. • 군산시 예산분석 등 시의원 강의가 아카데미 뒤 쯤에 위치하는 실질적인 활동방향 및 지역분석에 용이할 것임. • 여러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후반 강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내용의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함. • 수료인원 중 고등학생 비율이 90퍼센트로 높음, 차년도 교육수준을 조정하여 중학생과 고1의 모집 비중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간에 분한 관계형성이 되지 않아 차후 옴부즈퍼슨 팀별 역동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아카데미 진행시부터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 시간 비중을 더 할애하고 이를 통한 집단역동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

(3) 청소년 옴부즈맨 조직구성 회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2개팀 3팀장 선출을 통해 관심분야 (정치사회, 국제경제, 문화교육)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 및 소속감을 부여 할 수 있었음. • 팀별 회칙을 통해 활동에 대한 규칙성을 가질 수 있었음. • 팀별 조직에 대한 분류가 사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전체 대표를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팀별 활동 진행 정도와 참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웠음. • 과외와 공부로 인해 활동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 팀원시간조정이 어려운 조가 있었음.	• 전원 참석치 않더라도 전체대표를 첫 회의 때 선출하는 것이 실무지를 제외한 실제적인 조직 내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심주제별 팀을 나눔에 있어서 기획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받는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적인 모임일정을 사전에 미리 확정 지어 조율하는 것이 활동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도 시간 계획과 활동전개에 필요할 것임.

(4) 청소년옴부즈퍼슨 위촉식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기자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 위촉장을 받은 청소년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고, 그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함 이를 통해 책임감과 활동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됨을 볼 수 있었음. • 위촉식 후 별도 모임을 갖지 못했음.	• 위촉식 후 임원진 모임과 같은 위촉식 진행 방식에 대한 청소년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

(5) 지역조사 기획 회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자료조사와 지역현장조사 활동을 펼침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었음. • 5개 학교의 청소년들이 연합동아리 형식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활동반경을 넓히고, 각자 다른 환경과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음. • 전화, 메일링, 현장 취재 등 말은바 내용을 팀원들 간의 사전공유를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임. • 뉴스취재계획서, 인터뷰 질문지 등 직접 관련서식을 만들고 논의함. • 전화, 메일링, 메세지등 내용을 점검하면서 인터뷰 진행에 앞서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함, 몇 번의 피드백으로 완성된 문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를 보임. • 지역 안에서 서로의 청소년기 생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였음. • 팀별 모임체제로 전환하여 팀장이 회의 진행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 할 수 있었음 • 참여청소년은 "우리가 잘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해보자" 결의에 찬 다짐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지역에 없었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음. •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 및 개선방안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기사 기고를 선택, 정기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신문사와 연계예정이었던 기자교육에서 기사작성, 인터뷰요령, 자료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냄.	• 지역 정책 및 예산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초기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한 달에 1번 임원진 모임을 통해 미리 안건을 상정하고 팀별 회의 진행, 스터디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함. • 취재계획서를 작성 시 인원 분담에 대체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요령, 자료조사 등 필요한 기본교육을 취재 계획 이전에 전체 진행하는 것이 팀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도 함께 갈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설문지 배포 집중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고등학생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도서관, 독서실 등 학생밀집 현장 설문지 배포가 필요함. • 청소년들의 생각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생각도 함께 설문 문항에 추가 되는 것이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로 부족한 자료는 동일한 주제로 청소년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확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됨. • 자료조사 TFT(Task Force Team)구성 하여 팀 활동 시간 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교육팀의 경우 군산 전역 고등학교에서 조사를 위해 노력하여 8개교를 조사함. 2개팀 200여부의 설문지 수거 • 팀장의 팀 연락 및 모임의 어려움을 몇 차례 이야기함.	

(6) 지역조사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들이 취재 시 필요한 인터뷰 질문지와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스스로 표를 만들고 멘트를 조정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음. • 직접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의뢰를 하면서 처음 하는 일에 서먹했으나 인터뷰 당일에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참여한 청소년은 개복동 답사를 다녀와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공간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청소년의 참여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활동으로 나타나고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실천해야 함을 전함. • 야간자율학습인터뷰를 진행한 청소년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고 문제점들을 찾고 같은 질문으로 선생님의 생각을 인터뷰 하면서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입장과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 움부즈퍼슨의 사명을 다질 수 있었음. • 계획을 오랜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일정에 담당인원이 나오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있었음. 인터뷰 전담을 2명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함.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주제에 맞지 않는 흐름으로 대화가 진행되기도 하여 취합에 어려움을 보임.	• 인터뷰 질문지등 자료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카페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의 매체 활용도가 떨어짐을 보아 페이스북 그룹이나 밴드, 카톡을 이용한 자료공유가 취재 진행에 있어서 자료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터뷰 당사자와 기사작성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기사의 현장성과 내용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취재 전 기사 작성과 내용정리에 대한 책임과 과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7) 지역조사를 토대로 자료 정리 및 기사작성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시작 후 8, 9, 10월에 걸쳐 기사 담당 청소년이 주도하여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음. •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음. •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제공으로 진로설계 자원: 기자, 언론활동, 정치, 광고업, 사회복지 등 교내에서는 알기 어려운 진로방향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설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 청소년들이 회의하고 논의한 결과로 움직인 취재와 기사쓰기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주도성과 책임을 기르기에 충분하였음. • 지역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자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었음. •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개인 메일을 통해 기사를 점검하고, 예시기사와 대조함으로써 자체 평가 및 지도자 평가를 거치면서 기사내용을 완성 하였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장소에 와서 동시에 진행하고, 돌아가 학교생활 중에 모여서 작성하기 하는 것을 보아 기사 완성에 대한 책임과 활동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음. • 처음에는 어렵던 문장과 제목 선정이 조별 논의와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스스로도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함. • 팀장들이 지도자와의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도자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아닌 팀장의 전달과 논의로 팀 내 활동의지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었음. • 시간과 팀원 진행 여건상 동영상 제작하지는 못 했지만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음. • 참여한 청소년은 “선생님과의 인터뷰와 학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기사 작성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줄 알았지만 어려워 팀원 친구들과 함께 고 민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처음이라 쉽지만은 않았지만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담당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뿌듯한 심정을 표현하고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볼 수 있었음. • 8월중 움부즈맨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활동 참여 인원이 많은 학교는 학교자체동아리 시간에 수행할 기사 작성 및 논의를 조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예시 기사를 실무자가 제안해 주는 것 보다 실제로 동일 주제나 비슷한 주제의 기사 및 칼럼을 조사 해오고 그것을 답습하는 연습과정이 뒷받침 된 다면, 더욱 사고의 확장과 글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기사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헤드라인과 핵심 키워드를 팀 전체의 의견을 받아 신중이 선정하는 것이 기사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 기사를 멘토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시로 자문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함. • 기사 작성 전담학생 외에 피드백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빠르고 원활한 기사 완성을 위해 필요함 예를 들면 기사초안→문맥점검→오타검열→기사최종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업에 치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정 조정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을 제안함. • 언론활동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캠페인 등 보다 적극 적인 실천 전략이 요구됨.

(8) 청소년참여포럼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의견 제시 및 정책의제를 도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통합적인 분야별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에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청소년 옴부즈맨 주도하에 포럼을 기획하고 직접 계획안을 작성해 봄으로써 주체성과 추진력을 키울 수 있었음. • 전체사회와 기초발표를 청소년이 진행 하여 주도성과 청소년을 대표함으로써 책임감을 신장 시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청소년 옴부즈맨 동아리를 비롯하여 지역 학교 동아리 및 학생회 연합과 연대함으로써 다문화, 학생회, 토론동아리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었음. • 7개 분과(경제, 안전, 교육, 건강, 관계, 활동, 참여) 별로 분임장과 부분임장을 선출하고 사전모임을 통해 토론문을 작성하였음. 토론방식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청소년이 진행하는 참여 수준이 높고 준비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각 분과별 토론 시 전문가 배치(세무사, 의사, 청소년 활동가, 관련연구자 등)로 전문 자문 및 토론의 맥락을 정리하여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았음. • 우드락, ppt, 정리 발표 등 분과별 토론 내용을 다양한 방식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고, 자유로운 발표와 핵심 요약으로 청중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냄. • 지역 국회의원의 청소년 발표 참관 및 제언으로 청소년이 “진짜로 지역에서 제안을 하는 것” 같다는 피드백으로 보아 새로운 동기부여로서 작용함. • 시간상 각 분임별 청소년 발표시간이 짧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 예정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로 장소가 비좁은 경우도 있었음. • 분임토론 리허설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여 매끄럽게 진행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함. • 사전 토론문에 주관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갔던 분임은 활발한 토론진행에 어려움을 보임. • 포럼평가회를 진행함으로써 차후 정책제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함.	• 분임별 시뮬레이션 리허설을 철저히 하여 현장 접수자도 포용 할 수 있는 진행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오후 3시간 과정이 아닌 오전 교육부터 시작하여 종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배치가 될 것임. • 사전 토론문 작성 시 개념 정리와 함께 나누고픈 현안과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양식을 통일하고 토론방식을 재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분임별 전문가 배치 이전 전문가와 청소년의 만남을 추진하여 포럼 진행시 막막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체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내가 속한 분과만이 아닌 전체 분임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해야 함. • 분임원 토론 참가 신청 시에 자신이 희망하는 분과의 1,2 지망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한다면, 분임별 인원과 나이, 성별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지역연대활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1개의 학교에 자체 사회참여 동아리를 결성 하게 되었고 그 동아리가 시초가 되어 내년에는 동아리자체 학교 연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연구소의 옴부즈맨 활동을 넘어 지역전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군산 청소년학사회 연합 준비위원회 모임에 방문하고 담당 지도자와 면담 진행.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지역에서 통합적인 지지와 결심이 필요함. 그렇기 위해서 지역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청소년이 함께 논의해야 함. • 지역신문사에서 언론사가 민간단체와 청소년과 만나는 과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조함. • 지역신문사와 기자학교를 거친 기사기고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청소년들 학사일정과 맞지 않아 기자학교는 내년으로 연기하고 2015년 중 기사를 기고하기 위한 신문의 지면할애로 조정함(예: 청소년 기획면, 달그락(가칭)). •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맥락을 파악하면서 실무자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전개에 밀도 있는 접근을 가능케 함. • 청소년의 진로 고민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은 무기력함을 엿 볼 수 있었음. • 지속적인 기사 투고를 위한 청소년사회참여 전용 운영체계 설립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신문사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의 지속적인 의사표현과 사회참여 활동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음.	• 사회참여 동아리와 학생회를 주축으로 학교 내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것을 확장하여 지역에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시작으로 삶의 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현실적인 삶을 담아내는 활동으로서 이어져야함. • 학교, 민간단체, 청소년 단체 및 조직 등이 청소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의 내용과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짐.

(10) 조례제안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시험 및 청소년 일정으로 인해 11월 중으로 연기됨 • 지자체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관련 청소년 정책제안 의제 제안 예정 •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계획에 청소년 의견을 개진	• 어린이 행복도시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시로 명명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가해야함. •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 등 직접적인 행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의 통로 마련이 시급함.

(11) 평가회 및 추후활동 모색

과정평가	개선방안
• 옴부즈맨 활동은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임. • 지역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계속할 계획임. • 11월 중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의제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함. • 여러 차례 학교와의 연계로 차 년도에는 학교별 사회참여 동아리 형성 및 연계가 계속 될 전망이다. • 사업이 종료됨 시점에서 활동 진행시 수행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학사일정상 12월 활동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1월~3월 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 년도 활동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과 참여를 권유해야 함. • 학교별 수요와 연계 의사여부를 파악하여 활동의 확장 및 내실화가 필요함.

3) 관계영역

(1) ‘하고픈가뽕’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하고픈가뽕’에 참여할 청소년, 부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보도자료,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현수막, 신문보도 자료로 모집된 청소년과 부모님은 없었음. 하고픈	• 부모님과 청소년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모 또는 자녀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청소년세대, 부모 세대를 따로 모집하여 활동을 함께한 뒤 참여하는

과정평가	개선방안
가봉에 참여하는 청소년 11명 중 10명이 전단지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었음. 실무자가 직접 활동을 소개하거나 기관을 소개하며 홍보하는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었음. • 기존에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로 구성된 위원조직(전문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자원봉사활동가 조직에게 참여를 권유 및 홍보를 부탁을 하였으며, 전문위원 중 1명, 자원봉사활동가 중 2명이 참여하게 되었음. 그러나 청소년은 기존의 활동과 동시에 활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음. • 부모는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부모세대 어른, 자녀세대 청소년을 따로 모집 하여 할 수 밖에 없었음. 기존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 중으로 다른 활동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 기존의 부모자녀 동아리 활동이나 연계 활동의 부족을 느꼈음. • 부모님이 활동을 신청한 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개적인 홍보 기간이 방학 기간과 맞물리면서 중학생 방학 중 보충수업이 없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늦어져 더 지체되었음.	청소년의 부모, 참여하는 부모님의 자녀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청소년, 부모가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 있는 기관인 경우 이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홍보를 연 초부터 학기 초까지 진행하여 1학기와 여름방학에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기간 확보와 모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한 노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하였으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금강노인복지관과의 논의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음.	• 한 노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하였으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개선방안
- 참가자들이 서로 소외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노인복지관 실무자분과의 소통을 통해 남녀와 인원배치를 할 수 있었고, 사다리타기를 통해 미리 정해둔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음. - 청소년, 부모세대 어른, 노인세대 어른이 처음 모여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정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에 개별로 질문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가정을 연결 하였던 한계가 있음. - 노인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나 소통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었기에 초기 만남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음.	- 청소년, 부모세대가 함께 모여 라포를 형성하고 충분히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어르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노인들의 특성과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세대가 사전교육을 받은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1회 모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마트에서 장을 함께 보면서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는 등 식사를 함께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어른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 - 일지를 통해 노인인식에 대한 연민보다는 노인의 강점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부모세대와 노인세대의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고민을 알게 되는 등 부모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친밀감을 형성하였음. - 청소년이 노인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음. - 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 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어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부모세대와의 소통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부모세대 어른이 청소년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르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청소년이 어르신의 긍정적 행동을 인식하여, 단순히 시혜적인 활동이 아닌 노인세대, 부모세대와 소통하는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역에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 취지, 관계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무자 없이 시작되는 만남에서 라포를 형성할 구체적인 방안을 부모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무자가 첫 만남에 개입한 가정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해 친밀감이 훨씬 높아졌으므로 최대한 초반의 만남에 실무자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취지에 대해 충분히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중도탈락이 없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활동이 필요함. - 평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대화나 행동이 편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접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중간 부모세대의 조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부모세대, 청소년세대와의 대화와 노인들의 동석을 통해, 각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실무자가 알게 되었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필요한데 밝은 노인들을 만나 봉사의 시급성에 대해 잘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한 부모님세대 어른이 있었음. 활동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 가정 별 첫 만남 일정이 겹치거나 실무자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첫 만남에서의 라포 형성은 각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한계가 있음. - 각자의 식성, 신체적 특성, 기호차이로 관계에서 서먹한 경우도 있음.	청소년과 노인세대 어른들은 함께 활동해야만 하겠다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서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논의하여 청소년2명 또는 노인2명의 활동을 하는 가정도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두 가정이 함께 만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⑤ 후기참가자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은 각자 만나는 장소를 찾는 것에서의 어려움, 노인들은 혼자서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는 두려움, 부모세대 어른은 청소년에게 이목이 주목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음.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음. - 한 가정은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는 부모세대 어른이 함께하게 되어, 청소년들과 10분 먼저 만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였음. 노인복지관 실무자 생님의 조언을 통해 동성인 노인과 어른을 배치하였고, 노인분이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음.	-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만남을 시작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각자 활동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활동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소통을 위해 실무자가 청소년, 부모, 노인과 빠르게 라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노인세대 어르신 개별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실무자와의 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노인복지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실무자가 형성할 필요가 있음.

⑥ 2회모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이 각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라는 노인의 말을 의미 있게 들으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음.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갈등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음. -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친밀감 형성되었음. -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족 간에 친밀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소통에 대한 연습을 하는 활동이 초반에 마련되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각 가정이 만들어지면 예측 불가능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무자와 즉각적으로 상의하는 환경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 - 부모세대의 역할에 따라 노인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친밀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모세대의 책임감 부여가 필요.

과정평가	개선방안
• 노인세대의 긍정적 삶의 태도를 통해 청소년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음. 서로가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함. • 가족이 직접 참여한 경우,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청소년, 부모세대 어른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노인이 기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 과정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음. • 불편한 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실무자가 늦게 알게 된 경우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부모세대가 중간에서 청소년과 노인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음, 실무자가 부모세대의 역량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음.	• 여러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처음 활동하는 참여자를 위한 매뉴얼이 제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⑦ 중간모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어른신의 입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게 됨. •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제안하고, 고민하면서 결속력을 느꼈음. • 노인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으며, 어린 청소년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셨음.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가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청소년과 어른과의 만남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세대 간 실무자가 조율할 내용을 알게 되었음.	•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함. • 부모세대 어른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노인세대 어른이 부모세대 어른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함. • 불편하지만 관계의 유지를 위해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무자가 잘 파악하여 조율을 도와야 함. • 모임이 없는 기간 동안 청소년과 부모세대 어른이 노인들에게 자주 연락하도록 실무자의 독려가 필요함. • 노인세대 어른의 개별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실무자와의 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노인복지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실무자가 형성할 필요가 있음.

⑧ 사진촬영 및 단체모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한주 간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여 오랜만에 만나는 가정들은 어색함을 풀어갔음. • 사진촬영 시 움직임이 많지 않은 동선을 정하여 일상적인 풍경에서 학교로 등교하는 사진, 손을 마주잡는 사진 등의 촬영을 통해 즐거운 경험하고 추억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였음. •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노인들의 소감발표를 통해 가정 간 친밀감과 애뜻함이 높아졌음. • 식사를 2층으로 예약이 되어 실무자의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	• 청소년과 부모님 세대 어른 중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만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당일에 점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기관에 방문하면서 노인들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노인복지기관의 실무자 초청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 노인분의 틀니 사용, 치과치료여부, 평소 움직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사메뉴선정을 하여야 함.

⑨ 3회모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혼자 지내는 노인분의 가정방문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사락 씨가기, 감따기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친밀감과 애뜻함이 높아졌음. • 중간 노인복지관 방문을 통해 가정들마다의 소식을 노인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가정간 친밀감에 대한 확인을 함. • 이동거리가 긴 경우 자차가 있는 부모세대어른의 도움이 있어 노인세대, 청소년의 활동에 편의가 있었음. • 노인들이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이나 활동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고, 세대 간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제안할 사항이 사전에 없었던 한계를 느낌.	• 거주지가 먼 노인들의 경우 노인들의 허락을 얻은 후에 마지막 즈음 택으로 방문해보길 권유하는 것이 필요함. • 부모세대에게 노인들이 자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노인들이 청소년세대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를 미리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함.

(2) 잡다큐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전단지들 통해 1명이 모집되고 그 외 청소년 9명은 기존의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청소년옴부즈퍼슨, CEO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음. 청소년의	• 직업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모세대 어른에게 이해시키고,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과정평가	개선방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부모님이 아닌 부모세대 어른을 촬영하게 되었음. 지역주민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하였음. • 관심 있는 직업군을 조사하여 이 직업군의 어른들을 섭외하는데 있어서 위원조직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이 효과적이었음. • 실제 섭외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성인 조직들로 구성되었음. • 주말에도 근무하는 어른과의 만남이 수월한 반면 평일에만 근무하는 어른과의 만남은 일정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음. • 활동기간의 어려움 : 방학에 집중적으로 평일체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모집기간동안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학기 중 주말, 평일자녀 위주로 활동을 했음. 방학기간은 휴가기간과 겹치기도 하여 직장인과 청소년의 만남이 쉽지 않았음.	• 부모님과 청소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망 구축, 기존에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조직을 꾸려 놓을 필요가 있음. 자신의 작업장을 오픈해야 하는 것에서의 부담감을 떨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가짐 • 홍보를 연 초부터 학기 초까지 진행하여 1학기와 여름방학에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기간 확보와 모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좋은 다큐사례를 통한 홍보필요 :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자신의 직업을 공개하는 활동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 • 부모세대를 촬영하는 경우 청소년이 직접 촬영 주인공을 섭외하는 활동을 하면 동기부여에 더 좋을 것으로 보임.

② 부모세대와의 인터뷰

과정평가	개선방안
• 부모세대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인터뷰를 통해 부모와의 진로가치관 차이를 조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대화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함. • 실무자가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섭외 또는 인터뷰 보조를 진행하면서 시간적인 제한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동시에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평일근무, 6시에 퇴근하는 직업군의 어른을 직업현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진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기준을 가짐. • 부모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로고민 해결 및 이해의 기회 제공 • 부모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현실적인 제안을 들음으로 인해서 진로 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각각의 인터뷰를 위해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 직접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전만남과 첫 만남은 실무자가 동행하여 활동에 대한 소개, 개인적인 교류 등이 필요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낯선 곳에 찾아가기 힘든 청소년은 어른과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에 제한을 가짐. • 진로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중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 필요 • 영상 촬영에서 각자가 편안해지는 인터뷰 환경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 • 인터뷰 활동 외에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1회기 보다는 2회 이상의 만남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부모님세대 어른의 다큐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직업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를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해 이해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과정평가	개선방안
•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부모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모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 • 부모세대와의 진로 나눔을 통해 어른과의 소통능력 배양,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경우가 많아 부모세대와의 소통능력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실무자가 추천하는 질문을 준비하여 청소년이 준비한 질문에 덧붙이도록 제안하여 질문이 너무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음. • 일대일 만남의 어려움 : 일대일로 청소년과 부모세대와의 만남을 이루어야 했으므로 실무자의 시간적 투입에 한계가 있었음. 다수의 청소년이 동시에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음. • 직업의 간접체험 한계 : 직업에 대해 체험을 해보는 상황은 어렵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듣기 때문에 체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직장동료들까지 시간을 내어 함께 이야기 하는 여건 마련이 어려웠고, 부모세대 어른 한명과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했음. • 부모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사전 질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인터뷰 횟수가 1회였기에 부모님에 대한 이해 보다 한가지 직업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음.	• 촬영당일 촬영구도에 대해 막막해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으므로 촬영에 대한 시나리오 구상을 철저히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어른을 만나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방안을 생각하여 기록을 제대로 하도록 함.

③ 영상 편집 및 게시

과정평가	개선방안
• 영상을 선별하는 과정, 녹취하는 과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뷰 내용을 되새기게 됨. 진로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을 선별함으로써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알게 되었음. •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하던 내용을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영상편집을 도울 대학생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음.	• 실무자가 청소년들이 쉽게 영상편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집프로그램을 다루어 보아야 함. • 청소년들끼리 한 번씩 모여 영상편집을 서로 돕고, 편집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마련되면 좀 더 흥미 있는 편집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임.

(3) 부자회담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들이 토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무자의 청소년인터뷰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안건 몇 가지를 예시로 들고, 성인과 청소년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청소년들이 흥미를 보였음. • '런치토크', '디너토크' 등의 명칭을 이용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토론에 대한 부담을 줄였음. • 부모세대는 토론이 거의 전무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음. 토론에 대해 흥미 있는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아 참가하지 않게 됨. 청소년과 부모 양쪽을 둘 다 참여시키기 어려움.	•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안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평소 청소년, 부모세대가 고민하는 점,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 조사,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 • 부모님과 청소년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에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청소년세대, 부모세대를 따로 모집하여 활동을 함께한 뒤 참여하는 청소년의 부모, 참여하는 부모님의 자녀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청소년, 부모가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 있는 기관인 경우 이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모님과 청소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망 구축, 기존에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조직을 꾸려 놓을 필요가 있음.

② 부자회담 1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여러 안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비등한 안건을 선택하여 토론함으로써 소통이 활발하였음. • 청소년들 간 서로의 생각 차를 알게 되었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하였음. • 평소에 또래친구들, 주변 어른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어 토론, 소통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음. • 반론을 반복해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에 논리성을 더해가는 경험을 함. •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쪽팀의 의견 쪽으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흐를 때 실무자가 반대팀 의견을 이야기하며 이야기의 균형을 잡았음. •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균형적인 모집이 부족하였음. • 고민에 대해 논의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접경험을 간능하게 하였음. •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지지를 받게 됨.	• 안건을 실무자가 제시하는 것 보다 참여자들 중 직접 제시하거나 외부에서 청소년의 실제 고민을 제시하면 더 집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팀별 논의 시 논의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청소년과 부모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되 청소년이나 부모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모집이 되는 경우 다른 쪽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인원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적은수의 사람이 불편을 느낌.

③ 부자회담 2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접수자명단을 준비하여 서명을 한 후, 부모님과 관계에서 고민되는 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되는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주고 자리에 착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담되지 않게 고민을 접수받게 되었음. • 청소년과 부모세대 어른이 고르게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음. 실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을 덜 느끼고 편하게 이야기 한 부분도 있었음. • 실제 자신의 고민이 논의되기 때문에 고민의 당사자는 추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취하였음. • 부모님간의 차이, 청소년간의 차이, 청소년과 부모님간의 차이 등을 인식하고 고민을 나누는 지역 내 소통문화를 형성하였음. • 또래 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자신을 공개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능력이 향상되었음. • 각 고민에 대해 정상 또는 비정상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적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생각, 정리, 공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음. • 청소년의 고민, 부모님의 고민을 번갈아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였음. • 고민을 사전에 미리 받아둔 것이 아니어서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기에 애매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음.	• 반드시 청소년과 부모님의 소통이 아니라도 청소년과 부모세대 어른이 정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하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 제시된 고민 중 몇 가지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논의하기 애매하였으므로,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고민을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받아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사전에 안건을 정하고 발표내용을 준비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간격을 두어야 함. • 서로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누구를 정상, 비정상으로 둘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헷갈려 함. 청소년이 정상, 비정상임을 이야기 할 것인지, 부모님이 정상, 비정상임을 이야기 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함. • 참여자 각각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대화를 시도 해야 함.

④ 부자회담 3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노인세대, 부모세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청소년의 고민을 주제로 노인세대, 부모세대, 청소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곳으로 의견이 집중되었고, 소수의 의견을 말하는 자들은 의사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세대가 포함 되어 있어 논의가 어려웠음. • 논리보다 경험에 근거하여 이야기가 지속되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대 간의 공통적인 가치관들을 알게 되었음.	• 노인세대의 경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끌어내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세대 어른과의 토론참여로 청소년들의 발언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의도적인 조정이 필요함. • 반박, 반론 등의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대되는 의견 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함. • 사전에 안건을 정한 경우, 안건에 대한 양측의 비율과 논리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함.

(4) ‘할매힐러’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기존 기자단조직 중 정치사회팀이 노인문제를 다루게 되어 청소년의 추가모집은 없었음.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존 청소년 조직이 없는 경우, 새로운 홍보가 필요.

② 설문지 작성, 현장취재

과정평가	개선방안
‘실버존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제작하며 지역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 발견, 노인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함. - 세대갈등의 예방과 조정 : 노인 분들과의 만남,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노년기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 정확한 노인보호구역의 범위를 모르고 가서 현장 취재 시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을 촬영해올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음. - 정치사회팀이 노인문제를 다루면서 실제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나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했음.	- 지역노인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 - 청소년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가 중요함.

③ 중간회의, 설문조사

과정평가	개선방안
- 야외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군산시민의 인식현황 인지. - 노인과의 교류 증가 : 청소년과 노인의 만남, 설문조사, 인터뷰, 대화를 통해 교류가 증가됨.	인터뷰, 설문조사에 대한 경험을 쌓아 두려움을 없애는 활동이 필요함.

④ 설문조사과정

과정평가	개선방안
• 군산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음을 살펴보고 노인세대의 안전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됨. • 청소년이 논문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논문을 처음 보는 청소년이 많아 어려워 함.	• 청소년이 논문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 •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

⑤ 노인복지관 연계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노인 복지관으로 찾아가 인터뷰 하는 것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주말인 토요일에 노인복지관이 운영하지 않아, 소수의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취재하게 됨. 다양한 노인을 만날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청소년과 시간을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 다양한 노인관련기관과 사전연계가 필요.

⑥ 설문조사기록 및 외부취재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경로당 방문으로 노인세대의 현재고민과 살아온 시절의 아픔을 이해 •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 갈등 예방 • 노인들과의 만남에서 시간 및 장소의 어려움 : 어르신들의 신체적 환경에 따라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만나려 하였으나 청소년이 주로 활동 가능한 주말인 토요일에 노인복지관이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부 노인들이 계신 경로당을 취재하게 되었음. 이미 관계가 있는 노인들만 취재하게 되어 다소 편파적일 수 있음.	• 시간이 충분하다면 청소년들이 각자 섭외할 수 있는 노인들을 조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만나는 것을 제안함.

⑦ 1차 기사 작성

과정평가	개선방안
• 기사작성을 통해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실제 실버존에 대해 필요성은 느끼지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통계자료를 보며 기사를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에 대한 의지를 높였음 • 통계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이나 학습의 시간이 부족하여 작성하는 청소년이 바뀔 때 마다 어려움 • 노인문제 취재 시 정보 수집에 대한 한계 : 노인 문제 중 실버존의 인식에 대한 취재를 위해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경로당 방문 1회, 기존 지인들을 통한 설문조사 등에서 정보가 편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 기존 지식이 부족하여 한계를 느낌. • 설문조사 자료 분석에서의 한계 : 취재 시 설문 조사한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빈도 분석 등의 이론과 기술이 부족하여 진행이 더뎠음.	• 여러 노인들이 함께하는 장소연계를 위해 인력을 분배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 취재활동이 길어 지면서 활동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 동시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활동을 가지도록 함. 통계교육이나 엑셀기본교육을 청소년들이 이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재가 가능.

⑧ 중간회의

과정평가	개선방안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계획을 세움.	• 노인들과의 만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⑨ 2차 기사 야외취재

과정평가	개선방안
• 취재활동의 분배로 효율적인 취재가 가능하였음. • 미리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취재를 나누어 가도 동일한 기준으로 체크가 가능하였음.	• 시간이 충분하다면 청소년들이 각자 섭외할 수 있는 노인들을 조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만나는 것 제안.

5.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사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학생용]’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2015년 5월 중, 사후조사는 2015년 10월에 실시하였다. 다만 결과 분석에 활용된 내용은 <표Ⅱ-10>과 같이 전체 문항 중 금년도 시범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관계영역(4문항-15항목), 참여영역(2문항-12항목), 경제영역(1문항)을 중심으로 사전-사후 비교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경제영역의 질문 항목은 실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분석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표 Ⅱ-10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 영역	세부항목	중·고등학생·대학생		비고 (참고자료)
		문항수	문항번호	
관계 영역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1	문5	
	주변인과의 관계(가족,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	1	문6-1~문6-5	
	주변인에 대한 신뢰도(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 사이버 공간)	1	문7-1~문7-6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기관)	3	문8-1~문8-3	
참여 영역	전반적인 참여권보장에 대한 만족도	1	문21	
	권리와 참여에 대한 인식(자신의 권리, 발표기회, 학교 운영 참여, 사회적 기회와 권리)	1	문22-1~문22-5	
경제 영역	가정형편(경제수준)에 관한 만족도	1	문25	

2) 조사결과 분석

금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총 46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사업영역과 전체 사업설계에 비해 분석 대상이 적은 이유는 각 영역별 초기 참가자들의 중도 이탈현상과 2015년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최종 검수과정에서 비교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두 집단 간 비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이었으며, 고등학생이 34명으로 전체의 73.9%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11명(23.9%), 대학생 1명(2.2%) 등이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6명(34.8%), 여학생이 30명(65.2%)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시범사업 영역별 참가자는 경제영역 시범사업(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에 참여한 청소년이 12명(26.1%), 참여영역 시범사업(청소년 움부즈퍼스, 기자학교 : 암행어사 출두야!)에 참여한 청소년이 24명(52.2%), 관계영역 시범사업(청소년-가족, 노인과의 교류 : 공감 브릿지)에 참여한 청소년이 10명(21.7%)이었다. 3영역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효과 분석에 활용된 사업 참여자의 분포는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학년	중학생	11	23.9
	고등학생	34	73.9
	대	1	2.2
성	남	16	34.8
	여	30	65.2
시범사업 참여 영역	경제사업	12	26.1
	참여사업	24	52.2
	관계사업	10	21.7
합계		46	100.0

3) 경제영역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1) 관계영역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2에 제시되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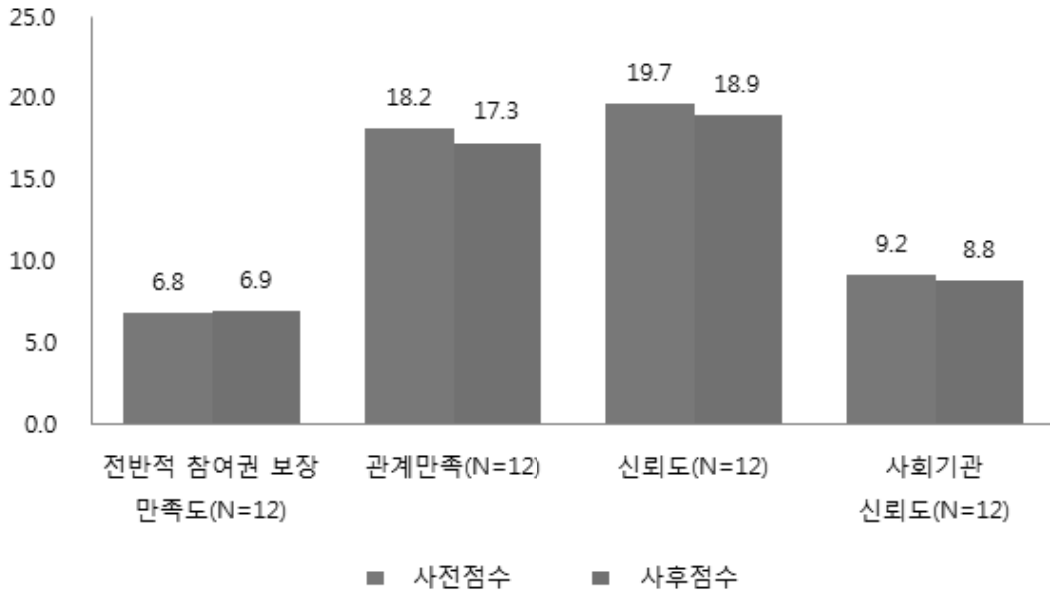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6.83점, 참여 후 점수는 6.9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의 가족, 보호자, 친구, 선생님, 이웃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관계만족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8.18점, 참여 후 점수는 17.25점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등 6개 항목에 대한 신뢰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9.67점, 참여 후 점수는 18.92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사회기관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는 9.17점이었으며, 참여 후 점수는 8.75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관계영역 지표 중 전반적 관계만족도의 점수는 다소 향상되었다. 그 외 지표의 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표 II-12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N=12)	사전점수	6.83	1.337	-.220	.830
	사후점수	6.92	1.240		
주변인 관계만족(N=12)	사전점수	18.18	2.234	1.261	.233
	사후점수	17.25	2.491		
주변인 신뢰도(N=12)	사전점수	19.67	2.774	1.075	.305
	사후점수	18.92	2.539		
사회기관 신뢰도(N=12)	사전점수	9.17	1.403	1.101	.295
	사후점수	8.75	1.125		



[그림 II-3] 경제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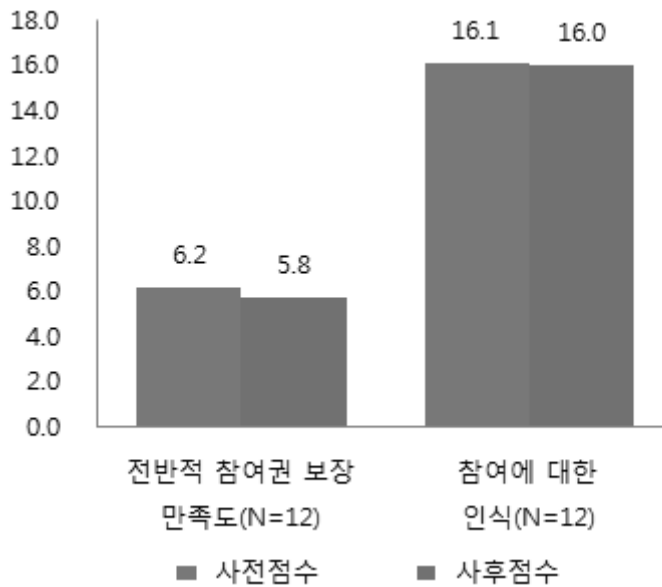
(2) 참여영역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3에 제시되 바와 같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의 문제와 관련해 참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6.17점, 참여 후 점수는 5.7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권리 인식이 및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참여에 대한 인식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6.08점, 참여 후 점수는 16.00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참여영역 지표의 점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 < .05$).

표 II-13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 (N=12)	사전점수	6.17	2.038	.613	.552
	사후점수	5.75	1.288		
참여에 대한 인식(N=12)	사전점수	16.08	2.429	.121	.906
	사후점수	16.00	2.923		



[그림 II-4] 경제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3) 경제영역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4에 제시되 바와 같다.

전반적인 가정형편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 점수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6.50점, 참여 후 점수는 평균 6.33점으로 점수가 다소 낮아졌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표 II-14 경제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N=12)	사전점수	6.50	2.067	.411	.689
	사후점수	6.33	1.723		

4) 참여영역사업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1) 관계영역

참여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5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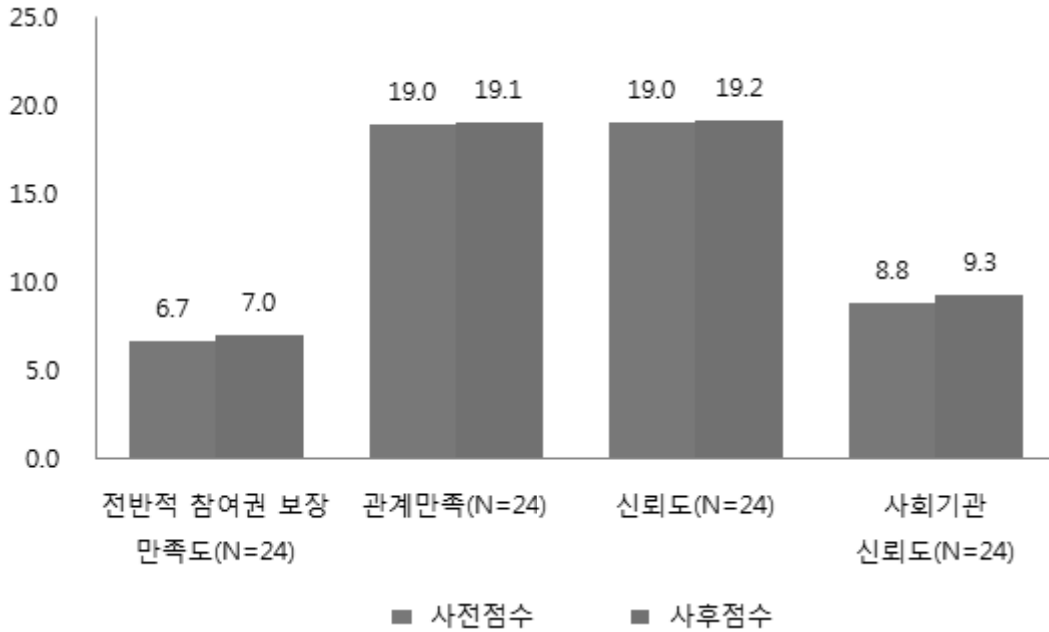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인간관계 관계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6.67점, 참여 후 점수는 7.0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보호자, 친구, 선생님, 이웃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관계만족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9.00점, 참여 후 점수는 19.13점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등 6개 항목에 대한 신뢰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9.04점, 참여 후 점수는 19.17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사회기관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는 8.79점이었으며, 참여 후 점수는 9.25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관계영역 지표의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점수가 높아졌지만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다($p < .05$).

표 II-15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N=24)	사전점수	6.67	1.993	-1.000	.328
	사후점수	7.00	1.694		
주변인 관계만족(N=24)	사전점수	19.00	1.285	-.309	.760
	사후점수	19.13	2.365		
주변인 신뢰도(N=24)	사전점수	19.04	2.926	-.154	.879
	사후점수	19.17	4.018		
사회기관 신뢰도(N=24)	사전점수	8.79	1.841	-1.391	.178
	사후점수	9.25	1.726		



[그림 II-5] 참여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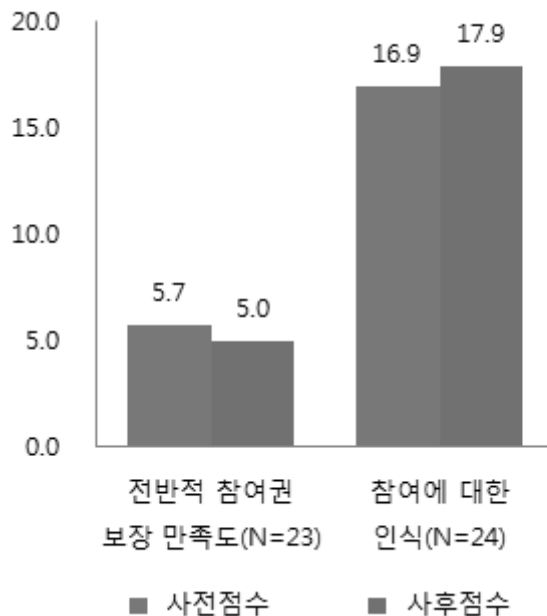
(2) 참여영역

참여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6에 제시되 바와 같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의 문제와 관련해 참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5.74점, 참여 후 점수는 5.00점으로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권리 인식이 및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참여에 대한 인식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6.92점, 참여 후 점수는 17.92점으로 1점 정도 높아졌다. 하지만 각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표 II-16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 (N=23)	사전점수	5.74	2.115	1.515	.144
	사후점수	5.00	1.907		
참여에 대한 인식(N=24)	사전점수	16.92	3.412	-1.218	.236
	사후점수	17.92	3.202		



[그림 II-6] 참여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3) 경제영역

참여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7에 제시되 바와 같다.

전반적인 가정형편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 점수는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동일하게 평균 6.70점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없었다.

표 II-17 참여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N=23)	사전점수	6.70	2.285	.000	1.000
	사후점수	6.70	1.743		

5) 관계영역사업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효과 분석

(1) 관계영역

관계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8에 제시되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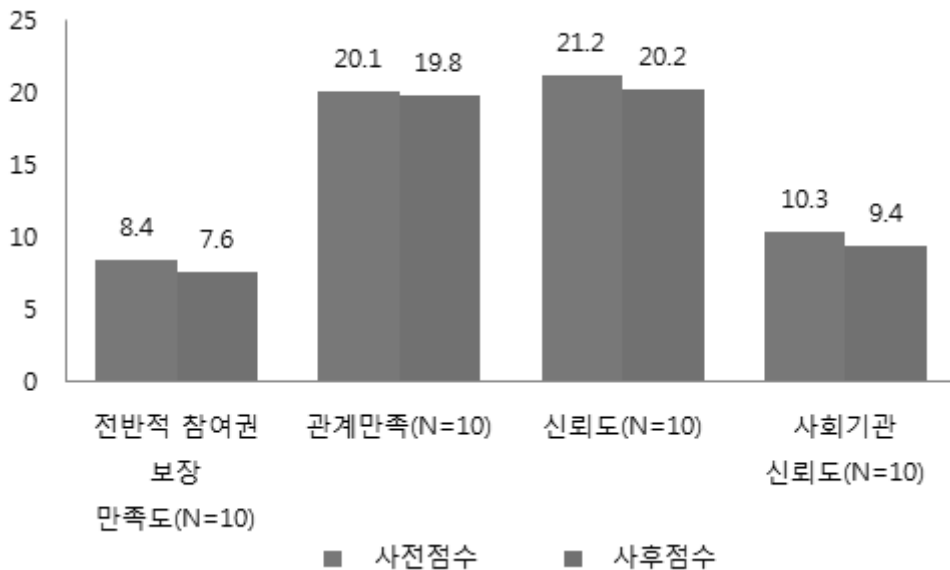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관계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8.40점, 참여 후 점수는 7.6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보호자, 친구, 선생님, 이웃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관계만족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20.10점, 참여 후 점수는 19.8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등 6개 항목에 대한 신뢰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21.20점, 참여 후 점수는 20.20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사회기관 신뢰도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는 10.30점이었으며, 참여 후 점수는 9.40점으로 나타났다.

관계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관계영역 지표 중 전반적 관계만족도의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II-18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관계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관계만족도(N=10)	사전점수	8.40	1.647	1.124	.290
	사후점수	7.60	1.776		
관계만족(N=10)	사전점수	20.10	2.807	.373	.718
	사후점수	19.80	4.158		
신뢰도(N=10)	사전점수	21.20	3.048	1.048	.322
	사후점수	20.20	4.517		
사회기관 신뢰도(N=10)	사전점수	10.30	1.160	.826	.430
	사후점수	9.40	2.989		



[그림 II-7] 관계영역 참가자의 관계만족도 및 관계 향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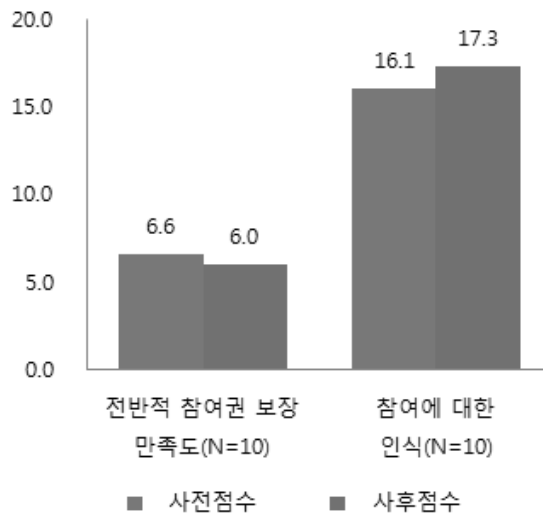
(2) 참여영역

관계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19에 제시되 바와 같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의 문제와 관련해 참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는 평균 6.60점, 참여 후 점수는 6.0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권리 인식이 및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참여에 대한 인식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는 16.06점, 참여 후 점수는 17.30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 점수는 낮아진 반면, 참여에 대한 인식 점수는 다소 높아졌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표 II-19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참여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참여권 보장 만족도 (N=10)	사전점수	6.60	1.955	.818	.434
	사후점수	6.00	2.449		
참여에 대한 인식(N=10)	사전점수	16.06	2.011	-.708	.497
	사후점수	17.30	3.622		



[그림 II-8] 관계영역 참가자의 참여권보장 및 참여 인식 향상 효과

(3) 경제영역

관계영역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영역 지표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20에 제시되 바와 같다.

전반적인 가정형편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 점수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7.33점, 참여 후 점수는 평균 6.67점으로 점수가 다소 낮아졌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II-20 관계영역사업 참여자의 경제영역지표 평균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가정경제 만족도(N=9)	사전점수	7.33	2.000	1.512	.169
	사후점수	6.67	1.803		

6) 결론 및 시사점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 추진 과정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향상 정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계사업에 반영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역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영역 참가자(N=12)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는 사전 점수(M=6.83)에 비해 사후점수(6.92)가 미미한 수준이 상승하였다. 반면 신뢰영역으로 자기주변(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이웃)과 사회기관(지역사회 기관 및 지방 및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오히려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제영역 참가자들의 학교,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의 참여권과 권리에 관한 인식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M=16.8), 참여 후 점수(M=16.0)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 참가자(N=24)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 사전 점수(M=6.67)에 비해 사후점수(7.00)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영역에서도 경제영역과는 다르게 자기주변(사전:M=19.04/ 사후:M=19.13)과 사회기관(사전:M=8.79/ 사후:M=9.25)에

대한 신뢰도가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에 대한 인식도 사전(M=16.92)에 비해 사후(M=17.92) 점수가 1점정도 높아 졌으나, 각 각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영역 프로그램(청소년옴부즈퍼슨, 기자학교: 암행어사출두야)활동을 통해 자기주변과 사회기관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영역 참가자(N=23)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사전:M=8.40/사후:M=7.60)와 자기주변(사전:M=21.20/사후:M=20.20)과 사회기관(사전:M=10.30/사후:M=9.40)신뢰도는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미미한 차이지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금년도 시범사업에서 관계영역(청소년가족,어르신, 노인과의 교류:공감브릿지)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청소년과 어른(부모)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장애요인도 잠재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 평균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간의 향상 혹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몇 개의 항목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는 아직 청소년 참가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자체가 최초의 시도인 만큼 체계적인 구조화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단 기간의 시범사업 참여와 단편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전국 단위로 표준화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로 효과를 연계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각 영역별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의 해당 영역에 관한 사후 조사결과가 사전조사보다 평균점수가 미미한 정도 낮게 응답한 점이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갑작스러운 생활패턴의 변화를 포함하여 부모의 반대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교육과 활동과정에서 행복한 생활의 의미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도 시범사업 추진과 효과분석 과정의 미흡한 점과 시행착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각 사업 영역별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6. 시범사업 운영과 효과분석에 따른 종합 제언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3개 영역으로 경제영역 시범사업(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참여영역 시범사업(청소년 옴부즈맨, 기자학교 : 암행어사⁴⁾ 출두야!), 관계영역 시범사업(청소년-가족, 노인과의 교류 : 공감 브릿지)이다. 금년도 제1차 시범사업 운영 과정과 참가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종합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경제영역

청소년기에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용경제와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경제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경제활동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우리동네청소년CEO’를 조직하여 신용경제 아카데미,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상품 판매 기획, 선진적 견학, 상품 생산, 프리마켓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사업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 1)-1: 프리마켓 운영의 주체는 청소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 청소년자치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

프리마켓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팀별로 수행하는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프리마켓 등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가급적

4)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하던 임시 관리로서(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옴부즈맨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 라는 명칭을 사용

조직적 활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신용경제활동 조직을 기반으로 프리마켓, 상품구입, 판매, 마케팅 등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어야 한다. 본 활동 중에도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판매에만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나뉘지기도 하고, 팀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가급적 청소년지도자는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청소년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관계와 공간을 설계하고 조직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정책 제언 1)~2: 프리마켓 운영에 따른 기존의 전문화된 공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청소년자치조직 활동과는 다르게 프리마켓의 경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실천적 활동임으로, 학문적인 배경 혹은 관련 매체를 통한 자료조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지역적 특성⁵⁾ 참여 청소년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청소년 및 실무자는 이미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프리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운영방식 및 홍보방법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 제언 1)~3: 프리마켓 운영에 참여할 청소년들의 모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학사일정에 따라 학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종교 활동 등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프리마켓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청소년의 요청이 있을 시 기술적인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싶거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프리마켓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개념, 나눔의 이해 및 실천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5) 군산은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활동의 활성화로 다양한 프리마켓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례적인 교육계획과 함께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제언 1)-4: 프리마켓 상설 운영에 따른 입지와 야외 활동 장소를 면밀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기존 프리마켓과의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상설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소비자의 유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홍보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프리마켓의 입지선택이 큰 영향을 끼친다. 프리마켓,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리마켓 문화의 대중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기존 프리마켓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프리마켓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점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프리마켓 한곳과 지역의 상가번영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프리마켓 두 곳, 예술가라는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트마켓 한곳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기반이 넓지 않은 지역사회의 특징상 이들 기존 프리마켓과 청소년 프리마켓과의 경쟁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 프리마켓은 기존 프리마켓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케팅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성 개선을 위하여 기성 프리마켓과의 경쟁보다는 청소년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 제언 1)-5: 청소년 프리마켓의 운영기획, 물품제작, 판매의 역할을 체계화해야 한다.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은 크게 프리마켓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운영자와 직접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참여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 판매자, 프리마켓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운영자와 판매자는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지며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노력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자의 경우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판매자를 모집하고 프리마켓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경우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위한 제반준비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청소년이 운영자의 역할과 판매자의 역할을 모두 동시에 담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프리마켓을 처음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각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을 구분하거나, 일부 역할의 경우 실무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2) 참여영역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 현안에 얼마만큼이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참여의 지지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움부즈퍼슨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사작성 및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참여포럼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론화 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참여 활동이 지역전반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본 움부즈퍼슨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참여, 지역을 바꿉니다.’는 본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관계 활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들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더불어 지역 일간지(신문사)와 MOU체결을 통하여 신문의 한 면을 얻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움부즈퍼슨 청소년조직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활동시간 조율과 역할 부담의 과중함 등으로 사업이 늦추어 지는 등 몇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는 향후 활동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청소년사회참여 아카데미, 위촉식, 지역사회 조사활동,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활동이 전국적인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사회참여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 2)-1: 참여자 모집 시 학교 내 사회참여와 관련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중 모집하여, 사전 활동설명회를 통해 참여할 소년들에게 본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내 사회참여 및 언론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일반 참여 청소년들과의 활동의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활동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언론이나 사회참여활동 관련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교육하였다. 참가 청소년들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초기 사회참여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방하여,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2)-2: 청소년간의 관계와 청소년과 지도자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범사업 운영 시 팀별체제로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전체 참여 청소년에 대한 라포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간 어색함을 보이거나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다. 옴부즈맨 초기 청소년조직을 할 때 활동의 내용 이전에 청소년들 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다. 팀별 활동을 할 때에도 팀 간 자연스러운 연계활동도 요구된다. 더불어 중요한 관계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대상으로서 역할과 사업이 있을 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Route)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열어 두어야 한다.

정책 제언 2)-3: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 간의 임원진 사전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및 안건등을 도출하는 회의를 기반으로, 책임감 등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중심의 참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사회 조사활동, 기사 및 지역 청소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청소년임원진과의 사전 회의와 다양한 관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주제를 정하여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주도의 활동이 되도록 가급적 임원진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팀별 활동 시에 미리 구성된 임원진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책 제언 2)-4: 담당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조사활동 후 본 옴부즈맨은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대안을 알리기 위해 기사 글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다. 기사초안-문맥점검-오타검열-기사최종 등의 단계를 구성하여 자체 피드백하고 후에 내용을 전문가 혹은 멘토에게 자문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 참여활동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정적인 활동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활동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가 하나씩 받아들여짐에 따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질 수 있다.

정책 제언 2)-5: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다양한 청소년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이 요구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현재 조례 작업 중),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에 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조직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체 기구의 대표성을 갖기는 현재까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활동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2)-6: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례등으로 제도 및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기적인 활동으로 제안이 아닌 본 시범 사업과 같이 일 년의 체계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시범 사업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 참여, 관계 세 가지 영역에 집중했으며 활동에 따른 목표에 집중했다.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어 가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다만 청소년참여활동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실제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했던 우리동네청소년CEO 청소년들이 경제 분야에 제안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최종 청소년포럼에서 7가지 영역별 활동의 본 사업의 움부즈맨 활동 중심으로 본 관계, 경제 영역의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주도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3) 관계영역

관계영역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인 ‘하고픈 가봉(하고 싶은 가족봉사)’과 부모님의 직업을 다큐로 제작하는 ‘잡다큐’, 청소년과 부모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부자회담(부모와 자녀의 비정상회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인 ‘할매힐러’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노인세대, 부모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다.

잡다큐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 진로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진로 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부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할매힐러는 노인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하였다.

사업 진행 중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청소년과 부모 참가자의 모집, 노인세대와 소통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본 활동의 긍정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3)-1: 참여자 범위를 확장하고 년 초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가자 모집 중에 하고픈 가봉, 잡다큐, 부자회담 모두 부모님과 청소년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 또는 청소년 중 한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목표는 세대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와 자녀사이가 좋지 않거나 회복을 돕는 가족을 선별하고자 했으나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집 오리엔테이션을 부모세대만 몇 차례 소수 설명하고 안내해도 나중에 자녀인 청소년이 반대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한다고 하면 부모세대가 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세대, 부모세대를 따로 모집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부모, 참여하는 부모의 청소년자녀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를 년 초부터 학기 초까지 진행하여 1학기 와 여름방학에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기간 확보와 모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제언 3)-2: 청소년과 노인세대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초기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하고픈 가봉(세대 간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서 실무자가 첫 만남에 개입한 가정의 경우 개입하지 않은 가정보다 친밀감이 훨씬 높아졌으므로, 최대한 초반의 만남에 실무자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건 상 실무자 없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는 라포를 형성할 구체적인 방안을 워크숍이나 캠프의 형태로 부모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접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중간 부모세대의 조력이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통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메뉴얼북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초기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의 상황이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태도로 어르신들이 관계가 소원하기도 하였다. 중간 세대인 기성세대가 봉사로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태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본 활동의 성공적인 지점은 초기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정책 제언 3)-3: 실무자와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사전조사부터 활동 중간 연락과 만남을 통해 청소년, 부모세대, 노인세대의 어려움들과 욕구를 파악하여 조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인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연계된 지역기관 실무자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각각의 주체가 활동 시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인 연락망과 지원이 요구된다. “할매힐러”의 경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움부즈 퍼슨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자료조사활동, 취재활동, 설문조사활동, 통계분석 등을 배우며 진행하였으므로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활동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제언 3)-4: 영상촬영 등 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잡다큐의 경우 첫 만남에서 실무자가 동행하여 활동에 대한 소개, 개인적인 교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단지 한번 인터뷰만 하는 것을 넘어 2회 이상 만날 수 있도록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성인)를 대상으로 촬영해야 하는데 촬영구도에 대해 막막해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촬영에 대한 시나리오 구상을 철저히 하고 점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상 촬영에서 각자가 편안해지는 인터뷰 환경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자는 청소년들이 쉽게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제언 3)-5: 부자회담과 같이 세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세대 간의 실제 고민을 도출하고 정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부자회담에 참여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몰입도가 좋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모세대와 청소년세대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세대, 또는 실무진이 준비한 토론 가능한 내용을 선정한 뒤 사전에 발표내용을 준비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활동보다는 가급적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다른 주제로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반드시 청소년과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청소년과 부모세대 어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쉬운 용어로 설명,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끌어내도록 시간을 두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3)-6: 잡다큐와 같이 부모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도록 진로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군의 어른을 소개받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각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인터뷰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준비하는 진로센터 등과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해 보인다. 운영하는 기관의 지역사회 전문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제언 3)-7: 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지지체계가 있어야 하며 주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과 노인의 만남,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만남 등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기관과 연령대별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세대 간 관계의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자신의 부모관계 등에서의 어려움을 타인이 알거나 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활동의 모집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일반적인 일임을 알리고, 긍정적으로 관계할 것을 권하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본 자료를 위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제 Ⅲ 장

국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도출

1. 국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유사 사례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제 III 장 국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도출*

1. 국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유사 사례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위주의 경제발전을 꾸준히 추구해온 결과 어느 정도 빈곤을 벗어나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비롯하여 산업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경제수준에서 커다란 간극이 생겨나기도 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물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시도의 하나로 지역단위 거주 공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메니티(amenity)⁶⁾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주도의 ‘평생학습도시’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황옥경, 김영지, 2011:25).

최근 들어서는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혹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등의 형태로 인증을 받기 위해

* 이 장은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6)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 또는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 유행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는 요소를 통틀어 일컫는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메니티이다. 최근 어메니티는 농촌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활용되면서 쾌적성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추상명사에서 쾌적함과 만족감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함축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시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어메니티는 이처럼 어느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015.7.6. 검색].

업무협약체결(MOU)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접근 중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조성근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앞으로 확대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 추진 방향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계, 국가를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지역주민 개인의 자아실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제도와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다. 둘째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역의 총체적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주민자치, 경제 활성화, 문화적 발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공동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내의 상이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학습도시 사업은 해당 지역의 행정력과 더불어 주민의 주체적 참여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학습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의식을 신장과 민주적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2015.7.2. 검색).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추진방향은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2015.7.2. 검색).

첫째, 국민 누구나 생활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확대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141.)으로 평생교육 추진체제 확대(읍·면·동 단위) 하였다. 둘째,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산재한 평생교육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체제 구축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등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하고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한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평생학습 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2) 평생학습도시 조성 근거 및 현황

현재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근거는 2008년과 2013년도에 일부 개정된 「국가평생교육진흥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5.7.2. 검색).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1999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고, 이어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은 2015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29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준비를 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2015. 7. 2. 검색).

평생학습도시의 지원 대상은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 실적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촉진 지원계획 등이 우수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 평생학습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등 사회 환원 활동으로 연계한 사업 운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개발,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박람회 개최 등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포함한다. 또한 신규 지정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화사업 개발·운영 추진을 위한 특성화 평생교육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2015. 7. 2. 검색).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생형과 이웃 공동체 형성형으로 구분되며, 경제발전 중심으로는 산업 혁신형과 학습 파트너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재생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웃 공동체 형성형은 상호학습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민정신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 시민교육형이다. 산업 혁신형은 지역 내 기업체가 주도적인 학습운동으로 산업을 혁신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파트너형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지역의 자원을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학습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2015. 7. 2. 검색).”

(3)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요인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주는 시사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지역과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는 시·군·구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학습하는 상호학습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회균등 원리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는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를 비전으로 세우고 평생학습의 메카, 번영하는 경제, 건강한 사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평생학습, ② 미래안산을 준비하는 평생학습, ③ 공단 및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④ 삶의 질을 높여주는 평생학습”이라는 과제를 도출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과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에도 적극적인 연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신아일보, 2015.3.23./네이버 2015.7.7. 검색).

평생학습사업은 지식정보화시대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학습을 통한 자신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단위에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평생학습사업을 시작했거나 주민 혹은 지도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았다. 여기에 단체장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더하여 민관이 함께 의욕적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교육사업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치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주민요구분석, 지역의 산업구조와 동원 가능한 자원분석, 주민들을 상호학습의 발표자 혹은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게 직접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평생학습도시사업 운영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이끌어갈 전담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평생교육사와 지도자를 배치하여 전담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단위 평생학습도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성공요인을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혹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사점 (4)-1: 지역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시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썽만 피우는 문제아라는 인식과 어른들로부터 지원과 혜택만 받는 수혜자라는 시각에서 이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이며 유용한 인적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가 생산만큼 유통과 판매가 중시되는 경향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SNS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매우 유익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다.

시사점 (4)-2: 평생학습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추진의지와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지방의회로부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과 통과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주도형이 있으며,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관주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시사점 (4)-3: 현재 지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대부분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 「아동복지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을 만18세 미만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청소년기본법(9-24세)」을 적용하여 대상을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연령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업과 프로그램의 대상이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지방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단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청소년분야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가와 지도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혹은 운영협의회' 등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시사업 (4)-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유사 사업 역시,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성과 꾸준히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아동·청소년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도하면서 조직을 체계화하고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직과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화될수록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예산과 행사 지원 등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별 사업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청소년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른들과 청소년들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 잔재인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관과 민, 부모와 자녀, 어른과 청소년 등과 같이 계층 혹은 세대 간의 선을 긋거나 차이를 부각시켜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수평적 통합과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모델을 실천할 때이다. 이러한 실천 기초에서 지역단위 사업을 추진한다면 프로그램 주체와 대상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2) 국내 아동·청소년 친화적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특징

앞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가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경우도 사업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먼저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조례를 제정과 인증 과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위한 논의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 등을 고찰해 보고 중앙 및 지역사회 차원 혹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앙 및 지역사회·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모형

특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이 개인적인 생활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간주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자 하려는 주체적 실천 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지역마다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공통적 관심사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이제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형분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전대욱 외(2012)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크게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누고 먼저, 정부주도형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누었으며, 민간주도형에서는 자립형, 파트너십, 거버넌스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 및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성북구, 전국 군산시, 전북 완주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의 성공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수준 뿐만 아니라 기초수준에서도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지역공동체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주상현, 2012).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와 같은 변화와 함께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Blank, et, al, 2003; 고재경 외, 2012).

우선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서비스 제공의 한계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계약이나 위탁을 통한 서비스 전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 전달의 분권화와 공동체 참여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비영리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천적으로는 사례의 구체적인 현황 속에서 드러난 성공요인 제시와 실천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간접적으로는 정책의 측면에서 현장의 필요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원네트워크 운용 현황

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개념 망으로 등장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실제 사회적 실천 혹은 운동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가져오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미래의 학교 형태에 대한 혁신적 비전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OECD, 2003).

Perkin & Borden(2006)은 학교들은 정형화된 구조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는 사회화와 배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예민한 삶의 기술과 권한을 증진되도록 작용한다고 하며,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성인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성장환경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 또한 다양하다. 청소년 육성은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즉 학교와의 연계, 학부모와의 협력, 행정기관 및 입법, 사법 기관과의 공조 등을 필요로 한다. 단일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계획된 지역사회 청소년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김정주 외, 2004).

이러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정주 외(2004)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육성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시민단체 등의 영역과 연계한 지방청소년육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은 CYS-net,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문화존 사업의 목적으로도 잘 들어나고 있다.

(1)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역사회 교육복지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관심들이 있어 왔다.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요 주제로 정책방향 및 과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네트워크의 형성과정 등을 삼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김경애, 2009)

네트워크형 교육지원체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엮여져서 통합적인 체제를 갖추어 복합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될 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는 복합적인 욕구를 그 안에서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09, 김경애) 교육복지 지원체계로서 네트워크가 갖는 강점을 인정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의 현장 사례로 서울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하 교복투 사업)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교복투 사업은 심화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및 새로운 취약계층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등을 문제시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노원지역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사업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과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점차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움직여 가는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노원구는 교복투 사업예산을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외부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역으로 흡입하면서 네트워크 역할을 키워왔다. 리더와 테스터(taster)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역 내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이 사업의 비전을 믿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어른,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먼저 실천해가면서 다른 기관과 사람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구심점으로 혹은 정신적 지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역할을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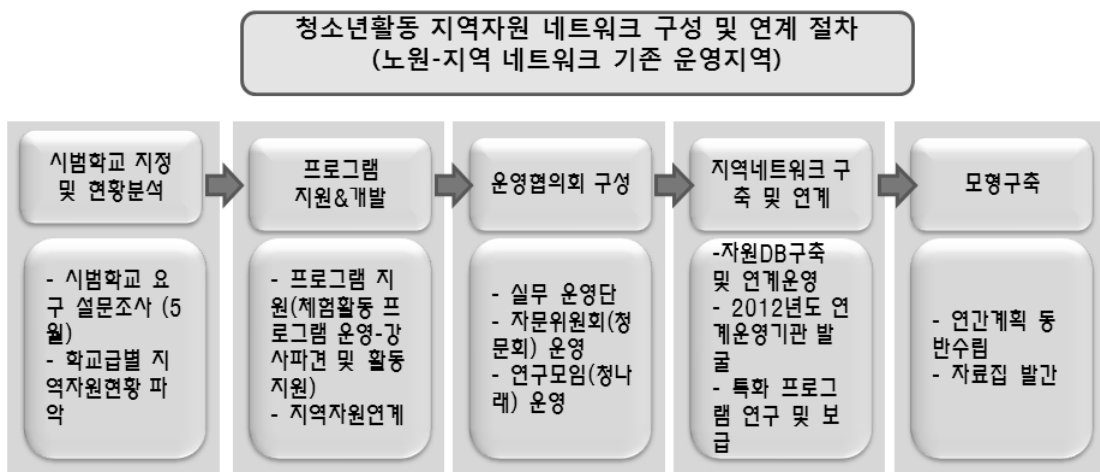
또한 온갖 형태의 공유의 장, 즉 끊임없는 만남의 기회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만남의 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뿐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사실은 네트워크 성장 과정에서 접촉은 점점 비공식적 양상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례를 볼 때, 공식적인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천가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네트워킹은 전화, 메신저, 각 종 만남에서의 대화 등 비공식적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각 조직들이 가진 기능들이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권력을 가진 지역 교육청, 전문성과 대상학생의 서식처로서의 학교, 자발성과 의욕을 가진 민간기관이 각각 사업을 움직이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여기에 지역살림을 관할하는 지자체까지 결합되면 이 사업은 더욱 탄탄한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활동에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할 때 추구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없지만 이러한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2)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지도자의 역할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도자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를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와 ‘삶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주희, 2013). 이러한 목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네트워크 구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코디기관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추진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였던 노원지역의 경우 교육복지와 관련된 지역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파악되어 있었던 지역자원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으로 전환하여 연결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실제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에 관한 사례에서 [그림 III-1]의 서울 노원지역은 시범학교 지정 및 현황분석에서 모형구축까지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이기봉·김현철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사업사업 매뉴얼

[그림 III-1]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노원지역)

이에 반해 수원지역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수원지역에서는 청소년기관, 평생학습기관, 복지관, 도서관, 관공서, 시민단체 등 수원시내 아동·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단체·기관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취합하는 등 지역자원을 발굴해 DB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창의적 체험활동 네트워크 참여 신청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 목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료집을 개발하였다.

코디기관(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은 지역사회기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으로 발굴된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지자체에 창의체험지원 해당부서와 코디기관이 연계되어,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통계를 명확하게 갖추고, 각 자원의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 있는 대학, 기업, 종교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네트워크

청소년 행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험가능성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의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 즉 가정 및 또래환경, 문화, 보건, 노동, 교육, 대중매체 등 사적·공적 영역의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된다. 즉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개개의 이익을 초월하여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의 공유 하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접근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치의 공유,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사회적 교환 및 파트너십을 통한 공유가 경쟁보다 중요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규범은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자원, 서비스, 또는 시설의 협동적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실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역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중혁, 이연, 2007).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내 모든 주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에

토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트너십에 기초한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행정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식·비공식적 지역사회 섹터를 상호협력관계로 지원 육성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 자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선정 원칙을 중심으로 -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의 개념과 배경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 라고 정의하고 있다(UNICEF, 2004). 1996년 유엔의 Human Settlements(Habitat II) 라는 학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학회는 아동의 웰빙(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주거지와 민주주적 사회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지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UNICEF, 2004).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Child-friendly Cities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한국의 아동복지법(18세 미만)에 해당되고 청소년기본법(9세 -24세)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과 중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hild가 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I)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1996년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선 지역사회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UNICEF, 2015).

-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삶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건이나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권리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 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권리
- 녹색환경을 누리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권리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한 시민이 될 권리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는 유니세프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증진,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과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공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가 도시화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최근의 청소년관련 보고서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언급하고 있다. 향후 3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청소년의 인구는 2십억 만 명에서 4십억 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빈곤 집중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간이 소외된 도시화의 추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와 서비스의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권리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UNICEF, 2004).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으며, 인류의 번영과 생존,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의 실행과 유지, 평가를 위해 2000년에 UNICEF의 Innocenti Research Centre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UNICEF는 'Framework for Action(실행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오고 있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2008년 UNICEF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8).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필요가 보다 잘 파악되고 있으며 아동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이나 정책, 법 등이 마련되고 실제로 집행 및 실행되고 있는가?
-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실태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2) 각 국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과 적용 사례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을 확립하고 친화도시를 만들어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단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9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UNICEF, 2008). 이 내용은 현재 각 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의 개념적 근거와 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서 시범사업 추진근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14년 안전영역을 추가하여 10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같은 10가지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Ⅲ-5>와 같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은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소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여 유니세프 인증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각 영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UNICEF, 2015).

표 Ⅲ-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각 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UNICEF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	해당국가	제도 및 프로그램
•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아일랜드	도시의 가능성(청소년 관점): City of possibilities(Youth viewpoints)
	영국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런던 만들기: Making London Better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률체계	호주	아동·청소년위원회법2000: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 조례: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아동·청소년협회: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UNICEF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	해당국가	제도 및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독일	뮌헨 청소년친화사업 사무국: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 아동·청소년(인권)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스위스	아동청소년의 참여 목소리: Giving Children a Voice
• 아동·청소년 예산	에콰도르	민주주의 민주화(예산공정성):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in Democratizing democracy
•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미국	시카고 상상:Imagine Chicago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이탈리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CAMINA-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
•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북아일랜드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 Derry Children's Commission
•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한국	한국청소년활동안전센터(2015년 5월 출범)

출처 : 유니세프(www.UNICEF.or.kr, 2015.7.2. 검색)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1) 아동·청소년 참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인간이자 협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 활동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진정한 개념이다(UNICEF, 2015).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모든 사안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제도 수립, 자료 구축, 정보 조직과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여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제 12조 참여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수동적이고 순종적일 것을 강조해오던 관습에서부터 탈피하여 부모, 교사, 보호자 등에게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UNICEF,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한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의 아동·청소년 참여 사례(사업명: City of possibilities: Youth viewpoints)

2002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시 이사회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ISPCC)’와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7세에서 17세에 이르는 148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더블린의 Croke 공원에 모여 더블린 시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회의 결성은 물론 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들이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서비스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이후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되었고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평가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사례는 이후 더블린 시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Dublin City Council, 2015).

결국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더블린 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10년 계획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하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가아동청소년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빈곤 타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시설 이용 촉진,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요구 충족,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강화인데 이러한 목적도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전략수립 이후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실행에 있어도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논의된 아동·청소년의 의견(여가와 놀이, 학습 환경, 교육, 안전, 보건, 사회적 생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고 있다(Dublin City Council, 2015). 즉 국가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영국 사례 (사업명: Making London Better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The 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는 2000년 3월에 발족되어 200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통해 런던시가 다른 도시를 보다 가장 먼저 아동청소년전략(Children's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아동청소년전략은 이후 런던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런던 아동·청소년전략은 0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4개 영역의 기본권(참여, 보호, 발달, 생존)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청소년 외에도 런던 시의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지역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라는 협의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Save the Children, NSPSS, The Children's Society,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and Bridge House Estates Trust Fund와 같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각각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동·청소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런던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았으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는 중이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위의 아일랜드와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업은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필요한 협의체와 위원회, 그리고 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론적 개념과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이행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란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지원법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나 제도적 근거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의 법제도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옹호활동을 해야 할 필요와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바탕을 둔 명확하고 원칙에 기초를 둔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대상의 정책과 사업은 그 가치와 실행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확립과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확립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친화도시 추진 당사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소년지도사, 공무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하는 과정과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관련된 국내법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 정책의 실행과 수립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포함되어 있다(UNICEF, 2015).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자에게 얼마나 공유되어있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 호주 사례(관련 법: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

호주의 퀸즈랜드 정부는 2000년 아동·청소년위원회운영에 관한 법(The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을 제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웰빙을 증진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동·청소년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호, 웰빙 증진
- 소년원,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 아동·청소년 쉼터 등에서의 서비스 지원과 복지 증진 관련 사업 실시
- 가족부(Department of Families)의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과 개입과정에서의 문제 사항 파악과 해결
- 아동·청소년의 특정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 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고용상태 및 제도 점검
-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연구의 수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단체와 청소년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Working With Children Kit’라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가용자원을 소개하거나 우수 사례를 공유하도록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도 하며, 2001년에는 영연방 시민 페스티벌(Commonwealth People’s Festival)에서 수렴된 청소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영연방 도시 구축의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Blueprint for a Child and Youth Friendly Commonwealth)도 출간하였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률체계의 마련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를 구축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일본 사례(조례명: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2001년 가와사키 ‘아동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인권조례는 일본이 1994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와사키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KAWASAKI City, 2015). 그 결과 2001년에는 학교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인권조례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 소개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KAWASAKI City, 2015). 가와사키시 아동인권조례 제정의 특징은 단순히 가와사키시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상태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첫 번째 국내법으로서의 의의와 함께 가와사키시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번째 법률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3)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정책을 의미한다. 유엔과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사무국은 각국이 개별 국가 수준과 상황에 맞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가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적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UNICEF, 2015).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은 지방정부나 도시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 등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청소년권리정책이란 기본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추진하되, 국가별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개별 도시나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여 지역 단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존중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중심의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천과제는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UNICEF, 2015). 결국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곧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 캐나다 사례(사업명: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년 협회(SCY: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는 1974년에 관련 기관들과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관련기관에는 아동 원조 협회(CAS: Children's Aid Society)가 있는데, 이 협회는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설립되어 아동 보건, 부모교육, 주간 보호, 장애아동 보호, 아동·청소년 환경, 아동·청소년 여가, 스포츠, 미디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2015). 이런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년 사법제도, 아동 학대 예방,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옹호활동을 펼쳐오고 있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2015).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년 협회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내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안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UNICEF, 2015). 지역정부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특징은 지역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UNICEF, 2015). 또 이러한 시스템이나 관련 권리부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전담 부서로서 구별되어 있을 때,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권리부서나 조정체계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특화된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 부처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역시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권리부서는 각각의 정부와 조직, 기구와의 사이에서 조정자 내지는 전달자 역할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즉, 관련부서나 기관이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비하여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담당 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UNICEF, 2015).

■ 독일 사례(부서명: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사무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 독일 뮌헨 시의 경우 이런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신중하게 경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뮌헨시가 이렇게 아동·청소년 친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뮌헨시가 점점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뮌헨시의 자체 판단 결과 뮌헨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덜 창의적이고 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뮌헨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가되어 현재와 같은 우수 사례가 되었다.

뮌헨시는 아동·청소년 사무국(Munich Kinderbüro :Children's Office)을 설치하여 아동과 청소년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더욱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의도하였다. 독일 내의 다른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뮌헨시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웰빙을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아동·청소년 사무국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이슈가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이고 중심적인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 배경에 아동·청소년 사무국이라는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뮌헨시는 독일 내에서 처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여 실천한 도시이자 모든 공공 정책과 제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노력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뮌헨시가 이렇게 변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의 역할이 주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와 조정체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확신을 심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는 정책이나 법의 집행 이전, 혹은 집행 중이나 종료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영향력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듯 중앙정부와 크고 작은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모든 정책과 법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평가를 통해 각각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은 물론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UNICEF, 2015).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법이 해당되지만,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나 정책은 특정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쉬운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없는지, 또한 의도하지 않게 제외된 소수의 의견이나 집단은 없는지에 관한 파악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사안은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이 사전에 그 정책이나 법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도록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 진단과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법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충돌되는 다른 정책이나 법은 없는지, 실현될 만한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성평등지수나 환경지수 같은 것들과의 조화는 이를 수 있는지 등이 사전 점검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법이 일단 실행되거나 집행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이나 진단 평가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나 독립된 인권 관련 연구소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래 의도했던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가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에 대해서도 그들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이 포함된다면 더욱 정확한 영향력 지수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UNICEF, 2015).

■ 스위스 사례(사업명 : Giving Children a Voice)

스위스 ‘아동·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Giving children a voice)’이란 사업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제12조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12,87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필요, 희망사항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진단 및 평가의 특징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책, 법률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UNICEF Switzerland, 2015).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 Basel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지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Obereggs시는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erne시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되고 있다(UNICEF Switzerland, 2015). 대부분의 평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주로 관련된 성인들, 즉 전문가들이 실시 해왔다. 반면, 스위스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했다는 측면도 매우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느냐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도 예산의 확보,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의 수립은 각 지역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또한 예산 수립의 기준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 할당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이 안에서 지방정부는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있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 수립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UNICEF, 2015).

■ 에콰도르 사례(사업명 :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in Democratizing democracy)

2001년 에콰도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초 복지사업의 지원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1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원의 할당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에콰도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보다 공정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위해 에콰도르의 전통적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체를 예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에콰도르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같은 기구들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이 사업에는 에콰도르 지방자치 연합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과 사업 모델은 전 세계 50여 개국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수립과 실행에서 사용되고 있다(Cordoba City Council, 2015).

(7)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여러 상황이 포함된 실태조사로서 관련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점이 이루어져야 하며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기존에 여러 대상으로 나뉘어 조사되던 즉, 기존 연령별, 성별, 소수인종별, 장애정도,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한 그룹별로 나뉘어 조사된 각종 통계조사나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권리 위원회가 오히려 이상의 여러 자료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개별 정부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에의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UNICEF, 2015).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은, 국가적 실태조사가 아닌, 해당하는 지역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제 인권현황과 삶의 질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는 다르다. 이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실태조사를 문서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도시 계획과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개별 국가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청소년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파트너로서 조사의 계획과 실행, 평가, 요구조사, 대안제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UNICEF, 2015).

■ 미국사례(사업명 : Imagine Chicago: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미국의 ‘시카고 상상(Imagine Chicago)’의 ‘10년 상상(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사업은 원래 6개의 대륙에서 실시된 상상 프로젝트 10주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카고 상상’은 1992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서 아동·청소년은 물론 시카고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동기부여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카고 상상’의 ‘10년 상상’ 프로젝트는 시카고내의 학교, 교회, 지역단체, 문화예술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들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 주인의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동의 비전과 가치,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내세우는 이 사업은 시카고시티의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시적인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둔다. ‘10년 상상’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Nagaland 주 전체에서 2만 명이 참가하여 Nagaland 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 현재와 미래에 걸친 대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지역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전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네팔, 싱가포르, 케이프타운, 호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시도되기도 할 만큼 현재의 실태를 바탕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Jain Shilpa Browne Bliss W., 2002)

(8)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아동·청소년의 권리공지란 해당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내용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은 개별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개발해야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나 도시가 인권의 문화를 조상하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은 수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알려져야 하며, 이것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육 이념 및 학교의 모든 운영 철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ICEF, 2015).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교사, 교직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정부의 공무원, 정치인들 역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지역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 모임, 미디어 등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관련 정보와 교육을 공유해야 한다(UNICEF, 2015).

■ 이탈리아 사례(사업명 : CAMINA - 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

이탈리아의 CAMINA(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라는 사업은 2000년에 시작되었는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성공적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와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정부간의 정보교환과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교육을 위한 실행그룹 구성이다. 이 사업은 이탈리아 전역의 시민단체들과 대학 등이 연계한 사업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을 위한 정보구축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우수사례가 되었다(Associazione Nazionale Comuni Italiani (ANCI), 2015).

(9)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옹호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인권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며, 증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국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에는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도 포함되지만,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 노조, 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생겨나는

수도 점차 많아져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찾기 위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도 모두 아동·청소년 옹호사업 지원대상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역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인권증진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은 인권 실태를 모니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 기관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역시 독립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UNICEF, 2015). 현재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옴부즈맨, 아동·청소년 인권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단체와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독립된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있어 감시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북아일랜드 사례(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 : Derry Children'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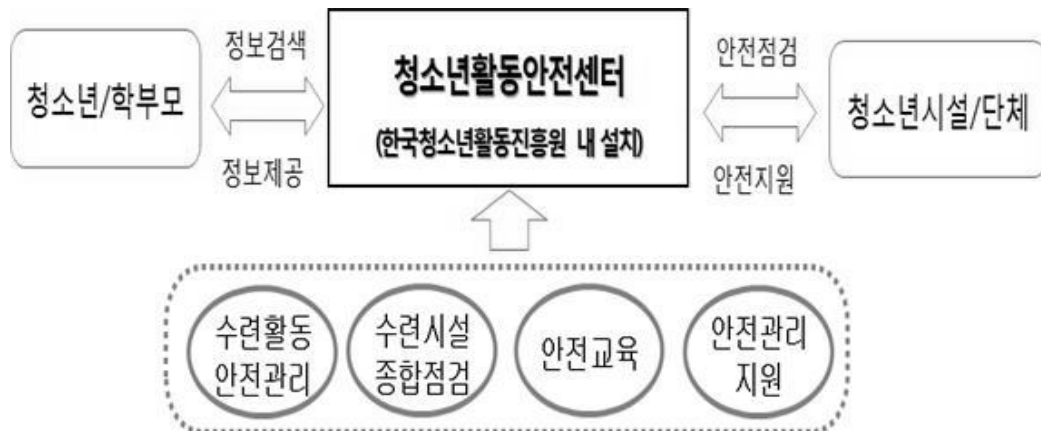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Derry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낮은 인권수준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부모, 복지주체, 정책 담당자, 자원봉사단체들의 협력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방향이자 사업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의 권리에 대해 옹호사업을 하는 것이다. 2000여건이 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한 실적도 있으며, 아동·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또한 학부모들이 Derry 시의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Derry시의 놀이 환경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Nerve Centre라는 단체와 연계하여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We've got the Right)'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알기 쉽게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홍보 비디오를 제작한 청소년들은 이후 자신들의 실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담은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2004년에는 영국의 Impetus award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Derry 시의회는 아동·청소년관

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가 아동·청소년 놀이 정책이며,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국가 간 혹은 국제관계에서 생겨나는 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04년 Derry 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옹호기구의 설립, 즉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관련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10)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 한국(청소년활동안전센터 : Youth Activity Safety Center)

한국은 2014년 7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 확대와 많은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은 인증 받도록 의무화 됐다. 인증 의무화로 인해 인증 프로그램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약 2배 정도 증가되었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됐고, 평가 결과는 모두 공개된다. 17개 시·도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수련활동 인증과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인증 등 안전을 확인한 프로그램의 정보와 시설점검 결과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토록 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안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정보를 지역·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여성가족부, 2015.4.27.).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4.27.). <http://blog.daum.net>(2015.11.12. 검색)

[그림 III-2]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체계 및 기능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그림 III-3]과 같이 이러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해 청소년과 시설 운영 자 및 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점검,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의 경우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기관이 협력한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청소년 대상 안전 캠페인, 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5.4.27.)

3) 한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유니세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인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9가지 실천 영역을 제시했으며, 각 영역에 해당되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을 중심으로 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각국의 형편에 맞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권리와 내용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구축을 위한 시작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의 미와 필요성 등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9가지 영역 전반을 활성화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화도시 구축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각급 청소년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운영 위원회와 학교의 각종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같은 전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보다 경제논리나 또는 어른들의 관점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빈번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의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존중과 파트너십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소개되어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혹은 청소년시설에서 조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가 게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지도사나 관련 학계에 아동·청소년인권 전문가와 옹호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그 가치와 이념이 지향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과 전문가의 양성이 전제될 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원칙에 대한 한국화 전략이다.

한국에서 가령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이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행복마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설물과

건축, 안전에 관한 기준과 관련법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과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 지역중심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식 있는 예산 분배와 인권 존중의 자세가 함께 요구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관련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무 행정 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 순환보직이 아니라 관련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같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팀이나 지원팀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행보고서를 포함하여 지자체나 시민단체, 청소년시설이 인권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벌제도의 도입도 한 가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예상하는 대로 급속한 산업화는 점차 사회양극화와 도시빈민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만 해당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청소년이 갖는 생득적 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작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물론 아동·청소년 친화국가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I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1. 추진전략 개발 절차와 접근원리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실행체계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 로드맵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역별 실천과제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실태와 개선 방안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 방안

제 I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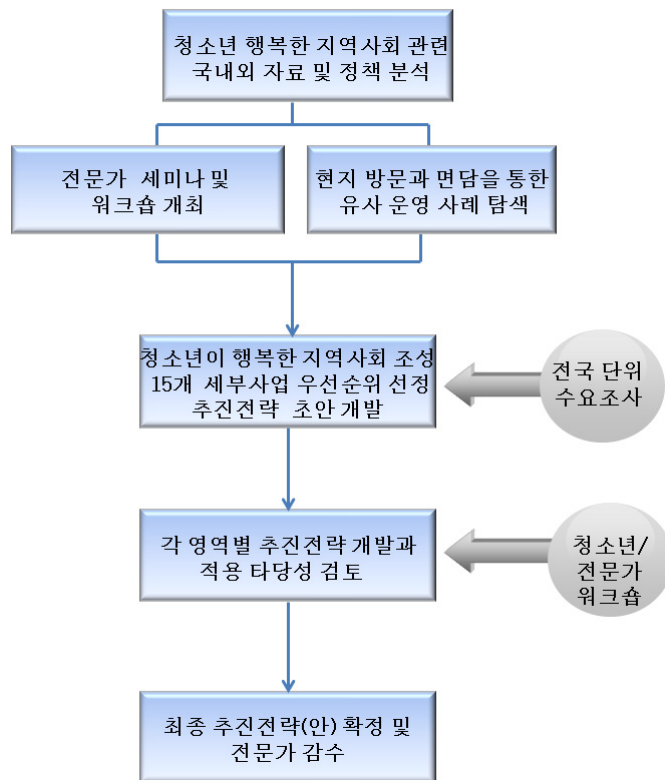
1. 추진전략 개발 절차와 접근원리

1)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이하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 칭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협약내용 및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과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 추진 방향, 그리고 사업의 범위와 영역 구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세부 프로그램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추진전략 개발 내용과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그림 IV-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추진전략 개발에 앞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같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과 추진 의도 및 절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행복도시의 추진전략의 원칙, 추진전략 기획과 시행 시 고려사항, 주요 개발 영역과 세부 실천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 이 장의 1절과 3절은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절과 4절은 박주현오해섭(대구가톨릭대학교), 5절은 김주희박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절은 김세광(고신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이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포럼(2015.7.22.)에서 1차로 발표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본원의 연구진(오해섭)이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둠.



[그림 IV-1]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전략 개발 과정

둘째,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이해가 깊은 교수, 현장 관계자, 기초의회 의원, 행정담당자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15년 7월 22일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연차 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초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8월 27-28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공무원, 2015년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6명, 연구진 등 11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수행 타당성이 높은 7개 영역 총 15개 사업에 대한 전국의 ‘2015년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6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15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방안을 개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접근원리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은 이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지도, 보호, 규제, 간섭, 통제, 그리고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 수동적 참여 및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활동은 어른들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당연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부모 혹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이 사회의 주체 혹은 시민이라는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청소년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접근원리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어른들이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참여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은 지리적 영역, 주민 간 유대감 및 상호작용, 행정단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일반화 된 정의로 볼 수 있다. 산업화의 가속화와 함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단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마을 단위의 행정구역이 붕괴되고 급기야는 읍면단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그 파장이 중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를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이 갖추어진 실질적인 삶의 정주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과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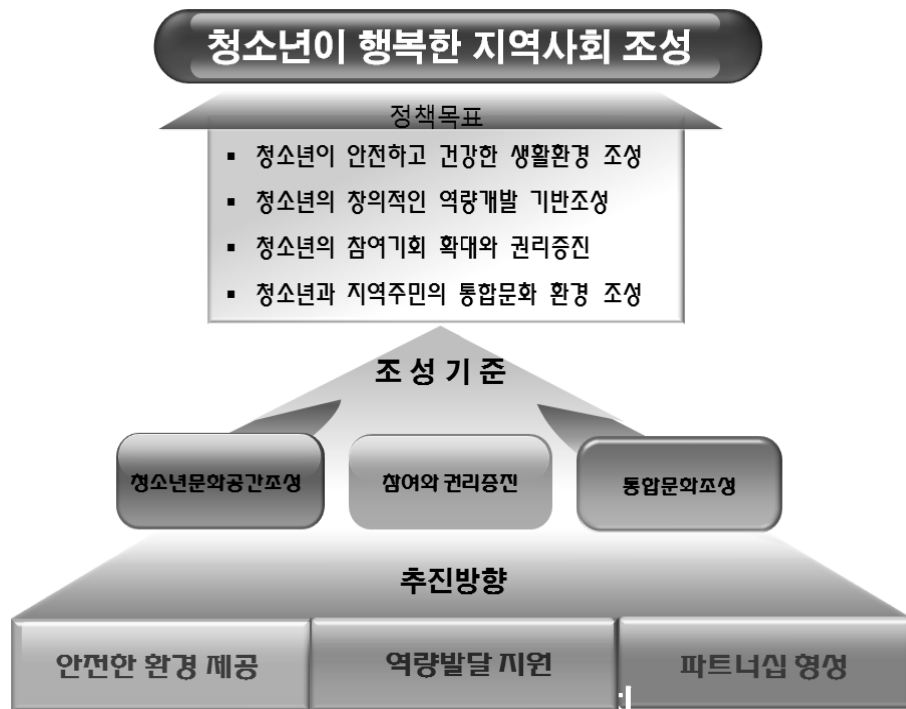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현재의 주인공이자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갈수록 경제적 문제와 이혼과 같은 사회문제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린 자녀들이 보육시설이나 농촌지역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실행체계

1) 목표 및 추진방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문화 공간 조성 및 참여와 권리증진 기회 확대 등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문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들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지경 외, 2014: 38). 7개 세부사업추진 영역 중 금년도 시범사업에 서는 3개 영역, 경제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관계영역(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조성 기준으로 [그림 IV-2]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출처: 황옥경,김영지(2011). 청소년 진화마을 조성방안연구: 청소년 진화마을 실행체계. P.97 재구성

[그림 IV-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행체계

(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을 통한 경제활동체험 공간 조성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와 금융의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금융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성인이 된 후 자신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한 대출 증가는 개인적인 부담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이해는 성인기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금융과 경제, 더 나아가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금융과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위기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영한 외, 2014: 169).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경제관념과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②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③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게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④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여 청소년 모집 ⑤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⑥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⑦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된다.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남정, 2010: 16). 최근 유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의제로 ‘청소년 참여’가 채택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UN(1989) 제12조 제1항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상희, 이해원, 최경옥, 2009: 130).

청소년에게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사회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 사회관형성, 시민참여, 사회참여 실천의 시발점이 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김영한 외, 2014: 248).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②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회와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③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문화·안전·교육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진행함 ④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조례 등의)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문화 조성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SNS 활성화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1인 가족사회, 성장세대 인구연령 감소사회 등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세대 간 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김영한 외, 2014: 223-226).

그리고 학업, 직장 및 가사 일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은 ①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②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③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회 ④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⑤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⑥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요리실습, 춤 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이다.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과 통계적 구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다양한 도시가 출현하고 산업구조 역시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되어 이러한 지표들이 지역 구분의 객관성을 갖는지는 다소 의문 시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구분의

기준은 인구통계에 의한 통계청의 예를 따르든지 행정자치부의 구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지역의 인구밀도와 산업구조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혀주면 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7개의 특·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 등 17개 시도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 번 연구에서 인구규모와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지역형태를 구분하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의상 2012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제시한 “지역생활권을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농산어촌생활권으로 구분(전북도민일보, 2012-10-28)”의 내용을 근거로 3개 생활권을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그리고 농산어촌생활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공통적인 사안이 있으며, 또한 각 각이 우선시 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규모에 따른 요건은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련기관의 운영 점검 및 설립, 그리고 프로그램 신성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황옥경·김영지(2011)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전체의 공통사항과 지역별 특수 사항<표VI-1>과 같이 구분하여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 공통사항

-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의 확보
-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지원
- 청소년 인권 옹호 기구 설치
-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 보장

표 IV-1 지역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수 사항⁷⁾

지역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농산어촌생활권
인프라 구성내용	- 안전먹거리 장소 확대 - 건강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녹지 공간 확보 - 유해업소의 최소화 - 교통안전 시설 정비 - 지역사회 재능 나눔 확대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으로 조성	-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 배치 확대 - 녹지 공간 확보 - 마을 주민 안전보호 네트워크 강화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으로 조성	-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확보 - 공공 도서관 확보 - 청소년 전용시설 확대 -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 로드맵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절차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정의는 국제기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과 국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규정을 포괄하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와 협의의 거친 사안이다. 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권고(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과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주요 내용과 협약사항, 그리고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에 대한 반영의 범위와 정도를 검토한다.

7) www.UNICEF.or.kr (검색: 2015.07.02)

둘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특강, 정책 토론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규모를 감안한 전담부서 설치 가능성 검토, 연계 협력이 가능한 행정체계 및 관내 기관의 참여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T/F팀과 지방의회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를 논의하여 일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 각 영역별 우선순위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수립, 실행, 평가와 같은 추진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 대표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과정 및 추진 현황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혹은 ‘어린이행복도시’는 전체적인 틀과 추진 내용을 유사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진 주체와 대상, 그리고 용어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진 주체는 행정기관주도형, 중간조직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관 수평적 협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운영방식은 V장의 정책제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네트워크 운용 사례에서 보다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인증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2015년 9월 14일 출범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완료된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인증 심의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였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네이버 웹문서, 2015.9.17. 검색).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단계별 추진전략 개발, 더불어 주요 사업 영역별 단위사업 개발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그림 IV-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상임대표, 공동대표, 청소년 대표 ■ 분과 : 교육분과, 활동분과, 참여분과, 시설분과 ■ 운영 : 실행위원회, 운영 사무국 ■ 활동 : 정책의제 개발 및 제안,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홍보 정책의제 선정 및 발표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운영 로드맵 작성 ■ 아동·청소년 친화지표 개발 ■ 세부 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개발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체결 (현황)	■ ‘어린이·청소년 권리조례’ 제정(서울특별시, 2012) ■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서울시 성북구, 2011),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2013. 11.) ■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제정(서울시 노원구/강북구, 2012) ■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제정(서울시 동작구, 2013) ■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 발의(경기도 성남시 의회, 2014)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국 군산시 2015. 2.) ■ ‘농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인증 추진(전북완주군, 2015. 1.)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광주광역시, 2015. 4.)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부산시 금정구 2015. 6. 1.)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5. 8. 23. - 9. 13.)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결성(광주광역시남구, 2015. 6.)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 도봉구 2015. 6. 29.)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 통과(부산사하구, 2015. 6. 30.)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송파구 2015. 7. 31.)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북 영주시 2015. 9. 1.)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오산시 2015. 9. 18.)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전국 27개 지자체, 2015. 9.14.) ■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남 광양시 2015. 9. 24.)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전략 개발**

- 아동과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 및 권한 부여
- 아동 및 청소년-지역 주민(어른) 간 파트너십 형성
- 지역주민,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및 자원 확보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단위사업 개발
및 시행**

- 경제영역: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창업동아리, 청소년일자리은행
- 건강(복지)영역: 청소년건강인증제, 취약계층 및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 안전영역: 청소년 안전교육 이수, 청소년안전존 조성
- 교육영역: 청소년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청소년 권장도서 보급
- 활동영역: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역사회 동아리 활성화
- 참여(권리)영역: 청소년옴부즈맨, 청소년참여예산제
- 관계영역: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그림 IV-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과정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역별 실천과제

1)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사회적이고 교육적 작용을 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 의미 있는 장이다(박종화, 2007). 특히 청소년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족 구조가 갈수록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 등의 교육적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전인적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준상, 2005).

장근영 외(2013: 3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 환경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만족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되는 행복은 정적인 것이 아닌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허승연, 2009 재인용;

권세원 외, 2012: 62).

결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태어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개인의 자아실현, 역량개발, 그리고 안전한 성장체계 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환경을 만드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볼 수 있다(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159).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살피며,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빈곤,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 등 도시를 비롯하여 지역의 환경이 갈수록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혼잡, 환경오염, 녹지공간의 축소, 놀이 공간 부족, 지역사회 이웃 간의 무관심 등이 증폭되고 있다(정건희, 2013).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위협은 매우 위험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들 또한 지역사회 환경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승애, 이재연, 2011; 정건희, 2013 재인용).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도시의 슬럼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착취,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제거, 유해환경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조치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의 확산과 사회통합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성,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

미래사회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역량을 갖춘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경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적 인식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래의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젊은 층의 창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예상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창의성 개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start-up)을 시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후견인 연계와 멘토링을 통한 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오혜섭, 맹영임, 2014). 우리 정부도 금년도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각 산업분야의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각자가 지역의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마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의 수요분석과 함께 각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발달의 주요 기제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학습을 통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발휘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성이 높은 현안이다.

(3)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성장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Hart, 1997). 또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Thomas, 2007; 천정웅 외, 2011: 311 재인용). 지역사회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어른들의 주도로 참아주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기자단이나 옴브즈퍼슨과 같은 독립적 대변인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의 참여는 지역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실천을 통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의 다른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경우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청소년의 친화적 지역 환경 정비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취약한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Bradley and Corwyn, 2002),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Chase-Lansdale and Gordon, 1997) 잘 알려져 있다(황옥경 외, 2011: 93 재인용).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 교통, 음식의 안전 등과 같은 필수요소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녹색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각 종 오염원을 정비하고 차 없는 거리조성 등을 통해 깨끗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소년과 지역 주민(어른)간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친밀한 돌봄관계를 발달시키고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의 구축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토대위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참여와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과 가족 혹은 지역주민들 간의 세대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틀을 다지려는 노력도 중요한 방향이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요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 요건은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중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예산확보, 청소년 실태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근거하여 다음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기본원칙의 핵심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황옥경·김영지, 2011: 98-102)”를 참조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1) 청소년의 참여 인프라 구축 및 활동기회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가 아동의 참여이다. 여기에서 아동의 참여란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묻고 고려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념을 청소년에 적용하면 청소년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및 국가의 이슈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시민적인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서 청소년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이들을 협력자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정부의 정보공개를 포함하여 조직 및 회의에 참석 기회를 단순히 이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참여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방법의 다각화, 토론과 자문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타이밍(timing) 및 의제의 변화를 포괄한다.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견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는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및 여러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견해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특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활동과 권리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국제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의 원칙과 조항에 근거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가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은 각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3)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설치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 반영하여 이들의 활동과 참여를 책임질 조직이 제도적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인과 여성과 같이 중요한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영향력 있는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 산하에 독립적인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접근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의견조율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 전담부서와 조정메커니즘은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수행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담당공무원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행정부서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민간 사무국을 설치하여 정책실행을 총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및 영향평가 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그리고 권리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예산분배의 내용과 양은 각 지역정부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며, 지역정부는 예산 배분이 공평한지, 자원의 활용에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 “청소년육성기금의 민자 유치 및 신규재원 발굴 등 청소년 재원 확충과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단체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태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 에콰도르의 경우 청소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다양한 주체를 예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도 있다.

한편,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를 권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그룹 혹은 연령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도 역시 우리나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① 청소년정책 영향 평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청소년정책인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측정,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청소년 연령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③ 지자체에 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및 청소년영향평가단 설치, 관련 조례제정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진행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정책적인 실행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영향평가는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다. 각 지역의 법이 실행되고 나면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5) 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각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자료로 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별, 다문화 청소년, 장애 아동, 취약계층 등의 그룹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행복한 지역사회로 조성하기 위한 욕구조사에서부터 해결책 제안 및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권리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측정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수집된 통계와 정보는 분석과정을 거쳐 보고서로 출판하여 배포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초자료와 굳건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 청소년들과 대조적인 수치로 낮게 나타났다(김기현 외, 2009). 이는 핵가족화와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장근영 외, 2013). 이처럼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발달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장근영 외, 2013: 2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목표 및 기본방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실천을 핵심가치로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다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유익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실태와 개선 방안

1) 네트워크 구축의 시의성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의견 표현과 참여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성장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준비에도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 활동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사관계와 또래관계를 촉진시키고, 가정과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에 애착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익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Youniss & Yates, 1999)이 될 수 있는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의 한 영역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소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하여 주민자치 조직 형태의 청소년친화마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적용하여 행정기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공간 계획이나 청소년친화마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인구의 점차적인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실현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 또래 그룹 내에서의 결정 사항에 의견 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 나아가 공동체 활동에 참가 등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관점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을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과 자유로운 역량 개발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네트워크 사례 분석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 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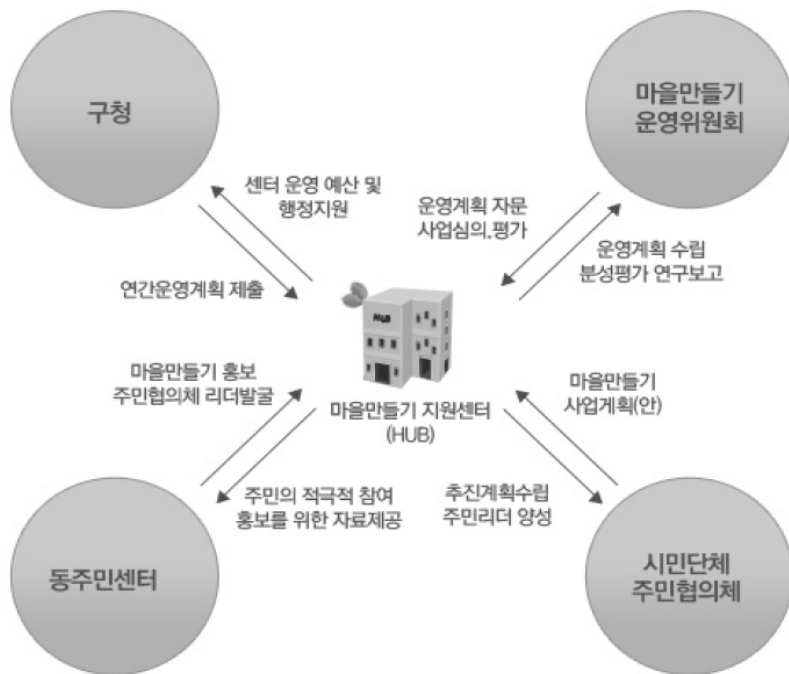
네 가지는 유형은 구체적으로 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네트워크 협력 추진체계(서울시 성북구), ②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광주광역시), ③ 행정과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전북 군산시), ④ 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전북완주군)등 이다.

(1) 서울시 성북구(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서울시는 최근 들어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면서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세우고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실태조사 및 역량 구축, 마을공동체 공모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3). 서울시는 이 사업의 역량 있는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과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 중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금천구와 성북구를 꼽을 수 있으며, 성북구는 2011년 (사) 나눔과 미래에 위탁운영을 맡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성북구는 [그림Ⅳ-4]에서와 같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있어서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부에 위탁하는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구청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구청에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동주민센터에 각종 자료제공 및 주민리더 육성 사업, 성북구와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재인용.

[그림 Ⅳ-4]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성북구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 유지와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지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도에서 성북구는 6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주도형인 동대문구는 3개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고광용, 2014). 그러므로 향후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정부 주도형 보다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성북구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②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③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④ 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⑤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을 아래의 <표Ⅳ-2>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Ⅳ-2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추진전략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서 풀뿌리단체(교육, 복지, 문화, 예술, 시민운동 등)와 사회적 경제조직, 대학교, 전문가 등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를 발굴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 정보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 연락망을 통해 성북구 내 다양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활동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네트워크 주체별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상호간의 활동 이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목표로 구성원의 범위, 운영횟수 및 주기, 주요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성북구 전체 차원과 마을 단위 등 공간적 범위에 따른 네트워크에 대해 별도 계획 수립
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행정(주무부서,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하는 성북마당,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등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관 또는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체 네트워크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 사안 공유 및 검토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동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소, 작은 도서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조조합 등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하여 주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출처: 서중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마을만들기 지원팀을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였고,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행정협의체로 전환하여 분과별 사업 발굴 지원 및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체계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조사기획 기능 강화 및 마을만들기 연구회, 대학교,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을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단체, 뿌뿌리단체, 주민모임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통합한 마을재생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광주광역시(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

이 시대의 중요한 담론이면서 실천과제인 마을만들기 운동은 회복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로서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아닌 실천적 역할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먼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실질적인 참여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행정은 효과적 지원(지방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과 실천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전문가는 비전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내도록 현장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NGO는 지속적인 중개활동자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들 네 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한 역할 수행과 상호 간의 파트너십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마을만들기 운동은 훨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례로, 광주YMCA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와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동네만들기운동 7년의 활동경험과 좋은동네 시민대학의 운영의 실천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운동의 지침서가 될 ‘주민의 손으로 좋은동네를 만들자’라는 책을 2006년 출판하였다. 또한 동 단위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광주YMCA가 간사 역할을 맡아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6년 11월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를 창립하였다.

좋은동네만들기 학습결과 주민자치의 좋은 방법으로 좋은동네만들기는 제도의 완비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로 지역공동체 좋은동네만들기에 여럿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 이런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합의아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좋은동네시민대학’을 설립했다.

좋은동네시민대학의 구성체는 참여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며, 핵심주체는 지역 모든 주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네트워크의 중심에 두고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둘레가 되어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역할분담의 파트너십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형이다. 주민은 참여와 역할로 주민자치의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관련법에 따라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 전문가는 전문성을 성실하게 발휘하여 학습을 이끌고, 시민단체인 광주 YMCA는 시민대학운영 실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시민대학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세우기에 이바지한 실천력과 지도력을 함께 갖춘 인재,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일을 한다. 이처럼 좋은동네시민대학 구성체는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친화도시 환경과 정책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모델개발과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친화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및 운영과 청소년중심의 참여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와 사업운영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3) 전북 군산시(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기반하여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045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생존 분야(돌봄·보육·건강·친환경급식 제공 등), ② 보호 분야(안전한 환경조성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③ 발달 분야(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창의력계발·특화활동 등), ④ 아동활동 지원 분야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군산시 포럼자료집, 2015.7.22.).

한편,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군산시를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삶의 공간으로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민간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전북 완주군(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완주군은 2014년 12월 전국 첫 농촌형 아동친화 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아동친화 전담부서(교육지원과 아동친화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역할의 중심인 행정기관이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실무운영자와 전문가, 지역연계 기관 담당자, 청소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통해 활동 장소 협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과 평가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조 기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협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장소

제공과 참가자 모집 등에 관내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협조하는 형태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과 같이 농산어촌형 지역사회는 인구가 소규모이고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완주군의 경우 현재는 행정기관 주도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조직 혹은 시민단체 주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부사업을 운영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의 내실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략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총괄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행정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사업의 상호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체계, 조성 매뉴얼 등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관부처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은 사업의 초반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담당할 주무부서의 명확성과 타부서와의 상호 협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다르며 여성가족국의 한 분야로 속해 있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의 정책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운영하여 각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주무부서나 사무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할 수 있으며 역할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3) 지역사회 주민주도의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지원은 기존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적 간섭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기존의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 공공에서 제공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조직 활성화에는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다수가 공공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 지원 방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특정 활동 중심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다변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마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기업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 자체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능 보완과 함께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지역 자원과 청소년의 수요분석을 통한 특성화 및 차별화된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구별하여 차별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마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친화도시 추진 내용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고 추진방식도 다양하였다. 이것이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와 생활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과 여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5)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중심의 친밀도와 네트워크 경험이 중요하다.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는 실무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초 사업을 구안했던 노원구의 아동·청소년분과의 구성원은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자발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실무자들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강서푸른이학교 사업도 살펴보면 아주 새로운 사업을 구안한 것 보다는 이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관들의 기존사업과 많이 비슷하다. 다만 그 동안 필요하고 잘 할 수 있음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지도자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하고 있었다하여도 자원의 부족으로 강서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던 사업 또는 그 대상의 폭이 좁던 사업들이 확대된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업무가 가중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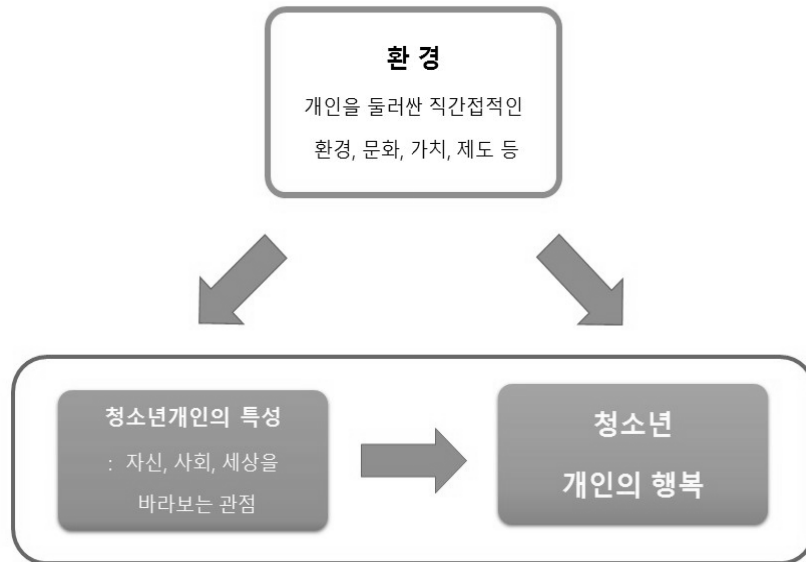
는 부담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형태로 조정되는 지도자의 네트워크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도자는 각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발굴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 방안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의 기본 모형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서열화에 있다. 각각의 개인에게 고유한 주관적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기 보다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행복, 즉 물질 만족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함으로써 행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홍병선, 2012 :9). 서열화와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행복’은 보장 될 수 있는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질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원한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감과 주변의 인정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방안’은 행복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공동으로 보장 될 때 가능하다.



출처: 장근영 외(2013:31.)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재인용

[그림 IV-5] 청소년의 행복과 개인특성 및 환경과의 관계

장근영 외(2013:32)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을 [그림 IV-5]와 같이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 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대입하여 정의해 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 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문화, 가치, 제도 등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특성과 만나 청소년의 행복으로 창출 된다. 이는 [그림 IV-7]에서 청소년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연결 시켜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결과물로 창출하는 것을 ‘관리’의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관리의 운영에 있어 주체는 정책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를 재정하는 인적자원에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창출, 구성, 배치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방안도 함께 제고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며 청소년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화합에 근거한 권리를 실천하는 방식을 도모해 보는 것이다.

2) 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패러다임 적용

(1) 회복적 패러다임의 개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과 외모, 건강과 같은 외적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과 둘째,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정도, 결손가정의 여부, 종교, 가정의 화목, 부모-자녀 관계, 부모양육태도, 가족지지 등을 반영하는 가정적 변인과 셋째, 청소년기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인 학교변인과 넷째, 지역에 대한 만족감, 다양한 여가생활, 사회·문화·정치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변인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장근석 외, 2013: 19-25).

청소년은 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용과 회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정도, 자아효능감, 우울감등을 판명할 수 있다. 다음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삶의 중심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응보적정의를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아니다. 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응보적 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공동체의 각 요소가 회복되고 청소년이 그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가 한국에 소개될 때 당시 배임호(1995)는 범죄문제 해결과 교정의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회복적 정의는 교정연구 분야와 학교폭력과 갈등조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례, 2007; 이호중, 2007; 배임호 · 김응수 · 하태선, 2011; 서정기, 2011; 장규원 · 윤현석, 2011; 박숙영, 2012; 류혜옥 · 박옥식 · 김세광, 2014).

장규원(2014)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범죄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보고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천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방안

회복적 정의가 갈등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일상의 교육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지도’를 통해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지도 혹은 교육이란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차단하려는 기존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더해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식이다 (Amstutz and Mullet, 2005/2011, 28).”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지도를 의미’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잘못”이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피해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삶의 정황과 맥락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회복을 추구하고,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로 영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교사는 지배자 모델이 아닌 파트너 모델로 답을 주며 가르치기보다는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시키는 자의 역할, 갈등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사 권한 강화의 의미는 학생을 징계하는 강제력 강화가 아닌, 공감과 평화의 소통능력 강화로써 이해한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생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생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배움의 방식은 비폭력적 방식이며, 비폭력은 상대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적대자 안에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끌어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자발적 동기를 이끌며, 관계적 배움의 방식이다. 즉, 힘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힘을 주는 방식이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갈등에 대해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갈등을 환영하고 드러내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갈등은 잠재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은 대립과 분열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익히고 책임을 배우며 서로가 협력하여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 자체는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 및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발전을 이루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Lorraine Stutzman Amstutz & Judy H. Mullet, 2005/2011: 50-54).

- ①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 ②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할 것
- ③ 단순히 규범을 어긴 부분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 ④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
- ⑤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할 것
- ⑥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 줄 것
- ⑦ 책임감 키우기 등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동의와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의 응보적 시스템

과의 충돌로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의 이해와 합의,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학기 초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공동체가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 공간 확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화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교사는 평화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방식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세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소통과 공감 능력, 평화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사도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랐고, 교사가 처한 교직문화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이다. 교사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직문화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받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응보적 신념과 습관과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 온 제일 힘들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 운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또 여기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잘 훈련된 외부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는 것이 좋다. 교육청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여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회복적인 대응은 결국 교사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이나 교사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결국 교사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충분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회복적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연계 사례

① 캐나다 엘마이라 사건

‘회복적 정의’가 구체적인 회복적 정의 실천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은 1974년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마이라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키치너(Kitchener)의 작은 마을 엘마이라(Elmira)에서 십대 소년 두 명의 고등학생은 스물두 곳의 집을 돌며 창문을 깨고 자동차 타이어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기물파손과 난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보호 관찰관 이었던 메노나이트(Mennonite)교회 교인 마크 안치(Mark Yantzi)와 동료 데이브 월스(Dave Worth)는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들이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치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법적 근거도 없었고 전례가 없는 이들의 제안은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가해 소년들은 보호 관찰관과 함께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할 것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직접 피해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자신들이 누군지 밝히고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긴 한 집을 제외한 스물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였다. 그들은 봉사 활동과 현금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몇몇 가정은 이들의 직접적인 사과만으로 용서하고 합의를 해 주었다.⁸⁾

이 사건 이후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막연한 공포로 두려웠지만 가해 소년들의 직접적인 방문과 사과는 마을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가해 소년들은 계속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재판이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소년들은 범죄자로 마을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지만 이 작은 사법 실험은 당사자의 직접적 갈등해결, 피해의 회복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캐나다 작은 마을의 사법실험은 캐나다 사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실무와 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의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약 5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8)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정의 워크숍 자료집(2013)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사건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소년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다(서정기, 2011).

② 경기도 남양주 사례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도움으로 2011년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 센터’를 신설하여 관내의 학교들과 학부모에게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초·중고 학교를 ‘회복적 통합시스템 학교’로 지정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3개의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진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적 대화모임을 열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⁹⁾.

그 중에서 남양주 와부초등학교는 2014년 4월 1일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남양주 청소년 문화센터와 MOU를 통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지만 예비 혁신학교 지정 후 해마다 와부초등학교 5~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 2 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은 주1회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을 마치면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으로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루어진다.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은 친구들과의 배려와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그룹활동으로 구성되며 ‘내가 ~~라면’, ‘너는 배려왕’ 등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1차에 이어 진행되는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은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 치유하는, ‘회복적 생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1회 2시간씩, 총 3회 진행되고 있다.¹⁰⁾

이와 더불어 남양주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뉘 총 36시간의 교육이 2014년 9월부터 12월5일 진행되었다. 교육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이해, 갈등전환의 이해, 갈등분석기술, 회복적 의사소통, 회복적 질문 만들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회복적대화 진행자 양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접근하는 매우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됐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을

9)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kopi.or.kr)

10) http://www.gurinet.org/sub_read.html?uid=17220§ion=section3 구리, 남양주넷(2014.5.23)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참석자들의 피드백도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3년간 학교폭력 없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서약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의 친친특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¹¹⁾

③ 세계최초의 회복적 도시 영국의 헐(Hull)시티¹²⁾

헐시티 Collingwood초등학교의 에스텔 맥도널드(Estelle Macdonald)교장은 “헐 시티에서는 9세 이상의 학생들은 누구나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영국의 헐시티 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일어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은 도시 전체를 회복적 도시로 변화시켰다.

헐시티가 회복적 도시로 전환된 후 소년 범죄재범률이 50%이상 경감되었다고 한다. 회복적 정의는 결코 약한 처벌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죄 초기에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이다. 헐(Hull)시티의 회복적 도시로서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예산 절감효과 이다. 새로운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259,000파운드(약 4억5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350파운드(약 60억원)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년범 감소와 사법 및 교정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둘째, 학교문제의 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수업방해 행동은 90% 가까이 감소하였고, 한 학기당 약 6,000파운드(약 1억원)의 절감효과와 교사의 수업의 질이 향상 되었다.

셋째, 주민간의 분쟁이 비사법적 방식으로 풀어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훈련된 진행자/조정자가 양성되어 지역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위 사례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11) <http://kgmaeil.net/detail.php?number=57309&thread=22r12> 경기매일 (2014.12. 9)

12)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www.kopi.or.kr)

3) 청소년의 도전의식 함양과 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현대사회에서의 권리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의해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권리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민법 제2조). 청소년과 지역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공공의 이익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방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의 원리의 실천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청소년기 고유의 권리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제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정신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기업가 정신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가져야할 덕목이다. 즉, “기업가정신은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창업자이든, 조직의 구성원이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장영화,2013:6)”이라고 할 것이다.

오해섭 외(2014)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 정신 교육모형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역 단위 연계시스템은 지역사회와 내부적인 연계기관인 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를 연결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토대 구축을 위한 요청이 가능한 내·외적 협력 시스템을 보여준다.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식적 변화를 토대로 삼아 지역공동체의 연계방안이 실재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 멘토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상호존중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이 가치적이며 인격적 지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다면,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동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잠재적 역량개발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에서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는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강화시킨다(장근영, 2013:262)는 제안은 정책적 제안이자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청소년멘토링은 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지원과 도전과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적인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11).’ 청소년 행복 증진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에서 출발한다면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멘티의 욕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 중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의 미래적 차원에서 진로지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안전에 보장되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 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고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개발 되어야 한다. 청소년 멘토링의 운영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1) 청소년멘토링과 운영의 원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그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소년들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가족관계에서부터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등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김영한 외, 2014:145).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주요 과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첫째, 멘티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둘째, 멘티가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멘티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준다. 넷째, 멘티가 다양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오해섭 외, 2011:3).

멘토의 멘토링 활동의 핵심은 ‘긍정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링 활동의

실천은 청소년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전인적인 역량개발에도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다. 청소년 멘토링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권일남·마상욱·김세광, 2014).

① 상호성의 원리이다. 상호성은 멘토링에 있어서 청소년 멘티의 마음을 열고 멘토와 멘티가 상호성장, 상호작용, 상호변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② 의미 찾기의 원리이다. 청소년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찾아 주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을 청소년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게 설정해 주고 그 의미를 구체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원리부여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도록 지도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멘토는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격려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경험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해야 한다. ④ 자기통제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욕구와 필요성 사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통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⑤ 자기정체성과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는 멘티에게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하고 성장에 관해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변화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기대를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멘토링 요소이다. ⑥ 자신감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타인의 힘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체적 문제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⑦ 목표설정이다. 멘토는 청소년의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도와야 한다. ⑧ 도전하기이다.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어려운 것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도전정신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신이다. 이를 위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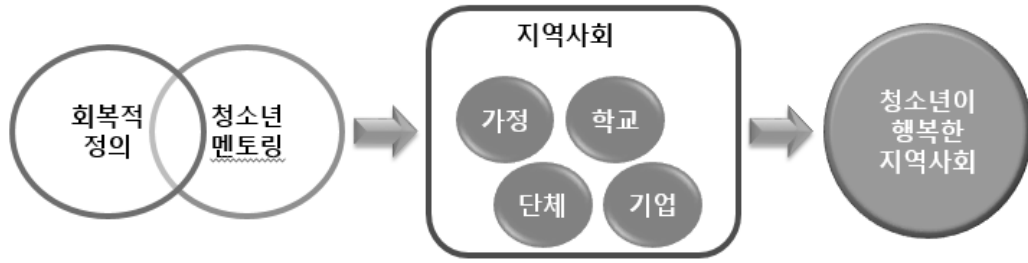
⑨ 긍정적태도이다. 청소년 멘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는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질문해야 한다. 멘토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독려해야 하고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선택, 전략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⑩ 소속감이다. 감정적, 인지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소속감은 그 사람의 능력발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청소년 멘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멘토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멘토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빈곤 및 소외계층·일탈 및 비행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학습망 구축을 통해 지역 내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고 멘토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대상 자원봉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마인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멘토링 활동과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는 효과도 있다(천정웅·오해섭·김정준·김민, 2011).

국내·외의 다양한 청소년멘토링 연구에서 청소년멘토링이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개선, 문제행동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사회 심리적 발달 등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중·고·대학생 등의 청소년이나 성인, 주요 인사 등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멘토링의 수요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또는 지원되고 있다(김경준·오해섭, 2011:3) 현재 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멘토링을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인적자원을 지역자원으로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을 지역사회 모델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림IV-6]은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청소년 멘토링 활동이 지역사회의 가정-학교-단체-기업 간의 연계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자치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 모형을 구조화 하였다.



[그림 IV-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로서 멘토는 멘티의 상호성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요소를 멘토링의 구체적 변인을 이해하고 이를 정점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멘토가 청소년 멘티의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설정하고 개선해 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멘토링의 목표를 정교화 할 수 있게 된다(권일남 외, 2014).

(3) 청소년활동멘토링 지역사회 적용 사례¹³⁾

①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은 2012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14년 2학기 까지 3회의 걸친 청소년활동역량 멘토링 수업을 실시한 사례이다. 멘토는 부산의 A대학교 학생들이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청소년활동역량의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멘토링하였다. 실행의 목적은 청소년 멘토링 수업을 통해 먼저 학습자 자신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청소년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며, 실제 현장에서 멘토링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완성한다. 청소년 활동역량 멘토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멘티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도와주는 이론과 실천의 과정이다. 3년이라는 동안 3회기의 과정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상호성장의 경험과정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3) 본 사례는 연구자가 2012년 2학기~2014년 2학기 까지 A대학교 대학생 멘토들이 실시한 청소년 멘토링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청소년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적합한 부분을 정리함.

②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지도자인 멘토는 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역량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분석의 과정을 통해 멘토는 멘티의 전인적 이해와 청소년활동 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멘토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근거로 분석하고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멘티의 강점역량과 약점을 파악하여 활동 과정에 반영한다.
- 다음은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난 멘티의 역량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여 종결을 위한 성찰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은 청소년지도자가 효과적인 종결과 지속적인 관리에 용이하며, 청소년 멘티는 각자의 역량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결과물로 얻게 된다.

③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실시 현황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멘토링 사례는 2012년 대학생 36명을 멘토로 선정하여 일반청소년 15명과 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계기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표 IV-3>에 정리하였다.

표 IV-3 2012년 ~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시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지도자 멘토 (대학 재학생)	36명	22명	26명
청소년멘티	일반청소년 15명	일반청소년 10명	일반청소년 9명
	위기청소년 11명	위기청소년 12명	교육봉사 10명
			위기청소년 7명

④ 청소년활동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의 실행 과정을 통해 멘토로 활동한 대학재학생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참가한 멘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을 실제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면서 통찰하게 된 것이다. 아래는 청소년활동역량멘토로 활동한 대학생 멘토의 자기성찰일지이다.

‘청소년 활동과 창의적 활동 연계’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제 주위의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활동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적으로 또는 책을 통해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청소년 활동은 엄청나게 큰 범위이고 창의적 활동은 청소년 활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현재 활동 중이신 담당 선생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새로운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색다른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결과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의력이 발달되면, 역량의 8요소는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의 청소년활동을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 서기범의 자기성찰일지 2012년 2학기 11월 -

이처럼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과정은 멘토링을 실시하는 멘토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 확장과 주도적인 청소년활동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능력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멘토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의 멘토 자기성찰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된 것 같습니다. 멘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매 주마다 고민하는 모습들도 저에게 있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힘든 점들은 멘토링이 멘티의 눈높이와 바라는 점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버리면 멘토 중심의 멘토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 14세 중1 일반청소년멘토링 이후 멘토 ○○○의 자기성찰 일지. 2012년 12월 4일 -

⑤ 청소년멘티의 역량 개발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과정은 청소년 멘티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활동역량 멘토링 과정의 첫 단계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멘티의 역량을 분석하여 약점은 극복하고 강점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구성하여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한다. 8개의 청소년 역량의 하위 범주를 인지하고 난 후 청소년멘토링이 실시되기 때문에 멘토는 멘티의 변화의 양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멘토의 자기성찰 보고서이다. 멘티의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의 개발을 인지한 보고서이다.

멘토링을 통하여서 나의 멘티는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이 많이 발달한 거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멘티는 이제는 많이 웃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여 가족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진행과정 중 어려운 점은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다보니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멘토링 시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 경제적인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멘티가 많이 변화되어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 17세 학업중단 청소년 멘토링을 진행한 멘토의 자기성찰 자료, 2012년 11월 -

다음 자료는 청소년멘티의 태도 변화 뿐 아니라 멘토의 자세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그림 3]은 아래 성찰일지를 기록한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이다. 청소년활동역량 개발 멘토링의 첫 시작은 멘토링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활동역량 멘토링은 내게 있어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멘토가 멘티를 가르치고 돕는 시스템인 것은 알았지만 일반적인 멘토링을 넘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내게 있어 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었다. 나의 생활은 전적으로 올바른 안에서 존재해왔고, 어긋남은 내 삶의 사전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겁내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다. 난 여전히 겁나고 초조해했을 뿐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한다’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두부에서 단단한 두부정도는 된 것 같다. 무뎌지고 참여를 저조한 멘티를 만나며 나도 참 많이 변했다. ‘나 돈 없다. 누나 거지야.’라며 용돈 지원받고자하는 네 의도따윈 몰라요~하는 선방을 날릴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전보다는 사근해진 멘티의 태도를 통해 변화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 보호관찰 2호 청소년담당 청소년활동역량멘토의 자기성찰일지 2013. 12. 5 -

⑥ 청소년활동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링의 지역사회연계 가능성

청소년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인 사법형 그룹홈의 청소년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는데, 2014년 청소년멘토링 실행은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도 실행되었다. 교육봉사를 하게 된 3명의 멘토들의 멘토링 실행은 청소년멘토링이 학교와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들이 교육봉사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담당 교사가 교감에게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팀의 사례를 전하게 되었다. 멘토들이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상담하며, 매 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후 교감이 직접 멘토링팀에게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을

요청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을 그 학교의 주요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자 A대학의 멘토링 실시 학과와 협약 체결을 제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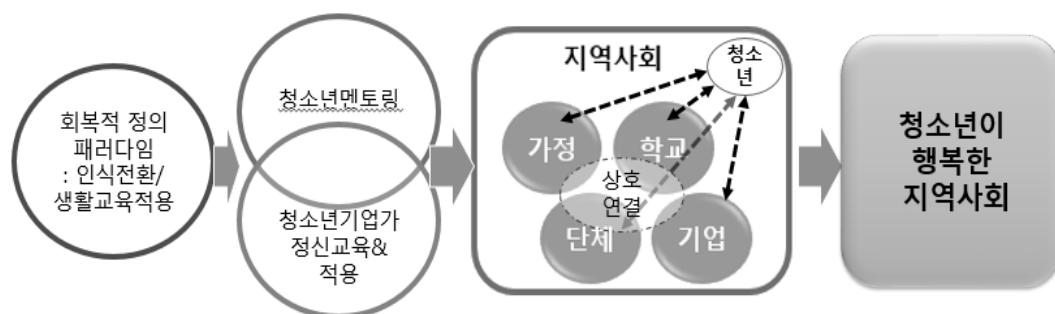
이 같은 사례는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모형의 학교연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멘토들은 청소년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개발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교육봉사에 적용하였다. 교육봉사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교육봉사 시간을 기다리며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담임교사나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시간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봉사를 위해 학교에 배치 된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의 청소년활동 실행은 학교의 지속적 인 요구로 이어지고, 청소년멘토링의 학교 연계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 사례는 학교당사 자들이 먼저 청소년 멘토링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전문화 된 청소년 멘토링 활동이 구성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중심이 아닌 개개인 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인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원하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김태 균, 2012:123). 청소년 중심의 활동 실천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원리이다.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의 개별적 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적용을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공교육의 기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필요한 각각의 영역에 재배치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학교와 단체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교사의 업무 효율성과 청소년 관련 지도자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모델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평등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갖고 남과 덜 비교하며 자기 성취를 공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보다 품위 있는 실존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영, 2009:316).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개별적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통합되고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과 청소년 기업이 정신의 교육과 실천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공동체의 인식적 전환과 물리적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모형을 구성해 보면 [그림Ⅳ-7]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 Ⅳ-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적 모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CFC)’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의 1,300여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5년 5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 추진전략개발’의 결과를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다. 금년도 시범 사업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 참여, 관계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과정과 목표에 집중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시범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현안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청소년참여활동이라는 명목아래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제안한 정책적 활동에 대해 본인들이 실제 참여하고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장은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둘째, 국내외 유사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다. 먼저 국내에서 지역 단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도 국가 인증사업으로 조성된 이래 2015년 현재 129개로 확대되었다.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요인 중 특이 사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학습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회균등 원리를 적용하여 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평행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시사점으로 ① 아동과 청소년이 수혜자이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이며 유익한 파트너라는 인식 전환,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행정담당자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관련조례 제정, ③ 아동·청소년의 대상을 아동복지지원법(18세미만)과 청소년기본법(9-24세)를 적용하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들과의 연계 협력 강화, ④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 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9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아일랜드,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스위스, 에콰도르, 미국, 이탈리아, 북아일랜드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시사점은 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홍보 확대, ②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통로 마련, ③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존중 선행, ④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원칙의 한국화 전략, 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위원회 설립 등을 제언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절차를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 원칙, 비전과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 로드맵, 영역별 실천과제, 인프라 구축의 기본요건 등을 <표 V-1>에 정리하였다.

표 V-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절차

항목	주요 내용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 원칙	○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 간의 파트너십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비전과 추진방향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 ○ 청소년 친화적 지역 환경 정비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 청소년-어르신(지역주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단계별 추진로드맵	1단계: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2단계: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계획 수립 3단계: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체결 4단계: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전략 개발 5단계: 아동(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단위사업 개발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명칭, 조례 내용, 추진 과정 등이 유동적임
영역별 실천과제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이한 범정부적 접근 필요 ○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정비 및 유익한 환경 적극 조성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인프라 구축의 기본요건	○ 청소년의 참여 인프라 구축 및 활동기회 확대 ○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설치 ○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및 영향평가 실시 ○ 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지역사회의 통합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깊은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 간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시의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앙 및 지역사회 차원 혹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논리적 모형과 국내 사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현실적인 접근방안과 모델, 국내외 사례,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적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2. 정책 제언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은 3개 영역으로 경제영역 시범사업(청소년상설 프리마켓), 참여영역 시범사업(청소년 옴부즈맨), 관계영역 시범사업(청소년-가족, 노인과의 교류)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경제영역

- (1) 프리마켓 운영의 주체는 청소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 청소년자치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
- (2) 프리마켓 운영에 따른 기존의 전문화된 공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 (3) 프리마켓 운영에 참여할 청소년들의 모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4) 프리마켓 상설 운영에 따른 입지와 야외 활동 장소의 면밀한 선택에서 다양한 기존 프리마켓과의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 (5) 청소년 프리마켓의 운영기획, 물품제작, 판매의 역할을 체계화해야 한다.

(2) 참여영역

- (1) 참여자 모집 시 학교 내 사회참여와 관련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중 모집하여, 사전 활동설명회를 통해 참여할 청소년들에게 본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청소년간의 관계와 청소년과 지도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접근이 요구된다.
- (3)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 간의 임원진 사전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및 안건 등을 도출하는 회의를 기반으로 책임감 등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중심의 참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4) 담당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 (5)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다양한 청소년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이 요구된다.
- (6)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례 등으로 제도 및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기적인 활동으로 제안이 아닌 본 시범사업과 같이 일 년의 체계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3) 관계영역

- (1) 참여자 범위를 확장하고 년 초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청소년과 노인세대와의 만남에서 초기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 (3) 실무자와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 (4) 영상촬영 등 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 (5) 부자회담과 같이 세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세대 간의 실제 고민을 도출하고 정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 (6) 잡다큐와 같이 부모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게 진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 (7) 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주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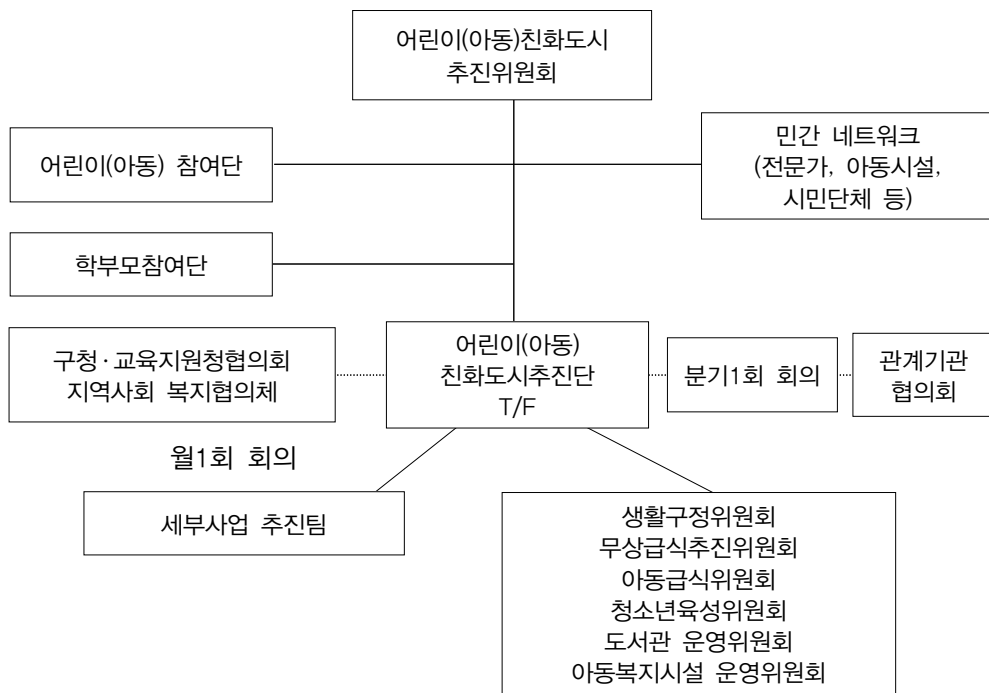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역량 개발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과 인증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과 추진 전략 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자체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형별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를 고찰하였다. 본문의 분석 내용과 지역사회학교 중심 공동체 운영 사례를 추가하여, 다섯 가지 추진체계와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특징 및 개선 방안, 그리고 타 지자체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네트워크 협력 추진체계(서울시 성북구), ②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광주광역시), ③ 행정과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전북 군산시), ④ 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전북완주군), ⑤ 지역사회학교 중심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운영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한국산마을고등학교) 등이다.

- (1) 어린이(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유형
:서울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체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서울시 성북구는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위원장(교수), 아동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17명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생활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추진부서와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어린이친화도시 추진단과 추진팀(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추진위원회를 대학교수와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장 대표로서 아동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지역 내에 다수를 차지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연령층의 청소년들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 참여단을 관내 초·중·고 학생 중 30명 내외로 공모절차를 거쳐 구성하였으며, 운영방식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V-1] 성북구 어린이(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2012기본계획 참조)

또한 2011년과 2012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시 “제2조(정의) 2항 “어린이”의 연령 정의를 「아동복지법」의 아동 중,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라는 조항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2015.5.14.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2항 “아동”의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정책 제언(1)-1:**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할 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과 대상의 정의를 아동(아동복지법: 18세미만)과 청소년(청소년기본법: 9-24세)을 반영하여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 항목이 ‘아동의 참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 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명료하게 제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 제언(1)-2:** 같은 맥락에서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참여단’을 ‘아동·청소년 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의 목적을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육성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운영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정책 제언(1)-3:** 이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아동 및 청소년 담당부서를 주축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실무적인 사업구상과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활동가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혹은 수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북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 2015.9.4. 검색).

- 1단계 :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를 신설(아동청소년친화팀, 2011.11)
- 2단계 :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
- 3단계 :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2.12)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생 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였음.
- 4단계 :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2013.10)
- 5단계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2013.11.20)**
- 6단계 : 아동친화예산서 자체 제작(2014.4)
- 7단계 :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2014.5) 및 어린이친화도시 조례 개정(2015.5.14.)
- 8단계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전국 27개 지자체, 2015.9.14.)

성북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과제 아래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체계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수행한 결과 2013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한번 인증 받았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는 2년 이내에 활동 상황을 정리하여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재평가 한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정책 제언(1)~4:** 현재 행정기관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청소년의회, 학생 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다(2015.10.2. 담당자 면담). 하지만 행정기관의 전담부서는 현장 활동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들이면서 매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을 추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내실 있고 연속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 혹은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조정하는 허브(Hub)기관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진로, 학습 상담, 학부모 지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과정의 특징과 정책 제언

이 시대의 중요한 담론이면서 실천과제인 회복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 어린이와 청소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실천적 역할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어린이·청소년들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회(어청협)는 2014년 42개 단체와 1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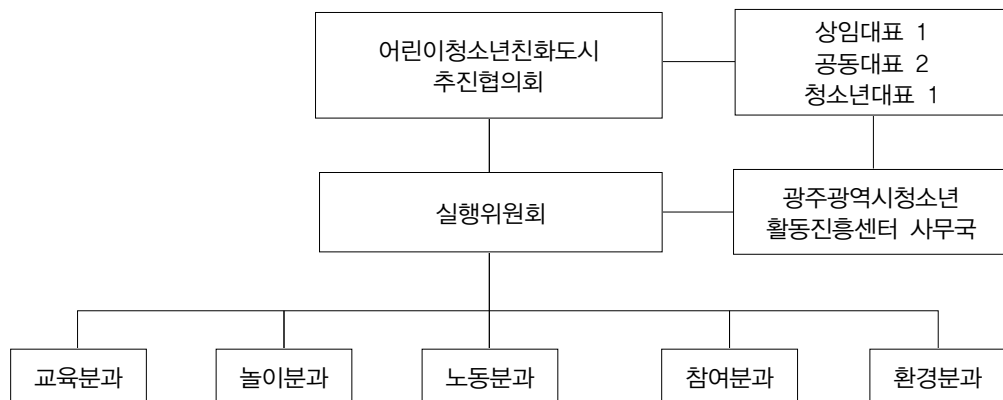
• **정책 제언(2)~1:** 추진협의회에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과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어청협의 조직운영을 “수평적 방식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실행위원회는 개방형으로 각 분야별 대표를 추천하여 지역사회 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행사에서는 청소년 대표가 인사말을 하도록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성훈, 2014:30)”는 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정책 제언(2)-1: 본문 II-1. 시범사업 추진기조**에서 청소년의 대한 세 가지 기본 시각으로 주체론, 자율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아와 보호적 시각에서 강점 개발중심으로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정책 제언(2)-2: 본문 IV-1. 추진전략 개발의 핵심원리**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기반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아동·청소년-지역주민(어르신) 간의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믿고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정한 역할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때로는 협력을 통해 성취감과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청협은 민간기구로서 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광주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실행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린이청소년친화도 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한 새로운 협의체 혹은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주요 사업 3가지로 ① 어린이·청소년들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꿈의공원’ 조성, ②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 ③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을 선정하였다(김성훈, 2014:30).

- **정책 제언(2)-3:** 어린이·청소년 추진협의회(어청협)이 민-관 거버넌스를 추구하면서 사무국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두고 실행위원회 소속 5개 분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분담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2015.4.1.)」의 내용 중 제7조(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제12조(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제13조(어린이·청소년 권리 홍보), 제14조(어린이·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제15조(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등 상당 부분이 청소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정책 제언(2)-4:**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주요 사업 중 ‘꿈의 공원’ 조성은 최근 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놀이문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일례로,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경우 ‘아이들의 꿈의 공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모험놀이터, 자유공간’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면서 다양한 체험과 친구들과의 맺는 거점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V-2]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협의회 민간기구표(김성훈, 2014 참조)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모델개발과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파터너십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천방안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친화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및 운영과 청소년중심의 참여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와 사업운영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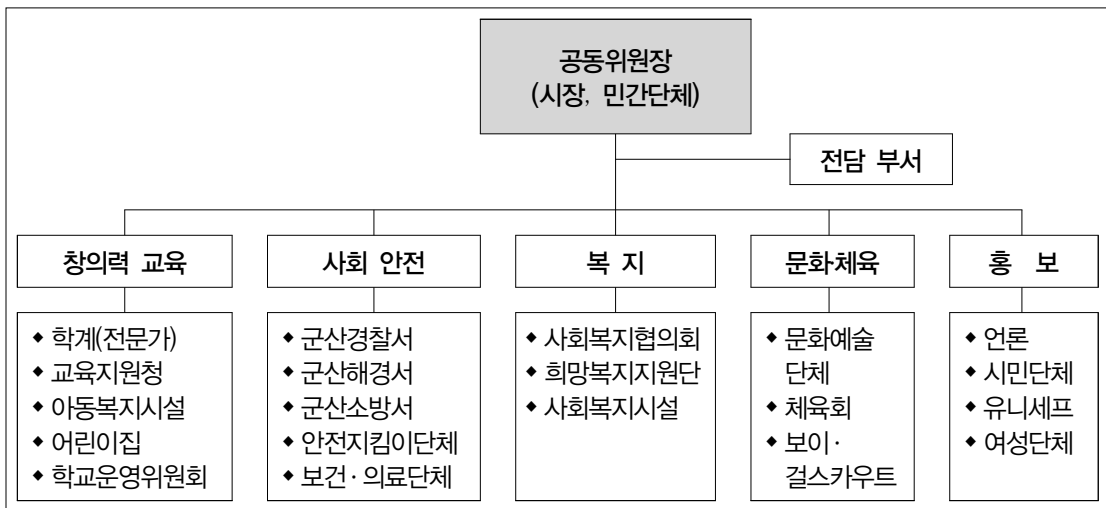
- 정책 제언(2)-5:**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협조체제를 윈윈(Win-Win)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의회와 전 행정부서는 효과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예산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과 같은 실천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전문가는 비전이 있는 친화마을의 추진방향과 모델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NGO는 지속적인 중개활동자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등 친화마을 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들 네 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한 역할 수행과 상호 간의 파터너십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어린이·청소년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훨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 대표 간의 공동대표 거버넌스 형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조성추진위원회” 운영의 특징과 정책제언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기반으로,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림 V-3]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군산시, 2014 참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 구성은 시장과 민간단체의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5개 분과로 시의회, 학계(분야별 전문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여성단체,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관계자,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주요 임무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이다.

- **정책 제언(3)-1:**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산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시청에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과 민간단체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성북구, 전북 완주군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으나,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 인구, 특히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미래 지역인재 발굴과 관리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결과 2015년 9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확산 분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청소년 정책이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군산시를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지역사회와 삶의 공간으로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민간과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서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책 제언(3)-2:** 2015년도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자라고 살아가기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주)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시청,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 간의 상생네트워크와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매우 선도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역 사회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책임지는 수평적 거버넌스의 실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 사업 설계에서 제시된 군산시 지역 내 행정-민간, 다양한 기관들 간의 윈-윈(WIN-WIN)의 실천 모델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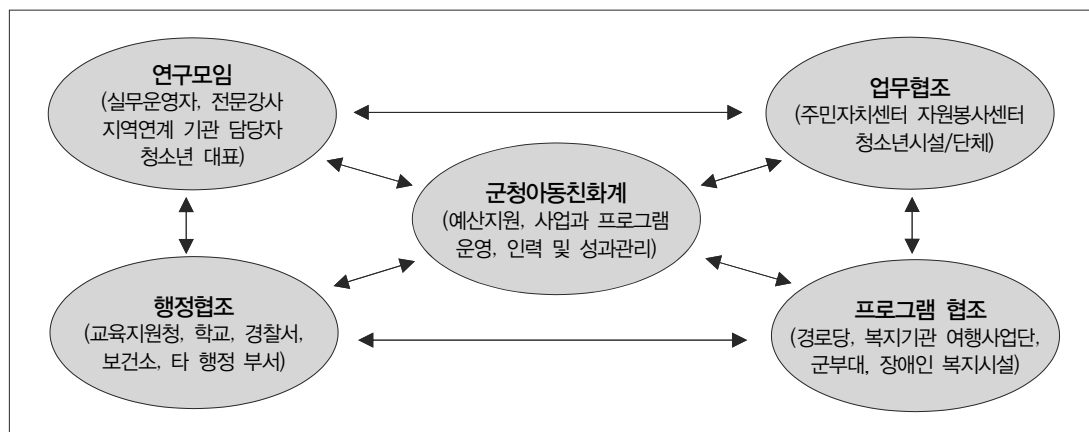
• **정책 제언(3)-3:** 나아가 지역의 청소년 조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현재 조례 작업 중),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체 기구의 대표성을 갖기는 현재까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활동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4) 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 전북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체계와 시사점 제언

완주군은 2014년 12월 전국 첫 농촌형 아동친화 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아동친화 전담부서(교육지원과 아동친화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역할은 [그림 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실무운영자와 전문가, 지역연계 기관 담당자, 청소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통해 활동 장소 협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과 평가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V-4]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연계

완주군은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조 기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협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장소 제공과 참가자 모집 등에 관내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협조하는 형태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 제언(4)-1:** 완주군과 같이 농산어촌형 지역사회는 인구가 소규모이고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정책 제언(4)-2:** 완주군의 경우 현재는 행정기관 주도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조직 혹은 시민단체 주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 제언(4)-3:** 더불어 세부사업을 운영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의 내실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5) 지역사회 학교 중심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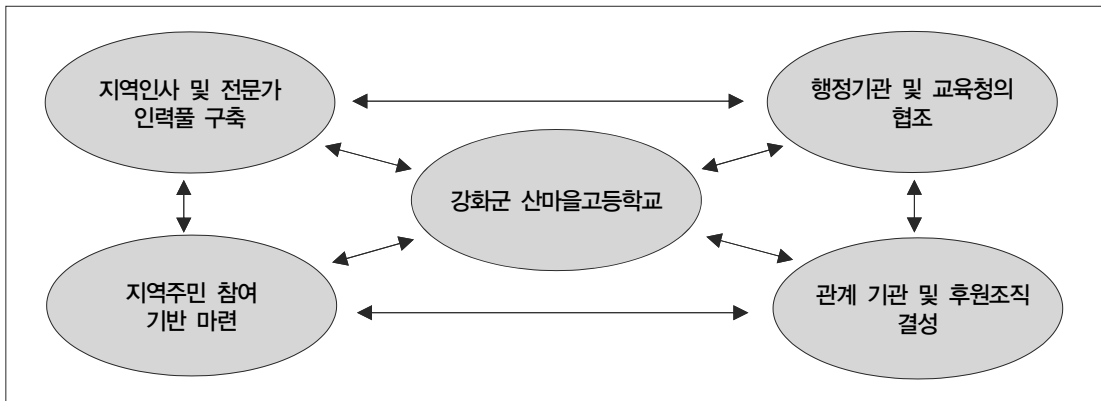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한국산마을고등학교)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읍·면·동과 같은 기초 행정구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하제한 정책으로 학령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공동화는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지역 학교들이 초등학교를 필두로 통합과 폐교의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귀촌과 귀농이 증가하여 새로운 인구가 농산어촌에 유입되고 다양한 대안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학교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연구 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강화도의 ‘한국산마을학교’ 중심의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구축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2002년 대안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학교 운영은 설립자가 아닌 이사장과 이사진을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인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장도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또한 학생총회와 식구총회, 한국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 안건들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처리한다(안성균, 2015:336).”

- **정책 제언(5)-1:** 이와 같이 구성원의 참여를 토대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은 앞서 제시한 **본문 IV-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 개발의 핵심원리**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간의 파트너십 강화” 이념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제언(5)-2:** 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자치문화는 그들 스스로 토론문화 정착시키고 각종 행사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산마을고등학교는 수많은 행사와 축제, 문화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성균, 2015:337).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본문 II-1. 시범사업 추진 기조**에서 언급한 내용인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V-5] 강화군 학교중심 지역사회 거버넌스 운영체계

기존의 공교육은 입시위주로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마을과 지역사회와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담을 허물어 상호 영향을 주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방법 또한 협력하는 방식을 모색해 왔다(안성균, 2015:336-7).” 산마을고등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항상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산마을 거버넌스와 지역에 기반을 둔 운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을 학교를 포함하여 부설기관에 개설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모두가 ‘산마을 살림배우터 (산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산마을 야학’은 이 지역의 가장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도부터 산마을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술’이라는 특성화교과가 개설되었으며, 생활기술 수업은 생태전환, 자급자족, 지역순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지역과 학교, 그리고 자연과 지역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산마을 협동조합’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구성은 교사모임, 학생회, 학부모회, 이사회, 지역인사 등 지역의 각 단위가 적극 참여하여 산마을 비전을 실현하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단계의 협동조합 모델은 이미 ‘산마을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내 문화카페, 매점운영, 교육사업, 마을장터 등을 기획 운영을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설립 주체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산마을 주민 전체는 산마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대학,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의 마을공동체로서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있다(안성균, 2015).

• **정책 제언(5)-3:** 앞의 내용과 같이 이와 같이 ‘지역사회학교’가 청소년과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자원 파악,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재상 정립,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마을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의 형태는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866호 일부개정 2014. 12. 30.]의 설립요건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완화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1절 설립 15조(설립신고)**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1) 조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의 ‘2015년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6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45명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0일~8월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영역은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세부추진사업들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감안하여 수행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개 영역 총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V-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세부 사업영역

영역	사업명
경제	①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② 청소년 직업체험 및 창업활동 지원 ③ 청소년 일자리 은행
건강 (복지)	④ 청소년건강인증제, ⑤ 취약계층 및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안전	⑥ 청소년 및 관련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⑦ 청소년 안전·문화존 확대
교육	⑧ 청소년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⑨ 청소년 권장도서 보급
활동	⑩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⑪ 지역사회 동아리 지원
참여 (권리)	⑫ 청소년옴부즈맨, ⑬ 청소년참여예산제
관계	⑭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⑮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2)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전략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요구조사 결과 영역별 프로그램개발 설문조사 상위 5개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40.7%), 청소년 일자리 은행(26.2%), 청소년 안전·문화존 확대(24.1%), 청소년참여예산제(23.4%),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22.1%)등이었다.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15개 사업 중 3개 영역(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청소년옴부즈맨제도,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은 제 I 장의 2015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결과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12개 영역 중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9개 세부 사업을 우리나라 지자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추진절차 등을 개발하였다. 나머지 3개 영역은 사업내용과 지자체별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1위 :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및 효과 검토	
청소년 문화누리 카드발급 (40.7%)		○ 청소년 1인당 매년 50,000원의 상당의 지원금 혹은 문화상품권 지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실행 가능성	새로운 제도에 관한 연구 및 도입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청소년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긍정적 효과	○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적 소양 강화
			부정적 효과	○ 막대한 예산 소요 ○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
정책 제안	추진 방향	청소년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금융 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활동과 다양한 소비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의뢰 ■ 2단계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대상별 시범운영 ■ 3단계 :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 검토 및 확산방안 마련 ■ 4단계 : 청소년증과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성 검토 ■ 5단계 : 최종 실시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검토 ■ 6단계 : 실시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		
	근거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4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 등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여성가족부). 국제 사례: 영국의 기회카드, 스코틀랜드의 영 스카트 카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문화존 확대(여성가족부), 창의예술캠프 내실화 및 토요문화학교 확대 등(문화체육관광부)		

2위 :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및 효과 검토	
청소년 일자리 은행 (26.2%)		○ 청소년들의 경제관련 기초지식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혹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병행	실행 가능성	지역단위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긍정적 효과	○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 ○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는 미래사회 가치 및 취지와 부합
			부정적 효과	○ 학생의 경우 지나친 아르바이트 활동 으로 학습 시간 침해 우려
정책 제안	추진 방향	독일의 Baden-Wuttemberg주는 문화청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금융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청소년행정기관과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청, 학교, 기업체 등이 금융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일자리 은행'을 운영함.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일자리 은행에 관한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단계 : 지역별 청소년 자원과 관련 기관 파악 및 타당성 검토 ■ 3단계 : 사업 내용 확정 및 추진 주체 선정 ■ 4단계 : 지역내 사업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 5단계 : 시행계획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운영 방안 검토 ■ 6단계 : 실시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		
	근거 조항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②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③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④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⑥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⑦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박근혜 정부(2013-현재)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2013.12) ★교육부 :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4.10. 2. 제55회 국정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국제사례 : 일본의 중학생 대상 직장체험프로그램(Career Start Week)		

3위 :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및 효과 검토	
청소년 안전문화존 확대 (24.1%)		지역사회의 일정한 거리를 청소년 안전·문화존으로 지정하여 이 구간 내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가재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실행 가능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혹은 '차없는 거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긍정적 효과	-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역내 공원 및 놀이터 등에 청소년 일탈 감소
			부정적 효과	- 소음발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소지 - 질서유지와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비용발생
정책 제안	추진 방향	지역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과 같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혹은 '차없는 거리' 등과 연계하여 주중 일정한 시간 동안 '청소년안전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주도적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추진 절차	1단계 : 청소년문화존 운영의 모범사례 벤치마킹 2단계 : 지역내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3단계 : 사업 지역 확정 및 관리 주체 지정 4단계 : 지역내 사업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5단계 : 시행계획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검토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근거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18조 2항(안전교육)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문화존 확대(청소년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인 청소년문화존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4위 :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및 효과 검토	
청소년 참여 예산제 (23.4%)		○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청소년 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결정과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실행 가능성	인천남동구(2013), 충남아산시 (2015), 서울성북구(2015)등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아동) 참여예산제'를 시행 하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긍정적 효과	○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대한 지역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음. ○ 청소년의 참여자치권이 강화되는 계기 제공
			부정적 효과	○ 사전홍보 부족시 지역주 민들과의 갈등 발생 소지
정책 제안	추진 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실행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예산 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사례로 에과도르는 청소년참여예산제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추진 절차	■ 1단계 : 국내 청소년참여예산제 실시 사례 벤치마킹 ■ 2단계 : 지역내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 및 도입 추진 ■ 3단계 : 청소년참여예산제 참가자 모집 및 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등) ■ 4단계 :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개최 ■ 5단계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6단계 : 지역내 사업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근거 조항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여성가족부) ★국제사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6번 원칙 「아동관련예산확보」, 핀란드 헬싱키시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의제와 예산가지 확정」, 필리핀 「청소년의회: 지자체 예산의 10% 지역 청소년 예산의 분배」, 브라질 바라만사시 「어린이참여예산 평의회」		

5위 :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22.1%)		○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 및 풍토를 조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청소년들의 욕구·문제, 사회적 이슈,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목과 정규과목 이외에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정책 제안	추진 방향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 - 지역 산업과 연계 및 현장체험 중심으로 흥미 유발 -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율성과 협동학습의 원리 적용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행여부 및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 ■ 2단계 : 지역내 산업체 및 현장체험을 위한 자원조사 ■ 3단계 : 청소년,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방안 논의 ■ 4단계 : 지역내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 5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에서 「자기주도 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심화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자기주도 학습의 일반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항	★서울특별시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8,10조) - 2009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2008. 12. 31) - 2009 자기주도 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교육지원담당관-2234, 2009.2.13)

6위 : 사업명	사업내용	
취약계층· 다문화이주배경 소년멘토링 (20.7%)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기초학습지도를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정체감과 또래관계 등의 발달과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 기간은 6개월~1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정책 제안	추진 방향	-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와 봉사기회를 제공함 - 중·고등학생이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기회 부여 - 사전교육 실시 및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 필요
	추진 절차	■ 1단계 : 지역내 취약계층과 다문화이주배경 가정 부모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 2단계 : 지역내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 학부모, 대학생 등을 포함하여 멘토로서 활동이 가능한 인력풀 구축 ■ 3단계 : 청소년,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방안 논의 ■ 4단계 : 멘토링 운영 기관 지정 및 지역내 기관들과 협력방안 모색 ■ 5단계 : 코디네이터와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멘토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 * 지역 산업체를 비롯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멘토 자원 확보와 시설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근거 조항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확대,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3-1-7 취약계층 맞춤형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하 휴먼네트워크의 멘토링정보 허브포탈 (www.humannet.or.kr) 운영 및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등과 연계

10위 :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및 관련업무 종사자 안전 교육이수제 (17.8%)		○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에 따른 과정 이수증서를 발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정책 제안	추진 방향	- 지역 경찰서, 119구급대, 시·도 청소년안전센터, 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 강화 - 매월 1회 이상 교통, 화재 및 재해, 학교폭력, 성범죄 산행, 물놀이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추진 절차	■ 1단계 :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교육의 필요성 홍보 ■ 2단계 : 지역 경찰서, 119구급대, 청소년안전센터, 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등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 자원 파악 ■ 3단계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관련 기관과 안전교육 실시방안 논의 ■ 4단계 : 안전교육 운영 기관 지정 및 이수확인증 발급 시스템 구축 ■ 5단계 : 감독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
	근거 조항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4-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2-1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4-2-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4-2-3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4-2-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의 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2015년 4월 설치·운영하고 있음.

11위 :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및 창업지원 (17.2 %)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함양과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 교육 실시, 나아가 창업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함.
정책 제안	추진 방향	- ‘청소년 일자리 은행’ 및 ‘상설프리마켓운영’ 등과 연계 -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 지역내 기업체와 후원계약 체결 및 현장교육과 인턴제도 운영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된 시설 및 기관을 지정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강화 및 창업의 필요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 2단계 :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 3단계 : 청소년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4단계 : 교육청-청소년 기관-고용지원센터-학교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직업체험, 창업교육 및 모의창업 서비스 확대 운영 ■ 5단계 : 한국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비즈쿨, 창업인턴제, 창업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 ■ 6단계 : 지역 기업체와 직업체험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과 멘토링 실시 *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문훈련 시스템 구축 통한 진출국가 다변화 추진
	근거 조항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②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③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④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⑥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⑦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고용부, 여가부, 중기청, 복지부, 교육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5.4.] 제7조(창업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14.10. 2.일 제55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국제사례: 일본의 중학생 대상 직장체험프로그램(Career Start Week)

14위 :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건강 인증제 (11.7%)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의 표준체력 및 정서지수 기준을 제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필요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정책 제안	추진 방향	- 학교와 지역 병원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진단 및 정기 검진시스템 구축 ■ 2단계 : 청소년기 수면과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실시 ■ 3단계 : 지역 내 학교-학부모-병원-행정기관 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연결망 구축 및 운영 ■ 4단계 : 청소년의 표준 체력과 정서지수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함 ■ 5단계 : 청소년 건강인증제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근거 조항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중점과제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사업, 2-2-1 청소년 체력 강화, 2-2-2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2-2-3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2-2-4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운영(문화부, 복지부 식약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2004년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 일환으로 수립 정부 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58호)로 2005년부터 매년 고1-3학생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교육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청소년건강재단 및 각시도교육청(2015부산시교육청) : 학생건강인증제 혹은 건강 인증제 시범학교 실시

사업성격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2015 년도 시범 사업	청소년 상설프리 마켓 (9.0%)	○ 청소년들을 위한 프리마켓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	- 2015년도 본 연구의 시범사업 - 물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문화행사 병행 추진 -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판매 적극 권장 -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공간 협조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청소년 옴부즈맨 (19.3%)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언	- 2015년도 본 연구의 시범사업 - 「제5차청소년 기본계획」 중점과제 2-1 및 2015년도 본 연구의 시범 사업 영역 - 청소년들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기구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자율성 부여
	청소년- 어르신 동반자 활동 (13.8%)	○ 마을 단위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통합의 공간 및 활동 실시	- 2015년도 본 연구의 시범사업 -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벼운 프로그램부터 시작(예: 봉사활동, 장기자랑 등) - 적극적인 활동팀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 단체별 특화 사업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18.6%)	○ 단순한 노동, 노력 봉사에서 벗어나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 동안 우수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정에게 시상	- 가족단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공간 및 시설확보 - 가족단위 우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경진대회, UCC 공모전 실시
	청소년 권장도서 보급 (18.6%)	○ 청소년 권장도서, 필수도서를 청소년들이 구입 시 정가의 일정비율 할인	- 청소년문화누리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방안 모색 - 청소년 독서 토론 대회 개최 - 지역 학교 및 도서관 등에 청소년 권장도서 기부 -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도서구입 할인혜택 부여
	지역사회 동아리 활성화 지원 (17.2%)	○ 지역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화 하고 운영 및 지원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동아리 발굴 및 활동 참여 수요조사 실시 -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동아리 구성 및 운영 방안 협의 - 지역단위 동아리 축제 및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3)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7개 영역의 15개 사업에 관한 추진방안, 추진절차, 추진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이 주도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서울시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아동권리협약 대상 사업 내용과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어린이(아동)·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예산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V-3 아동권리협약 대상사업 내용 및 아동권리협약 조항

구분	대상사업 내용	아동권리협약 조항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제24조(건강 및 의료), 제26조(사회보장), 제27조(생활보장)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 제18조(아동이익 극대화), 제23조(장애 아동의 보호)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교육), 제29조(교육), 제31조(놀이와 오락, 문화활동)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견표명),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7조(정보에의 접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¹⁴⁾

※ 분류코드 : 교육청소년과-○-○-○○ (담당 : ○○○, 행정전화 : ○○○○)

회계연도 : 2015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교육청소년과	사업분야 :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아동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 : 제31조
아동영향평가 대상 여부 : 대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시행,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어린이북 페스티벌,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계속 사업)

○ 사업비 : 56,220천원(구비 100%), 연례 반복적 사업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위원회 운영(추진위원회, 영향평가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 행사(친구페스티벌, 청소년 참여 정책창안대회) 운영 등

○ 추진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 ○○○ 아동(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소요재원

○ 2015년 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6,000	19,000	37,000	34.0%
예산총액	56,000	19,000	37,000	
국비				
시비				
구비	56,000	19,000	37,000	

14) 2015년도 서울시 성북구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p.196 참조.

어린이(아동)·청소년 의회 구성¹⁵⁾

※ 분류코드 : 교육청소년과-○-○-○○ (담당 : ○○○ 행정전화 : ○○○○)

회계연도 : 2015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교육청소년과	사업분야 : 시민적 권리와 참여
아동권리 : 참여권(D)	유엔아동권리 협약조항 : 제12조
아동영향평가 대상 여부 : 대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이해를 돕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아동)와 청소년의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계속 사업)

○ 사업비 : 9,000천원(구비 100%),

○ 사업내용 :

- 의회 의사진행과정 직접 체험
-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 및 정책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권리 신장을 위한 각종 활동 등

○ 추진근거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 소요재원

○ 2015년 예산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9,000	7,300	△1,700	△21.5%
예산총액	9,000	7,300		
국비				
시비				
구비	9,000	7,300		

15) 2015년도 서울시 성북구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p.291 참조.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제언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증진하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지,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과 조례안을 <표 V-4>와 같이 제시하였다. 조례 및 시행령과 같은 법적 틀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모두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내용의 시행여부를 감시하고 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 혹은 자문기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직의 구성과 활동 과정에 반드시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각종 권리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맨(행정 감시 및 민원도우미) 제도 및 정책모니터단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표 V-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 및 조례(안)¹⁶⁾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조례 명칭	○ <u>자치단체별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의 명칭 현황</u> ■ ‘어린이 친화도시’(서울시 성북구, 2011/노원구, 2012/동작구, 2013 등) ■ ‘어린이 행복도시’(군산시, 2015)	조례의 수혜 대상을 명료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혹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와 같이 청소년을 포함 시키기를 권장함.

16) 이 내용은 2015년 7월 23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 가 참여한 ‘지자체 청소년친화도시 조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고유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의 연구진이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 제시한 권고 내용과 조례(안)임.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성남시, 2014/완주군, 2015)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광주광역시, 2015/광주광역시 남구 /부산사하구, 2015)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에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포함여부 검토
제2조 (정의)	○ ‘어린이’, ‘아동’, ‘어린이·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규정에 근거하여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명칭에 청소년 포함 및 연령 근거 법(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 9-24세)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함.
제3조/ 제4조 (원칙/책무/ 재원)	○○시장(군수)은 어린이(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 「 교육감과 지역주민(시민) 」의 책무 추가요망 [참조: 광주광역시조례 제4조(책무)] - 조성 원칙 포함 - 재원확보부분 - 재원지원 항목을 청소년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위주로 구체화
제4조/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은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은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조항을 추가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어린이(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시(군)의원 4.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위원회(구성)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추가 요망, 교육청 참석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과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아동·청소년의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내 참여를 확대하며, 성장단계에 적합한 역량 개발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란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참여·권익을 보장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더불어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과 아동복지법(18세미만)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대에 있는 자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성 원칙) ○○○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제공한다.

지역의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 체계 구축한다.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지역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기초서비스(건강, 활동, 여가, 문화 등)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제4조(재원 및 지원) ① ○○○ 장은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 설치, 청소년지도사의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 지역정책에 대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역 아동청소년 정기실태조사 및 보고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① ○○○장은 장단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기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장은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지자체장이 되며 부의장은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조성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지자체장
 - 나.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담당국장
 - 다.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 가.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 나. ○○○지역 교육감 또는 교육청장
- 다. ○○○지역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라. 지역내 기관장
- 마. 지역청소년대표 2명
- 바. 지역주민(청소년부모) 대표 2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장은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역의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장은 아동·청소년친화(행복)도시 조성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2호.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군산시 (2013). 제19회 군산통계연보. 군산: 군산시청.
-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일남 · 마상욱 · 김세광(2014).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의 이해와 실제. 학지사.
- 권해수, 김기현(2010). 자율적 행동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핵심역량 만족도, 진로계획 및 학업성취도. 교육심리연구지, 24(1), 83-102.
- 김경애(2009).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 김경준 · 오해섭(201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2014). 트렌드 코리아 2015. 서울: 미래의창.
- 김남정(20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법과 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미영(2009). 공동체와 행복.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307-317.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자, 김정혜(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성훈(2014).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세광(2014). **스마트시대의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학교사회복지, vol. 29.
- 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선진국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연구보고 03-R50)**.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연구보고 14-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김은경 · 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1)**. 연구총서. 36. 1-464
- 김정율 · 권일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4호
- 김주희(201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영역별 지원체계 개발 세미나 자료집**.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 · 분석(연구보고 14-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태균(2012).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5-127.
- 류혜옥 · 박옥식 · 김세광(2014). **회복적 정의와 실제적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서울: 학지사
- 린다, 오세숙(2011). **한국청소년의 여가, 건강,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173-180.

- 마을교육연구소 (2012).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대구의 마을학교 이야기-**. 대구광역시: 한티재.
- 문성호, 문호영(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박숙영 (2012).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서울: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
- 박숙영(2012).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 사례 발표 연속 토론회1 자료집.
- 박종화(2007).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교육특구 운영 모형: 경기도 군포시 사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규한 (2014). **미래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113-136.
- 배임호(1995).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 배임호 · 김웅수 · 하태선(2011).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 교정연구, 51, 229-251.
-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한국중소기업학, 31(1), 111-128.
-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정의 (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서종균 외 (2013).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성북구청.
- 성북구(2015).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서울: 성북구청.
- 신중진 · 정지혜(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
- 쓰지 히데유키, 박형구 (2013). **기적의 마을 이야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안성균(2015). **산마을에서 전환학교를 꿈꾸다**. 대안교육포럼 2015,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학업중단 · 대안교육지원센터.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해섭, 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외(2011). **멘토교육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민화 외(2014).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과정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0집
- 이기봉·김현철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시업사업 매뉴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상희, 이혜원, 최경옥(2009).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이성, 정지웅 (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순래(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이왕기 외(201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4호
- 이호중(2007).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상), 한국형사법학회, 2007.
- 장규원(2014).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71-295.
-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김균희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화(2013). **지식창조사회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와 효과: ICT서비스를 활용한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1-26.
- 정건희(2013).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안**. 청소년정책 제안을 위한 전북토론회의 주제발표 원고.
- 정의춘(2007).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를 위한 광주시의 동 단위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교육 사례**. 『도시와빈곤』84호

- 천정웅 (2014). **청소년참여론 : 『P이론』의 청소년학**. 경기: 양서원.
-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 (2011). **청소년활동론**. 경기: 양서원.
- 천정웅 (1998).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pp.113-13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 김민, 김진호, 박선영(2011). **차세대 청소년학총론**. 파주: 양서원.
- 최종혁 · 이연(2007).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역사회리더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2집
- 최창욱, 조혜영(2008).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군산시 · 청소년자치연구소(2015). **청소년 친화마을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포럼자료집**.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병선(2012).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교양논총. Vol.7, 6-34.
- 홍승애(2013).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애, 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5(1), 149-172.
- 홍승애, 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황옥경, 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수시과제, 11-R17).
- 황옥경 외(2011). **청소년친화마을조성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재영 · 정 Amstutz, L. S. and Mullet, J. H, 2005,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이용진 역, 2011. 서울: KAP.
- Associazione Nazionale Comuni Italiani (ANCI)(2015). CAMINA - Citta' Amiche Infanzia Adolescenza.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

- blocks/examples-making-childrens-rights-known/camina-citta-amiche-infanzia-e-adolescenza/
- Ayuntamiento de Cordoba (Cordoba City Council)(2015). Presupuestos participativos.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budget/presupuestos-participativos/>
- Betts, S., et. al.(1996). *Moving Ahead Together: What works for youth*. Washington DC.
- Derry Children' s Commission (2015). Derry Children' s Commissi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independent-advocacy-for-children/derry-childrens-commission/>
- Dublin City Council(2015). Report of Dublin City Youth Seminar, Croke Park – May 2002. <http://www.dublin.ie/>
- European Commission(2014). Working with young people :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Jain Shilpa Browne Bliss W.(2002).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imagine-chicago-ten-years-of-imagination-in-action/>
- KAWASAKI City(2015). ページが見つかりません http://www.city.kawasaki.jp/index_e.htm
- Lerner, R. M.(2002). *Adolescence: development, diversity, context, and appli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actice Hall.
- Levent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 Office of the Children' 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2015). Children & young people' 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Lond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

- hildrens-participation/children-young-peoples-participation-in-decision-making-in-london/
- Peter L. B. & Karen J. P.(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ittman, K. J.(1992). *defining the fourth 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 33-36.
- Queensland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An act to establish a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interests and wellbeing of children in Queensland
<http://www.ccyipc.qld.gov.au/page-not-found.html?aspxerrorpath=/index.aspx>
- 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2015).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SCY)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the-society-for-children-of-youth-of-british-columbia-scy/>
- The Children's Society(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http://www. childrenssociety.org.uk/well-being](http://www.childrenssociety.org.uk/well-being).
- UNICEF Brazil (Fortaleza Office)(2015). Selo UNICEF: Municipio aprovado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participation/selo-unicef-municipio-aprovado/>
- UNICEF Ecuador(2015). Democratizing democracy: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budget/democratizing-democracy-participatory-management-and-budget-allocation-for-equity/>

- 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2015).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project-review-munich-stadt-für-kinder-munich-city-for-children-germany/>
- UNICEF Switzerland(2015). Giving Children a Voice.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impact-assessment-and-evaluation/giving-children-a-voice/>
-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2008). Brief-Child Friendly Cities Research Initiativ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UNICEF(201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UNICEF(2015). What is a Child Friendly C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overview/what-is-a-child-friendly-city/>
- Youniss & Yates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 361-376.
- Zehr, H, 2011, Change Lens. 손진, 2011 ,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KAP.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 군산교육지원청 <http://www.jbgse.kr/>
- 교육부. <http://www.moe.go.kr> (검색 2015.7.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 2015.7.6.)

성북구청 인터넷방송 교육청소년과(검색, 2015.10.1.)

신아일보(2015.3.23). 네이버 웹문서(검색. 2015.7.7.)

유니세프. www.UNICEF.or.kr (검색. 2015.7.2.)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 2015.6.12.)

[참고법률]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4.3]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 회복적 정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이트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www.kopi.or.kr/index.php>

비폭력평화교육센터 <http://cafe.daum.net/NPTCenter/>

비폭력평화물결 www.peacewave.net

광명교육연대 <http://cafe.daum.net/kmed>

회복적생활교육 <http://cafe.daum.net/RD-goodteacher/>

.....

부 록

부 록

[부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운영계획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결과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영역별 사업 개발 개요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및 추진 전략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사업 단계별 추진전략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세부영역(*7개영역)별 실천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분야 현장전문가, 프로그램개발전문가, 그리고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영역별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5개 사업을 개발하였다.

1. 지역단위 청소년의회 만들기¹⁷⁾ ○○시·도 / ○○시·군·구 청소년의회

[목적]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 집행 및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대상]

관내 거주하는 9~24세 청소년 중 선거 진행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자 + 자문위원(관내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청소년관련 시설 전문가)로 한 기수 당 2년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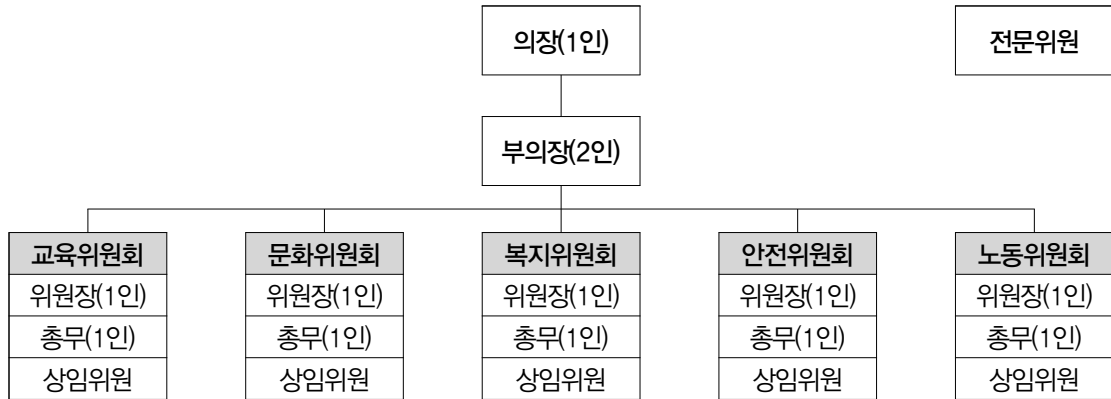
17) 이 제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2015.8.27.-28.)에서 김용천(경기대학교 행정학과)과 문서희(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임.

[운영 절차]

		1차년도 1분기	1차년도 2분기	1차년도 3분기	1차년도 4분기	2차년도 1분기	2차년도 2분기	2차년도 3분기	2차년도 4분기	3차년도 1분기
의회구성										
의원 워크 숍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조직									
	청소년정책 브리핑									
	기본소양교육									
	활동계획 수립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예산 심의										
실천의제 설정			상시운영							

[세부내용]

1. **의회구성** : 의원모집 공고(지자체 홈페이지, 학교 공문 발송, 옥외게시대 활용, 방송사 광고 등) 후 선거(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
2. **의원 워크숍** :
 - 2-1. **의장단 선출** : 2박 3일 워크숍으로 진행. 과정 중 의장단을 자율적으로 선발(의장 1인, 부의장 2인)
 - 2-2. **상임위원회 조직** : 2박 3일 워크숍 진행 중 의장단 선출 후 의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1인, 총무 1인 선발(상임위원회 :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노동)



[그림 1] 청소년의회 조직도

2.3.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브리핑 : 2박 3일 워크숍 진행 중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등에 관하여 소개

2.4. 기본소양교육 : 청소년의회 운영체계, 의원으로써의 권한, 권리, 의무, 태도 등

3. 활동계획 수립 : 2년간의 활동계획 설계

4.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여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의 의견을 묻고 통과 시 지자체에 건의

5. 차기년도 청소년 관련 정책·예산 심의 :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계획한 차기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소년의회 자체 심의. 심의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반영 의무화

6. 전년도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 해당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청소년의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사업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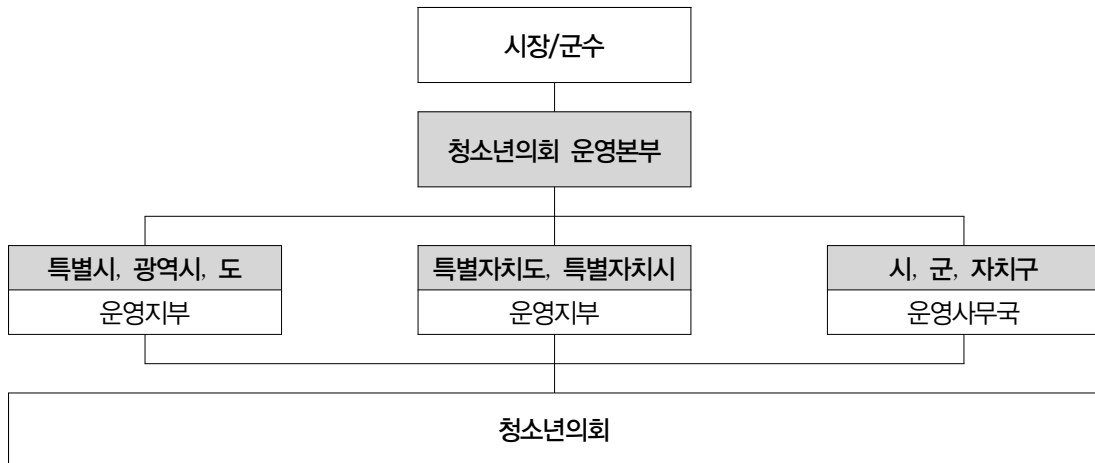
7. 실천의제 설정 및 실행 : 임기 내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실천

[추진방법]

-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명문화,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산하 ‘청소년의회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전체 지역의

운영현황 점검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전국단위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운영본부의 직원은 별도 채용을 거쳐 중앙부처, 민간단체와는 독립된 기구로 구성

- 17개 시·도에는 ‘청소년의회 운영지부’(이하 운영지부)를 설치하고 245개 시·군·구에는 ‘청소년의회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무국)을 설치
-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의회는 운영본부를 기점으로 하여 운영사무국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운영지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의회의 의원들로 조직된 연합협의체로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의회 구성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운영지원은 운영지부를 설치하여 운영)
- 자문위원은 운영지부와 운영사무국에서 자체적인 과정을 거쳐 선발



[그림 2] 청소년의회 운영본부 조직도

청소년의회 회의장은 지자체 의회 회의장을 같이 사용하며, 의원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회 건물 내에 별도 구성한다.

[기대효과]

1. 청소년들이 정책 및 예산 집행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2. 청소년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 선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워크숍 일정표

목적 : 청소년의회에 대한 이해 및 의원으로써의 역량 개발을 위함이다.

대상 : 청소년의회 의원(○○명), 전문위원(○○명), 지역사회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1명),
O.T & 레크 진행자(1명)

<1일차>

- 청소년의회 의원 간에 서로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 개인별, 팀별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시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준비사항	비고
~ 14:00	참가자 접수	참가자 접수	의원 명단 사전 준비	
14:00 ~ 15:00	의원 당선증 수여	의원 당선증 수여	당선증 제작의뢰	
15:00 ~ 17:00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미션소개	미션지	진행자 초빙
17:00 ~ 19:00	저녁시간	-		
19:00 ~ 21:00	개인/팀 미션 준비	팀 미션 준비		개인미션 자체수행
21:00 ~ 22:00	미션 결과 발표	결과발표	노트북, 빔프로젝터	의장단 선출과정 공지
22:00 ~ 07:00	취침	-		

<2일차>

- 청소년의회의 운영체계 및 의원으로써의 권한, 권리, 의무, 책임 등에 대한 교육한다.
- 청소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청소년의회 의원들 간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시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준비사항	비고
07:00 ~ 09:00	기상 / 세면 / 아침식사	-		
09:00 ~ 09:50	청소년의회 운영체계 설명	청소년의회 구성 등	노트북, 빔프로젝터	
10:00 ~ 10:50	기본소양교육	권한, 의무, 책임, 태도 등		
11:00 ~ 11:50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브리핑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소개		
12:00 ~ 13:30	점심시간 / 의장단 후보 등록	의장단 후보 접수		
13:30 ~ 15:00	의장/부의장 후보 연설	후보자 공약, 비전 소개	노트북, 빔프로젝터	
15:00 ~ 15:30	의장/부의장 선출	투표		
15:30 ~ 16:30	상임위원회 구성	5개 상임위원회 구성		
16:30 ~ 17:00	상임위원회 위원장/총무 선출	투표		
17:00 ~ 19:00	저녁시간	-		
19:00 ~ 21:00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의원 간 교류	별도 준비	진행자 초빙
21:00 ~ 22:00	야식 및 친목도모 시간	의원 간 친목도모	야식	
22:00 ~ 07:00	취침	-		

〈3일차〉

- 임기동안의 활동계획을 수립한다.(전체 / 상임위원회별)
- 임기 중 실천할 실천의제를 논의한다.

시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준비사항	비고
07:00 ~ 09:00	기상 / 세면 / 아침식사	-		
09:00 ~ 10:20	활동계획 수립	임기 중 활동내용 구성	전지, 노트북, 빔프로젝터	
10:30 ~ 11:50	실천의제 논의	실천의제 논의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종료	-		

[기대효과]

-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의회 의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Talk! Talk! with Youth 토크콘서트¹⁸⁾

- 목적 : 지역사회에 대해 고민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업 혹은 민간의 청소년활동 후원 펀드를 조성한다.
- 대상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9세 -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내용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팟캐스트를 활용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간다.

〈팟캐스트〉('20~'30)

- 홈페이지 개설 : 사연접수를 위한 홈페이지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소통 광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활용.
(카테고리 : 지역사회 고민, 일상생활 고민,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프로그램 홍보)
- 운영진 : 실무 담당, 토크콘서트 행사 진행 스텝
- 사연 : 이주의 키워드 제시 or 청소년 이슈, 전국 혹은 해외에서 접수
- 청소년 상담가 또래 상담사 모집 : 16세-24세, 고민상담 - 해결방안,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활동
- 매주 팟캐스트 올리기 : 정규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 방송 끝나고 들을 수 있도록 게시 (2~3일 후에)

〈토크콘서트〉('120)

- 찾아가는 톡톡유스 토크콘서트
- 한 달에 한번,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며 개최
- 진행 : 지역 청소년(공개모집)
- 참석 : 청소년(100여명), 지역의 정치인, 출신 유명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청소년동아리 구성원
- 참석한 모든 이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성, 그 지역만의 특색 살리기

18) 이 제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2015.8.27.-28.)에서 김용천(경기대학교 행정학과)과 문서희(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임.

- 팟캐스트에 선정되었던 사연 주인공과 함께 하는 시간 갖기

프로그램명	시간	세부내용	준비사항	비고
사전 준비	-	사연 키워드 접수	포스트잇, 펜, 전지	입구에 부착
오프닝	'10	행사 소개	행사장 준비	사전 홍보
톡톡! 공감 토크 - 1	'20	팟캐스트 사연 소개	팟캐스트 사연 취합	
공감 정체 토크	'30	정치인과의 이야기		
휴식 시간	'10	-		
공연 -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20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공연	공연 필요사항 점검	동아리 섭외
톡톡! 공감 토크 - 2	'20	현장에서 접수한 사연 나눔	사연 키워드 준비	
마무리	'10	다음 콘서트 지역 추천	추천 준비	

[기대효과]

- 지역사회 청소년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청소년과 다른 세대·집단 간의 소통 활성화
-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접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상황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3. 청소년 지역홍보 동아리 [SHOW ME THE COMMUNITY]¹⁹⁾

[목적]

청소년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 (지역사회의 역사, 특산물, 축제) 하며 주체적인 홍보를 통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역사관을 형성함. 타 지역의 위원간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

[필요성]

- 청소년들은 역사를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가 주변에 녹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현실

19) 이 제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2015.8.27.-28.)에서 두한솔(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과 곽다연(고려대학교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임.

- 지나치게 과중한 학구열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기대효과]

- 학업에 치중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관한 흥미 증진
- 지역 간 청소년들의 교류
- 주체적인 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 문화보존
-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

[진행방식]

- 기존의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와 비슷한 부류
- 3월에 모집 공고 후 4월에 서류,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
- 심사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열정을 중요시 하여 선정
- 지역 주민을 통한 사전 교육 (필요시 지역 역사 전문가 초빙)
- 전 임기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
- 14세~19세의 청소년에 한하여 선발
- 1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 (A팀과 B팀) : 서로 기획안을 비교하여 다음 일정 선정
-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고 교류활동은 9월~10월 진행
 - : 교류활동은 각 지자체에서 협의 후 전년도와 겹치지 않는 곳으로 진행
- 각 팀원이 원하는 다음 활동(문화탐방 : 지역주민 가이드,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해 팀별 회의를 거쳐 A팀과 B팀 중 하나의 건 설정
- 지역축제 부스 운영
- 위원들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문화재, 축제, 특산물 등) UCC공모전 진행

[구성]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지역 홍보동아리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지도자 1 : 갈등조율,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섭을 삼감.
 청소년 팀장 2 : 각 팀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에 대한 회의 진행
 평위원 8 : 다음 모임에 대한 자료 조사

4. 청소년 자치 동아리 셀프 디자인 공모²⁰⁾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자치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지원개요]

가. 사 업 명 : 자치 동아리 셀프 디자인 공모전

나. 지원기간 : 매년 4월 초

다. 지원규모 : 동아리 당 50만원 ~ 150만원 선택 40여개 동아리 지원

※ 평가결과 선정된 동아리 신청 총액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 심사위원들의
 합의하에 지원 금액 결정

[신청대상]

- 신설동아리 및 기존동아리
- 지역의 청소년(9~24세)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2회 이상 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
- 선정 후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정기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는 동아리
- 운영 방향 및 행정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 가능한 동아리
- ※ 타 기관·단체(시의 타부서, 기타단체 및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동아리는 제외
- ※ 거래내역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지원대상 학교(기관)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학교(기관)명의로 통장 개설·체크 혹은 후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 불가한 학교(기관)는 신청 불가.(기존 동아리활동지원 통장 가능)

20) 이 제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2015.8.27.-28.)에서 두한솔(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과 곽다연(고려대학교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임.

[기대효과]

- 청소년이 자치적, 주체적으로 활동함으로 인한 전인적 성장
-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습득
- 청소년의 자율권 확보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선정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회칙의 적정성(총칙, 조직구성, 임원구성방식, 재정에 대해 필기입하며 기타 사항 기입)
- 운영에 대한 실현 가능성
- 기타 창의적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계획, 회원 수, 구체적인 예산계획 및 자부담 확보방안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가. 사업비 교부시기 : 4월에 반액 지급 성실하게 회의록을 제출 동아리에 12월 반액 지급
나. 동아리별 정산 서류 제출 : 12.4~15 예정

[안내]

- 가. 매달 정기 회의를 가져 회의록을 제출함.
나. 매년 말 우수동아리를 선정
- 선정방법 : 정기 회의록과 운영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
 - 총칙에 의하여 잘 진행되는 동아리
 - 지도교사의 인터뷰 등의 청소년의 자치성 증빙자료
 - 활동 내용 및 행사 참여 및 수상실적(증빙 자료 사본 첨부)
 - 사회 참여 및 재능 기부 활동 등
- 다. 선정 후 교육
- 동아리의 의미와 운영형식에 대한 교육진행
- 라. 청소년 지도자를 각 동아리에 배치하여 진행
(단, 청소년 지도자는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5. 청소년 지·덕·체 함양 프로젝트²¹⁾

김시윤(부산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고운(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표]

우리의 지역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건강이 향상 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건강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하고, 더불어 지덕체가 골고루 발달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1. 세부사업계획

1) 지혜 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 지역 은퇴교사 및 지역의 대학생 멘토로 활용 -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 -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멘토에게는 봉사시간 부여 - 멘토는 기본교육 필수 이수 (안전교육, 기본소양교육 등)	2월
○ 멘토를 통한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주제는 학습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진로탐색 및 교육, 학습 동기부여, 사회지식 습득 등을 주제로 한다. - 교육 공간은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다.	3월~12월
○ 지역사회 토론회 개최 -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세대를 통합하고 이해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1회 개최 - 대상자는 세대별로 무작위 추첨 선정한다.	6월,12월
○ 프로그램 평가회 실시 - 1년간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1월

21) 이 제안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2015.8.27.-28.)에서 김시윤(부산대학교 아동복지학과)과 이고운(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임.

2) 인성 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 예예(예절,예의) 점핑교육! - 예절교육 및 바른생활습관 형성 교육 - 지역의 수련관 또는 동헌, 향교와 같은 지역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 기존 개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 및 확대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 하여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다.	청소년의 방학기간 활용(7~8월, 12~2월)
○ 지역사회 청소년교류 활성화 -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타 지역 청소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 - 청소년들 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1~12월

3) 신체 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 교구대여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체력활동 교구들을 지역사회의 공공재로 구매하여 대여한다. (ex)점프밴드, 플라잉디스크, 킨 볼 등 -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거점시설을 활용 하거나 이동장남감도서관 차량과 같은 이동시설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외부활동에 사용하는 교구인 만큼 3개월마다 점검하여 노후화된 교구는 교체한다.	1~12월
○ 여기여기 모여래! - 지역사회주민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 -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나, 희망자가 너무 많을 경우 청소년을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같은 장소(운동장, 공터) 같은 시간에 주민이 나와서 자신만의 운동 방법이나 비결을 알려주는 시간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사무소에 사전 신청하여 날짜를 배정받음	1~12월

2. 기대 효과

청소년들의 전인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또한 건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부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 공고문

1. 추진 근거

-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사업계획서의 연도별 사업 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2. 추진 개요

-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사업계획서의 연도별 사업 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 사업명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
- 기 간 : 7개월('15. 4.1~10.30)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1개 지역(시·군·구)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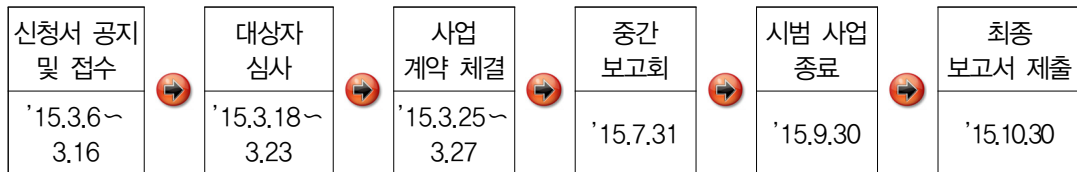
3. 공모사업 추진 목표

- 비전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역량개발 및 세대 간 파트너십 강화
 -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홍보
 -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중장기적인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4. 공모사업 운영 : 3개 영역

사업 영역 및 명칭	사업 내용	기대 효과
경제영역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설 프리마켓 운영 -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운영 - 지역 사정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가능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 -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도전정신과 창업마인드 함양
참여영역 : 청소년 옴브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	- 사업 단위 지역내 행정기관 및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옴브즈맨 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 장기적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독립된 사업부서 설치를 위한 절차 추진	-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증진 -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 -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 -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언
관계영역 :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역 내 마을화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청소년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거나 어르신-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5. 공모사업 추진 절차(2015년 3월~10월)



6. 신청자격

- 전국의 시·군·구 행정기관과 지역 단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간 컨소시엄

7.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년 3월 6일(금) ~ 3월 16일(월) (당일 18:00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1), 프로그램 계획서 1부(별첨2)

- 제출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접수가 확인되면 확인메일 발송

8. 심사 및 발표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발표 : 대상기관은 본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2015년 3월 중순 예정)

9. 시범사업 운영 방법

-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9~24세, 청소년기본법)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시범사업 운영 및 참가 청소년 모집과 관리
-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사업 설명회 및 사전 교육 실시

10.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10월 30일까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매뉴얼 개발

11. 시범사업 효과분석(연구진)

- 측정 도구 : 2013-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행복지표 활용
- 측정 대상 : 시범사업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150명
- 측정 시기 : 최초 시범사업 개시(1회)와 종료 후(2회) 2회에 걸쳐 실시

기타

- 문의처 : ○○○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기관에 대한 기관방문이 있으며,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1>

접수번호*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행정 기관(명)			사업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청소년 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대표 성명				e-mail		
지역 현황	학교 현황	초등학교		개 명		
		중학교		개 명		
		고등학교		개 명		
	청소년 인구 (9-24세)	청소년 약 명				
제출 서류	1. 프로그램계획서 1부(양식 별첨) 2. 신청기관 현황 1부(자유양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모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첨부2>

프로그램 계획서(5페이지 내외 작성)

1. 참여지역 현황

- 청소년 인구(9-24세) 및 학교(초·중·고·대) 수
- 시범사업 운영 기관 현황

2.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계획

3. 프로그램 운영계획

- 인력, 단위 프로그램, 예산, 회기 등 포함

4. 수지계산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차 이
[경영수입 부문]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기수금수입 기타수입 경영수입합계			
[경영지출 부문] 경영지출합계 경영수지차액			
[그 외 자금수입 부문] 차입금수입 그 외 차입금수입 합계			
[그 외 자금지출 부문] 그 외 자금지출합계			
합 계			

[부록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요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우선하여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 044-415-2167
정윤미 전문연구위원 ☎ 044-415-2188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보기>에 제시한 청소년 관련 사업들 중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여 실시해야 할 3가지 사업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아래 빈칸에 적어 주세요.(영역에 상관없이 전체 15개 사업 중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사업 3개 선택)

<응답 예>

순위	사업명	선택 이유
1순위	01.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청소년들이 프리마켓 체험을 통해 경제관념과 창업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순위	15.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우리지역은 가족단위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공간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이런 기회를 갖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3순위	06. 청소년건강인증제	청소년들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순위	사업명	선택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 영역 및 내용〉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경제	01.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 청소년들을 위한 프리마켓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
	02. 창업동아리	○ 청소년들이 창업을 활성화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며, 창업 교육 및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
	03. 청소년 일자리 은행	○ 경제교육과 기업가 및 창업 기초과정으로 실시하고, 이후 청소년들에게 구직 신청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과 알선,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최적의 일자리 제공
건강 (복지)	04. 청소년건강인증제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의 표준체력 및 정서지수 기준을 제시 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함 필요시 전문적인 치료 제공
	05. 취약계층 및 다문화청소년 멘토링(일상적응지원)	○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정체감, 또래관계 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인 과정으로 운영
안전	06. 청소년 안전교육 이수	○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07. 청소년안전존 형성	○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거리를 청소년안전존으로 지정하여 이 구간 내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이 거리 내에서 청소년관련 다양한 행사 운영
교육	08. 청소년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한 학기에 일정한 과목을 청소년들의 욕구·문제, 사회적 이슈,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정규과목 이외에 필요한 내용을 배움
	09. 청소년 권장도서 보급	○ 청소년 권장도서, 필수도서를 청소년들이 구입시 정가의 일정 비율 할인
활동	10.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 청소년 1인당 50,000원의 수당지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11. 지역사회 동아리 활성화	○ 지역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화 하고, 운영 및 지원함.
참여 (권리)	12. 청소년옴부즈맨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
	13. 청소년참여예산제	○ 지역의 청소년들 관련 예산 중 일정금액의 사용을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관계	14.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이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세대통합의 공간 및 활동 실시
	15.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 단순한 노동, 노력 봉사에서 벗어나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우수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정에게 시상

2. 배경 변인

1) 거주 지역 : _____ (예: 전북 남원시)

2) 연 령 : _____

3) 핸드폰 : _____

(귀하의 핸드폰 번호는 설문응답을 위한 답례품 발송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신다면, ☐ 안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Abstract

A Study of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and Construction Project III: The Pilot Project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Youth Happiness Community

As the third year research following 'A Study of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and Construction Project I,' conducted in 2013, this research explore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pilot project on establishment of the Youth Happiness Community. The contents of the 2015 research are as follows:

Chapter I, as introduction, presents background and grounds for the pilot project.

Chapter II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pilot project explaining how the pilo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he initial plan was developed and applications from communities were received in 2014 based on the research plan and then one local community was selected for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during the six month period from Apr 1st to Sep 30th. The consortium betwee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youth institution was established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pilot project consists of three major sub-pilot projects (the youth flea market pilot project, the youth ombudsman office project and the generation integration project bringing together the elderly and teenagers). This Chapter evaluates the overall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and presents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through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pilot project.

Chapter III introduces best practice cases in Korea that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in the community. In doing so, major features of cases that are similar to the project on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are present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ha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network. Moreover, the case of the UNICEF's 'Child Friendly Cities (CFC) Initiative' is presented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10 areas of essential rights of children and teenagers and draw implications.

In order to propose specific measures for building a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Chapter IV presents procedures required for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major principles, execution scheme for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implementation roadmap, specific action plans, measures for building a collaborative network amongst community residents as well as operational and management practices.

Chapter V presents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followings are four policy recommendations made in this Chapter: 1)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on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2) how to build and operate the execution scheme and apply the net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3)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the project and 4) recommendations for enactment of the law and municipal ordinanc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where teens are happy.

Keywords : The pilot project ,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Action plans for each area, Measures for building a collaborative network in the community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해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정윤미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대표 김연숙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73-1 94330

979-11-5654-060-1 (세트)